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工學碩士 學位論文

근·현대 국가주도 호텔의 건설과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변화

The State-Led Construction and th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Influx of Capitalism of the Hotel in Modern Times

2016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최 민 현

근·현대 국가주도 호텔의 건설과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변화

The State-Led Construction and th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Influx of Capitalism of the Hotel in Modern Times

指導敎授 田 鳳 熙

이 論文을 工學碩士 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5年 11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 築 學 科

최 민 현

최민현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5年 12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國 文 抄 錄

근·현대 국가주도 호텔의 건설과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변화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최 민 현
指導敎授 전 봉 희

본 연구는 근, 현대 시기 국가주도로 건설, 운영되었던 호텔의 변화를 통해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국가시설이 자본주의 유입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민영화되어 민간시설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주도로 건설된 고급호텔의 경우에는 국가시설의 성격과 상업시설의 성격 모두를 가진 혼종적인 시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 연구는 운영, 건설 주체에 따라 국가시설 혹은 상업, 숙박시설의 측면에서만 호텔을 분석하고 있다. 호텔을 2가지 성격을 가진 혼종적인 시설로 봄으로써 국가호텔이 민영화 되는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봄으로써 변화에 따른 물리적 징후를 관찰하여 그러한 변화과정이 시대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가주도의 호텔 건설은 일제강점 초기와 박정희 정권 초기에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국가호텔의 의미와 역할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호텔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표방하는 정권에게 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였다. 이는 호텔이 건축적으로 서구양식을 재현하고 기능, 공간적으로는 서구문화를 재현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식민지정부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건설된 호텔의 건축 형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고급호텔을 건설하는 정권의 성격이 고급호텔의 건축형태와 운영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본식민지정부와 미군정과 같은 타자로써의 권력주체들은 호텔의 고급성을 통해 그들의 차별적인 지위를 표출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식민지정부와 미국의 호텔 운영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식민지정부와 미국에 의한 호텔 사용으로 한국의 고급호텔은 고급성에 기인한 차별적 지위부여의 기능을 내포하게 되었고 이에 호텔은 권력의 표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호텔을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호텔이 정권초기 활발하게 건설되었던 것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이후 운영 수익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주도로 건설된 호텔들에서도 이미 상업시설의 성격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호텔의 성격은 자본주의 유입에 따라 그 상업성이 강조되어 호텔과 그 호텔로 대표되는 공간들에는 여러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최종적 결과로 국가호텔들은 모두 민간에 불하되어 신규호텔 개발의 바탕이 되었는데 특히 당시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성장한 재벌대기업들이 신규호텔의 개발 주체로 참여하였다. 신규호텔 개발은 불하되기 전 이미 국가와 기업 간의 모의가 되어있었으며 이는 호텔이 완전

하게 민영화 되었으나 아직도 국가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호텔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호텔들에는 기존 국가호텔의 특성들이 투영되는데 그 방식은 호텔 매입 주체의 특성, 매입 주체와 국가와의 관계, 호텔의 입지적인 측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主要語 : 호텔, 국가호텔, 고급호텔, 재벌 대기업, 박정희 정권, 일제강점기, 자본주의, 조선호텔
學　番 : 2014-20502

目　次

▣ 국문초록 ····· i
▣ 목차 ····· iv
▣ 표 목차 ····· vii
▣ 그림 목차 ····· vii

Ⅰ.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
1.3 선행연구의 분석 ····· 6

Ⅱ. 식민시기 고급호텔의 등장과 그 성격의 지속 ····· 8

2.1 원구단 파괴와 식민지 공간 재편으로서의 조선호텔 건설 ····· 8
2.1.1 조선호텔의 건설 ····· 8
2.1.2 조선호텔의 건축 ····· 19
2.2 식민지 자본주의 유입과 조선호텔의 변화, 반도호텔의 건설 ····· 33
2.2.1 조선호텔의 변화 ····· 33
2.2.2 반도호텔의 건설 ····· 41
2.2.2 반도호텔의 건축 ····· 46
2.3 차별적 지위의 표현으로써 미국의 조선호텔, 반도호텔 사용 ····· 51

Ⅲ. 박정희 정권기 국가주도의 근대화와 국가호텔 건설 ····· 60

3.1 조선호텔, 반도호텔의 대한민국 정부로의 이양과 이후 운영 ····· 60
3.1.1 반도호텔의 이양 ····· 60
3.1.2 조선호텔의 이양 ····· 66
3.1.3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 ····· 72
3.1.4 신축조선호텔 건설 ····· 81
3.2 미국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 수단으로써 워커힐 건설 ····· 86
3.2.1 워커힐의 건설 ····· 86
3.2.2 워커힐의 건축 ····· 95
3.3 반공 이념과 근대국가 수립의 상징으로써 타워호텔 건설 ····· 102
3.4 국가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으로써 남산 영빈관 건설 ·· 109

Ⅳ. 70년대 재벌 대기업의 성장과 고급호텔 건설 ····· 112

4.1 워커힐, 반도호텔, 영빈관, 타워호텔의 불하 ····· 112
4.1.1 워커힐 매각 ····· 112
4.1.2 영빈관 매각 ····· 116
4.1.3 반도호텔 매각 ····· 120
4.1.4 타워호텔 매각 ····· 123
4.2 국가역할의 이전으로써 재벌 대기업의 국가호텔 매입과 건설 ····· 124
4.2.1 선경의 워커힐 매입과 쉐라톤 워커힐 건설 ····· 127
4.2.2 삼성의 영빈관 매입과 호텔신라 건설 ····· 134
4.2.3 롯데의 반도호텔 매입과 호텔롯데 건설 ····· 142

Ⅴ. 결론 ····· 149

▣ 參考文獻

▣ abstract

▣ 표 목차

표 1-1 호텔 시설의 특성 ····· 3
표 2-1 조선호텔 건설 인부 내역 ····· 21
표 2-2 대경성부대관에 기록된 조선호텔 인근 200m안 건물용도 ····· 35
표 2-3 1915-24년 매일신보 주최자별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 ····· 38
표 2-4 1923-36년 동아일보 주최자별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 ····· 39
표 2-5 해방 이후 조선호텔 사용 ····· 52
표 2-6 해방 이후 반도호텔 사용 ····· 53
표 3-1 1961년, 1962년 반도호텔, 조선호텔 수입 ····· 71
표 3-2 수출수입 대 관광수입 비교 ····· 73
표 3-3 조선호텔의 주요국제회의, 주요투숙객 ····· 75
표 3-4 연도별 반도호텔 수익 상태 ····· 81
표 3-5 워커힐 준공 당시 시설 ····· 92
표 3-6 전통건축을 재현한 건축물 ····· 99
표 4-1 국가소유 호텔 매각 금액, 규모, 주체 ····· 126

▣ 그림 목차

그림 2-1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 도로망 비교 ····· 9
그림 2-2 조선호텔 후보지와 인근 주요 시설 ····· 12
그림 2-3 1914년 완공당시 조선호텔과 황궁우 ····· 14
그림 2-4 게오르그 데라란데의 경성도시계획도 ····· 15
그림 2-5 일본 오리엔탈 호텔(좌), 토마스 저택(우) ····· 20
그림 2-6 조선호텔 건설 당시 욕실(좌)과 화장실(좌) ····· 23
그림 2-7 조선호텔 건설 당시 1층 평면도(필자작성) ····· 24
그림 2-8 조선호텔 건설 당시 현관 광간 ····· 27
그림 2-9 특별식당(좌), 식당(우) ····· 27
그림 2-10 귀빈침실(좌), 귀빈응접실(우) ····· 28
그림 2-11 대광간(大廣間) ····· 31

그림 2-12 집회겸 음악실 ····· 32
그림 2-13 1904년 소공로의 모습(좌), 1936년 소공로의 모습(우) ····· 36
그림 2-14 반도호텔의 모습(좌), 1946년도 지번구획입경성정도(우) ····· 42
그림 2-15 반도호텔 1층 평면도 ····· 49
그림 2-16 반도호텔 후면부와 후면부의 부속건물 ····· 50
그림 2-17 경제원조 관련 조선호텔 내부 풍경(좌), 조선호텔 로비(우) ····· 59
그림 3-1 1950년대 당시 반도호텔(좌), 삼정빌딩(우) ····· 64
그림 3-2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 이전모습(좌), 이후모습(우) ····· 76
그림 3-3 좌측부터 반도호텔, 조선호텔, 뉴코리아 호텔의 모습 ····· 78
그림 3-4 조선호텔 후보지 ····· 82
그림 3-5 김수근의 신축조선호텔 스케치 ····· 83
그림 3-6 신축조선호텔의 모습 ····· 85
그림 3-7 워커힐 건설 당시 항공사진 ····· 91
그림 3-8 워커힐의 힐탑바 ····· 97
그림 3-9 워커힐의 입구와 힐탑바 ····· 98
그림 3-10 워커힐의 명월관 ····· 101
그림 3-11 워커힐과 한강변의 초가집의 대조적인 모습 ····· 102
그림 3-12 계획 당시 조감도(좌), 회의장이 생략되어 완공 된 모습(우) ····· 105
그림 3-13 타워호텔, 자유센터 본관 ····· 106
그림 3-14 자유센터 배치도 ····· 108
그림 3-15 타워호텔의 '승공통일' 문구 ····· 108
그림 3-16 대경성부대관의 정무총감관저(좌), 정무총감관저 배치도(우) ····· 109
그림 3-17 영빈관 준공당시 모습 ····· 111
그림 4-1 청와대, 청와대 영빈관(좌측 회색 건물) 전경 ····· 118
그림 4-2 남산 영빈관 전경 ····· 118
그림 4-3 타워호텔 해피홀(좌), 타워호텔 야외수영장(우) ····· 124
그림 4-4 워커힐 신규호텔 개발계획 ····· 130
그림 4-5 실행된 워커힐 개발계획 ····· 131
그림 4-6 워커힐 배치도 ····· 132
그림 4-7 워커힐 로비 계획 투시도 ····· 133
그림 4-8 도쿄 호텔오꾸라의 모습 ····· 136

그림 4-9 호텔신라의 저층부 로비지붕의 모습 ····· 137
그림 4-10 8각 석주, 샹들리에가 있는 호텔신라 로비 ····· 140
그림 4-11 현재 호텔신라의 로비 모습(좌), 새롭게 건설된 야외수영장(우) · 141
그림 4-12 호텔롯데 개발을 기점으로 조성된 롯데타운 ····· 144
그림 4-13 우측부터 호텔롯데 구관, 호텔롯데 신관, 롯데백화점 ····· 146
그림 4-14 호텔롯데 건설당시 라운지 내부(좌), 현재 내부(우) ····· 147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선행 연구의 분석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의 대표적인 특급호텔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쉐라톤 워커힐, W호텔, 신세계 조선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등은 기존 국가가 운영하던 호텔 혹은 영빈관 시설을 바탕으로 건설된 호텔들이다. 60년대 타워호텔이 민간에 불하되었으며 70년대 후반에는 워커힐, 조선호텔, 영빈관이 비슷한 시기 불하되었는데 이들은 60,70년대 정부의 지원 하에 급격하게 성장한 재벌대기업에 의해 매입되었다. 반도호텔을 매입하여 호텔롯데를 건설한 롯데그룹, 남산 영빈관을 매입하여 호텔신라를 건설한 삼성그룹, 워커힐을 매입하여 쉐라톤 워커힐과 W호텔을 건설한 선경그룹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들이다. 조선호텔과 타워호텔 또한 각각 신세계그룹, 현대그룹에 매입되어 현재 신세계조선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라는 이름의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에서 2가지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호텔이 국가에 의해 건설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탄생한 호텔이라

는 시설은 근본적으로 상업 숙박시설의 한 종류였으며 현재에도 호텔은 대표적인 상업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고급호텔이 국가에 의해 건설되어 운영된 이유를 알기 위해선 고급호텔이 한국에 유입되어 변화해온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국가호텔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벌대기업으로 불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 온 고급호텔의 역할과 그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던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 현대시기 국가에 의해 건설되었거나 운영된 적이 있는 호텔들로는 일제강점시대에 건설된 조선(朝鮮)호텔(1914)과 반도(半島)호텔(1938), 박정희 정권 시대에 건설된 워커힐(1963), 타워호텔(1967), 남산 영빈관(1967), 신축 조선호텔(1970) 등이 있다. 민간 기업에 의해 건설된 반도호텔을 제외한다면 국가호텔들은 모두 일제강점 초기와 박정희 정권 초기에만 건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호텔의 건설은 한 시대의 정치, 경제적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국에서 국가주도로 건설된 최초의 고급호텔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건설된 조선호텔이다. 당시 호텔은 근대화 시기 서구 시설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건설되었다.[1] 이러한 상징성은 형태적 측면에서 서구양식 건축물을 모방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서구의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생성되었다. 근대국가로서 서구열강들과 나란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메이지 시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일본의 고급호텔 건설이나 식민지 근대화 선전을 통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일본 식민지 정부의 조선호텔 건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1)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그러나 호텔이 오랜 기간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건설되었던 사실은 단순히 호텔을 서구시설의 재현과 모방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의 의미를 넘어 서구 국가의 귀빈들을 맞이하는 국가 영빈관 시설로서 작동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가 담기기도 하였으며 입지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곳에 건설되었다.

형태적 특성	입지적 특성	기능적 특성
서구 근대시설 (근대화, 현대화, 고급성)	이전 권력 시설과의 관계 (계승, 정복, 점유)	서비스의 제공 (궁궐, 영빈관 기능)
영빈관(국가 문화, 전통성)	입지의 장소적 의미	서구 근대시설

[표 1-1] 호텔 시설의 특성

하지만 호텔은 근본적으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시설임에도 불구,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최종적으로 국가호텔이 민간에 불하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급호텔이라는 상업시설이 민간이 아닌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건설된 것은 호텔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가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는 국가정부만이 대규모 고급호텔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고급호텔을 이용할만한 일반 소비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호텔은 국가에 의해 건설, 운영되었다. 국가에 의한 호텔 운영의 변화는 따라서 시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 초기 건설되었던 국가의 고급호텔들은 정권이 안정화 되고 자본주의가 유입됨에 따라 변화의 징후들을 나타내고 최종적으로 민영화되어 현재와 같은 호텔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주도로 건설된 호텔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규

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와 같은 호텔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조선호텔이 건설된 1914년부터 롯데호텔이 건설된 1979년까지이다. 해당 시설의 변화와 같은 경우 1979년 이후의 사실들도 일부 포함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가에 의해 건설되었던 고급호텔들과 이러한 국가호텔에 기반을 두고 건설된 서울의 대규모 고급호텔이다. 특히 현존하는 고급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1급의 등급을 가진 대규모 고급호텔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숙박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고급호텔을 다루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건설된 조선호텔(1914), 반도호텔(1938), 해방 이후 건설된 워커힐(1963), 타워호텔(1967), 남산 영빈관(1967), 조선호텔(1970), 재벌 대기업에 의해 건설된 호텔신라(1978), 쉐라톤워커힐(1978), 호텔롯데(1979)를 선정하였다.

한국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호텔은 대불호텔로 알려져 있다. 대불호텔 이후에도 스튜어트 호텔, 손탁호텔 등이 건설되어 개화기 조선의 서구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개발주체 또한 민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양식 숙박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호텔이 국가시설로서 도시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 것은 1914년 건설된 「조선호텔」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조선호텔」은 일본식민지 정부 지시 하에서 남만주철도회사가 대한제국의 원구단 부지에 건설하였다. 설계는 조선총독부를 설계하기도 한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그 데라란데(George de Lalande)가 시공은 미즈구미(淸水組)에서 담당하였다. 1938년 건설된 「반도호텔」은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의 사장 노구치 시다가후(野口遵)가 조선호텔 맞은편에 건설한 호텔로 다카하시 데이터로(高橋貞太郎)가 설계하고 間組에서 시공하였다. 「반도호텔」은 국가에 의해 건설된 호텔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국가호텔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워커힐」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아차산 자락, 이승만 별장 부지에 건설한 미국식 리조트 호텔이다. 김희춘, 이희태, 김수근, 엄덕문, 강명구, 나상진이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시공은 삼환, 동아, 대림, 협화 등의 건설회사와 군이 참여하였다. 「타워호텔」은 1967년 장충동에 반공센터로 건설되었다가 호텔로 용도 변경된 건물로 김수근이 설계하였다. 「영빈관」은 장충동 구 박문사 부지에 1957년 최초로 계획되었다가 중단된 후 1967년 다시 건설되었다. 국가 영빈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황상일이 설계하고 신흥상목건축주식회사, 대협건축주식회사, 신성공업주식회사, 공영건업주식회사 등이 시공에 참여하였다. 「신축 조선호텔」은 기존 조선호텔을 부수고 그 자리에 1970년 건설되었다. 미국의 윌리암 테이블라(William B. Tabler) 설계사무소가 설계하였고 미국의 백텔사(Bechtel)와 한국의 삼환, 현대가 시공하였다.

「호텔신라」는 1973년 삼성그룹이 영빈관을 인수한 후 인근 부지에 1978년 건설하였다. 일본의 죽중공무소(竹中工務店), 대성건설(大成建設)과 한국의 박춘명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하였으며 대성건설이 시공하였다. 「쉐라톤 워커힐」은 1973년 선경에서 워커힐을 인수하여 1978년 기존부지에 고층 호텔을 건설하였다. 일본의 이시모도 겐모찌사와 한국의 서울건축기술연구소가 설계하였고 하워드 허시 앤드 어소시에츠사(Howard Hirch and Associates)가 인테리어를 담당하였으며 현대건설

이 시공하였다. 「호텔롯데」는 1973년 롯데그룹에서 반도호텔과 국립중앙도서관 부지를 매입한 후 1979년 건설하였다. 일본의 도다건설(戶田建設)과 엄덕문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맡았고 도다건설에서 시공하였다.

1.3 선행연구의 분석

서울의 대규모 고급호텔에 대한 통시적 서사로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호텔인 조선호텔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 고급호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이후 호텔들에 대한 연구는 호텔경영학적 접근과 실내디자인 분야의 연구들이다.

개화기 시기 근대호텔의 시초로서 인천의 대불호텔과 정동의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민간에 의해 건설된 소규모 호텔들을 다루고, 서구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호텔시설의 의미를 서술한 연구가 있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양의 방문객들의 기록을 통해서 개화기에 건설된 바 있는 새로운 호텔시설의 존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연구들은 호텔이라는 명칭을 가진 시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 개화기에 지어진 호텔시설의 존재와 그 위치를 밝혀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당시 외국인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정동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연관 지어 근대식 서양 숙박, 사교 시설로서의 손탁호텔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호텔이라는 시설의 도시구조 속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4]

일제강점기 철도호텔로서 호텔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5]와 원구단

2) 김경한, 「한국 개화기의 호텔사: 대불호텔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7호, 2013
3) 이정학, 「개화기 호텔발전사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5호, 2013
4) 김천성, 「정동, 근대식 서양 숙박시설과 사교클럽의 근원지의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6호, 2009

파괴를 통한 식민지재편의 과정으로서 조선호텔 건설의 상징적의미를 다룬 연구들[6][7][8]이 있으며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조선호텔의 역할을 서술한 연구가 있다.[9]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선호텔 건설이라는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식민지 수도로서 서울의 변화에 따른 조선호텔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변화에 대하여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호텔 시설을 서술하고 있는 연구로는 윤상인의 연구[10]와 발레리 줄레조의 저서[11]가 있다. 윤상인은 제국주의 산물로서 조선호텔, 반도호텔의 의미를 보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명칭 사용을 통해서 현재에도 이어지는 식민지 잔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발레리 줄레조의 책에서는 고급호텔의 역사를 통해 사회분석 기호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아시아의 고급호텔 탄생 및 발전과정의 하나로서 서울의 고급호텔 형성의 의미를 지리학, 건축학, 역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5) 김경한, 「일제강점기의 철도호텔에 관한 연구」, 컨벤션연구 제14권, 2014
6) 박희용의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표상, 원구단」, 서울학연구 XI, 2010. 「권력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정동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제6권 2호, 2014
7) 정영호,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2010
8) 심승구,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공간의 재편 -원구단과 조선철도호텔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2), 2014
9) 한규무, 「1900~1920년대 미국인 한국관광단 연구」, 서강인문논총 36집, 2013
10)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6호, 2012
11) 양지윤 역: 발레리 줄레조, 도시의 창 고급호텔, 후마니타스, 2007

Ⅱ. 식민시기 고급호텔의 등장과 성격

2.1 원구단 파괴와 식민지 공간 재편으로서의 조선호텔 건설
2.2 식민지 자본주의유입과 조선호텔의 변화, 반도호텔의 건설
2.3 차별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미국의 조선호텔, 반도호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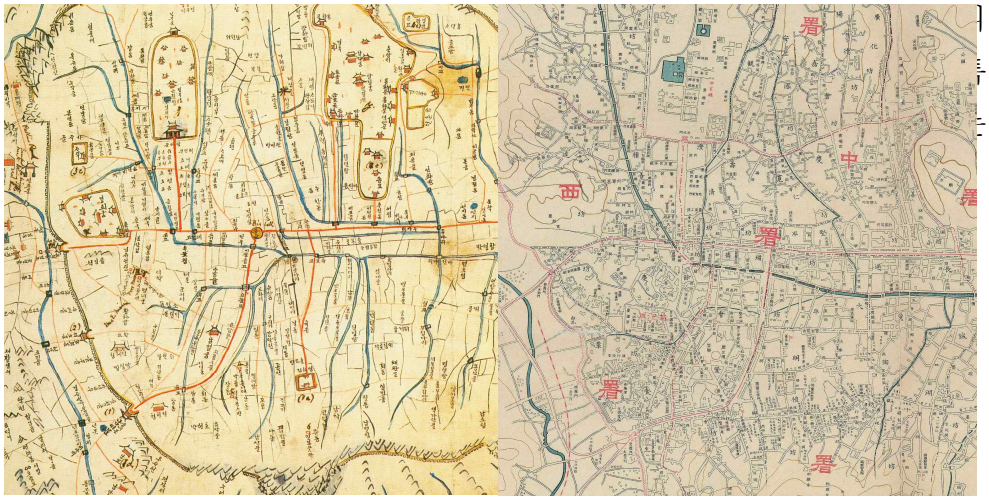
2.1 원구단 파괴와 식민지 공간 재편으로서의 조선호텔 건설

2.1.1 조선호텔의 건설과정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지 정부에 의한 호텔 건설을 살펴보고 호텔 건설이 식민지 공간 재편의 과정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호텔이라는 건축물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성장과 자본주의의 유입에 따른 조선호텔의 성격 변화와 그 징후

를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반도호텔 건설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을 출범하는 고종은 기존의 경복궁, 창덕궁으로 대표되는 도시 중심을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공간 이동에는 정동지역에 위치한 각국 공사관의 존재가 그 배경에 있었는데 일본과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양세력의 권력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이 있었다.[12] 서울 도시 중심의 이동과정에서 1897년 건설된 원구단(圜丘壇)은 경운궁에서



[그림 2-1]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 도로망 비교(좌: 19세기 말엽, 우: 1907년)
(출처: 「首善全圖(슈션젼도)」, 「1907년 최신경전도」에 표기)

12) 『독립신문』, 1896년 12월 31일
13) 처음에는 '원구단 앞 신작로' 로 불리다가 이후 '公洞路' 혹은 '分戶曹后道' 로 불리었고 식민지기 원구단 남쪽에 있던 대관정에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長谷川好道가 거주했던 연유로 '長谷川町' 으로불리다가 해방 이후 1966년 11월 26일 소공로로 개칭되었다. 박희용, 「권력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정동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권 2호, 2014

소공로를 끼고 원구단 맞은편으로 서양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공식 연회장소로 사용되었던 서양식벽돌 건물인 대관정(大觀亭)이 있었다.[14] 대관정은 선교사의 주택으로 건설되었으나 높은 입지에서 경복궁을 조망하는 위치에 있다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매입, 이를 개조하여 영빈관으로 사용한 것이다.[15] 이렇듯 소공동 일대는 대한제국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국가의 중심공간으로서 기능하였으며 특히 외국 공사관에 인접하여 궁궐과 영빈관, 국가 제사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정치, 외교적 중심지였다.

대한제국의 중심공간이었던 소공동 일대는 한반도 내 일제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던 대관정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의 조선 주둔군 사령관저로 사용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원구단 영역은 1911년 총독부 소관으로 이전되고 1913년 3월 15일 원구단 부지의 건물 해체작업을 시작으로 1914년 9월 30일 조선호텔이 건설된다.[16] 조선호텔은 1911년 무렵 철도호텔의 형태로 계획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부산과 신의주에 철도호텔이 건설된 바 있다. 철도호텔들은 주로 역사에 위치하여 철도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일본의 한반도 통치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철도호텔 중에서 수도인 서울에 건설된 조선호텔은 다른 도시의 철도호텔들과는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와 만주의 철도사업을 관장하던 남만주철도회사는 일본제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요 역에 철도호텔을 건설하게 된다. 그 중에서 조선호텔은 입지, 규모 면에서 다른 철도호텔과는 차별성을 가진 시설이

14) W. F. 샌즈,「조선비망록」,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pp.139-140
15) 이순우,「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채, 2010
16)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5

었다. 먼저 조선호텔은 철도역에 위치하지 않았다. 부산과 신의주 등 다른 철도호텔들은 10-20객실의 소규모로 역사 상부에 설치되었다. 반면에 조선호텔은 경성역에서 차로 약 10분정도 떨어진 소공동 원구단 부지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조선호텔이 단순한 철도 이용객의 숙소 이상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호텔의 부지선정 과정을 통해서 일본식민지 정부의 조선호텔 건설 의도를 추측해볼 수 있다. 1912년 5월 경성 철도호텔의 위치에 대한 설이 난무한 가운데서 원구단 부지가 가장 유력하며 남대문역과의 거리가 먼 단점이 있으나 평수가 6천여 평으로 부지를 결정하여도 무관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17] 같은 해 6월에는 조선호텔 부지로서 3개의 후보지로 상생정(相生町) 아라이(荒井)장관 저택에서 미창정(米倉町) 탁지부 관사부지, 남대문 역전 오야(大屋)장관 저택부근, 원구단 등이 언급된다.[18] 같은 해 11월에는 설계자인 게오르그 데라란데 기사와의 협의 후 원구단 부지로 최종 결정된다.[19]

17) 철도호텔의 위치, 『每日申報』, 1912년 5월 14일
18) 철도호텔 용지, 『每日申報』, 1912년 6월 18일
19) 철도호텔 결정, 『每日申報』, 1912년 11월 15일

[그림 2-2] 조선호텔 후보지와 인근 주요 시설(1: 경운궁, 2: 대관정, 3: 소공로, 4: 미국영사관, 5: 러시아영사관/ A: 원구단 부지, B: 상생정(相生町) 아라이(荒井)장관 저택에서 미창정(米倉町) 탁지부 관사부지, C: 남대문 역전 오야(大屋)장관 저택부근)

(출처: 「1910년 경성시가전도(京城市街全圖)」에 표기)

부지선정 과정에서 원구단 부지의 철도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철도역에 좀 더 가까운 다른 후보지가 거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단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철도역과의 접근성 외의 여러 요소들이 조선호텔의 건립목적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은 서구 유럽에서 탄생한 숙박시설로 여행을 하는 귀족들에게 그들의 저택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호텔은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유입되어 서구인 방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서 초기 항구 주변에 주로 건설되었다. 이후 서구 열강들과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증가하고 서구의 권력자들과 귀빈들의 방문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호텔 건설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호텔은 과거 외국의 사절단 방문에 대비한 영빈관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정부 시절 이러한 국가호텔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869년 건설된 엔료칸(延遼館)과 1883년 건설한 로쿠메이칸(鹿鳴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호텔들은 일본의 전통적 양식이 아닌 유럽의 호텔과 유사한 외관과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거대한 서구 양식 건물을 건설하고 서구의 고전적 장식들로 꾸며진 화려한 내부공간에서 서구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서구 열강들과 대등한 위치의 문명 개화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20]

조선호텔은 일본제국이 본토에 건설하였던 영빈관 호텔의 식민지 이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영빈관이었던 대관정 맞은편에 위치하여 각국 공사관과 접근성이 좋은 원구단 부지는 이러한 호텔의 입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더구나 한일합병 이후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일본 천황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던 원구단 시설은 하루 빨리 철거해야하는 시설이었을 것이다.[21]

결국 일본 식민지 정부는 원구단을 철거하고 조선호텔을 건설한다. 이를 통해 원구단 부지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을 얻고 과거 식민지의 상징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국가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식민지배의 상황을 도시풍경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조선호텔 건설은 단순히 원구단을 철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방식으로서 식민지배를 시각화 한다. 원구단 부지를 모두 파괴하는 대신

20)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pp.76-77
21) 심승구,「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공간의 재편 -원구단과 조선호텔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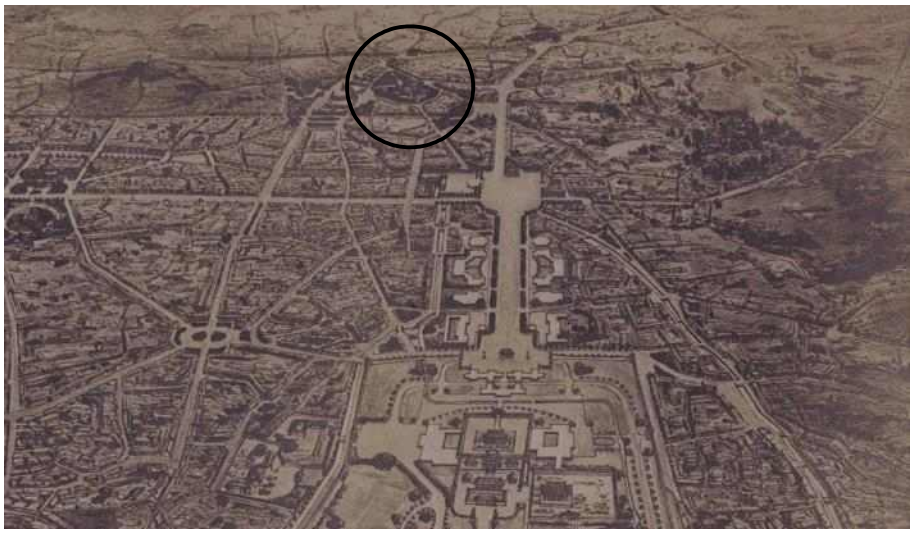
원구단 시설의 일부를 호텔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식민지배의 현실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황궁우를 조선호텔 뒷마당의 팔각정으로 배치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조선호텔의 모습은 높은 대지에 위치함으로써 그 거대한 규모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조선호텔의 모습에서 호텔에 투숙하였던 일본인 건축가 곤와지로(今和次郎)는 지나치게 피정복자를 유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총독부청사의 부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22)]

[그림 2-3] 1914년 완공당시 조선호텔과 황궁우

조선호텔의 입지는 한일합병 전 조선에 진출하여 남촌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식민지 정부 공간의 북쪽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총독관저와 총독부청사는 왜성대에 건설되어 조선과 대한제국의 중심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1885년 한성조약에 따라 일본은 왜성대 부지를 넘겨받아 1893년 한국통감부 건물과 1907년 통감부 청사를 건설하였는데, 합병 이후 이를 각각 총독관저와 총독부청사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기

22) 今和次郎, 總督府新廳舍は露骨すぎ, 『朝鮮と建築』 第2券第4號, 朝鮮建築會, 923, pp.17-19

때문이다. 1925년 경성부청과 1926년 광화문 총독부청사 건설 전까지 조선호텔은 일제 세력의 북쪽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조선호텔 입지의 정치적 중요성은 조선호텔 설계자 게오르그 데라란데의 경성도시계획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경성도시계획도에서는 광화문 거리에서 조선호텔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사선 도로개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원구단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소공로 개발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림 2-4] 게오르그 데라란데의 경성도시계획도
(출처: Dongje Seo, Ryoko Miyazaki, Akira Kawasaki, Naoki Mizuno and Yasuhiko Nishigaki, 「A Study of "Illustrated Plan for Keijo City」, 2013)

조선호텔의 건설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배하의 조선호텔 건설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조선호텔은 단순히 상업적 목적에 따라 개발된 호텔이 아니라 식민지배 공간재편과정에서 건설된 식민지배의 상징시설이였다.[23] 일본 본토에서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호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문명개화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근대화된 식민지의 모습을 호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23) 정영효,「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2010

서구 열강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서 일본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화려한 조선호텔 건물 등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업적과 낙후된 한국의 현실을 대조시킴으로써 식민통치를 선전하였다.[24] 동시에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식민지배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기존 권력시설을 유린하면서 대한제국의 몰락과 한국을 지배한 일본제국의 권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조선호텔을 사용하였다.

조선호텔의 이러한 성격은 조선호텔의 용도와 기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호텔은 1914년 개관 직후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방문한 외국 귀빈들을 위한 숙박시설로써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25] 이후 정무총감, 경무총장, 내무부장관, 조선총독 등 식민지 정부의 주요 권력자들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6] 이들은 조선호텔에서 일본 본토 관리들의 방문이나 외국 귀빈들의 방문에 맞추어 그들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거나 식민지 정부 관리들을 모아 놓고 업무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식민지 정책의 주요한 참여자로서 동양척식회사, 조선은행 등의 국책회사와 정부 관리들의 회담과 회연이 벌어지곤 하였으며[27] 프랑스의 원수를 포함하여 서구 국가의 귀빈들이 방문하였을 때는 국가의 영빈관으로서 사용되었다.[28] 이렇듯 조선호텔은 단순한 상업시설로서의 숙박시설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적 중심지에 건설되어 식민통치시설의 하나로써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호텔 건설의 의미는 조선호텔이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예과, 1924),

---

24) 한규무, 「1900-1920년대 미국인 한국관광단 연구」, 서강인문논총 36, 2013, p.183
25) 대공진회: 이입주상 (移入酒商), 『每日申報』, 1915년 9월 16일
26) 정무총감초연, 『每日申報』, 1916년 8월 20일. 이외에도 여러 기사에서 이러한 행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7) 石塚총재 피로연, 『每日申報』, 1916년 10월 31일. 이외에도 여러 기사에서 이러한 행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8) 京城府 主催 歡迎宴 금 21일에 조선호텔에서 개최, 1922년 2월 21일

경성운동장(1925), 서울역(1925), 조선신궁(1925), 경성부청(1926), 조선총독부(1926) 등 식민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주로 1920년대 중반에 건설된 반면 거대한 기념비적 상징물이었던 조선호텔은 10년이나 앞선 1910년대 중반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호텔이라는 시설의 특성과 관계있다. 조선호텔은 국가적 상징시설로 건설된 국가시설이었지만 호텔이라는 시설은 본질적으로 상업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호텔은 본래 숙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시설로 건설되었다. 이를 일본 정부가 서구 열강들의 귀빈들을 위한 국가 영빈관으로 사용하면서 국가시설로서 건설하였는데 영빈관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의 영빈관은 궁궐이나 귀족의 저택과 같이 항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따라 관리자가 항시 대기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운영에 어려움이 적었다. 그러나 호텔 영빈관은 서구식 생활을 재현하기 위해 요리사, 음악가, 지배인 등 전문 관리인들이 고용되어야 했으며 건설 규모가 크고 장식이 화려함에 따라 건설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어 수익성 없이 운영되기가 힘들었다. 그 예로 엔료칸과 로쿠메이칸 같은 국가 운영의 영빈관 호텔들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별도 회사를 세우거나 정부 산하의 부서를 지정하여 호텔 건설과 운영을 맞기고 이를 통해 국가 영빈관 기능과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호텔을 건설하게 된다.[29]

29) 로쿠메이칸 건설에도 깊게 관련하였던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로쿠메이칸 완성 후 1887년 재계의 유력 인사에게 부탁하여 호텔 경영회사(유한책임 데이코쿠 호텔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890년 60객실 규모의 데이코쿠 호텔을 건설하였는데 재벌 창시자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였고 정부 부처 또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 「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pp.85-88

조선호텔 또한 국가 영빈관 호텔이었지만 동시에 상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 초기 공사비 84만원이 소요되는[30] 60객실 규모의 대형 호텔을 일본 식민지 정부가 별도의 수익 없이 운영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이는 다른 철도호텔과 조선호텔의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건설과 운영에 남만추철도회사가 참여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남만주철도회사는 1905년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 이후 만주 개발을 위해 반관반민의 형태로 설립된 철도 회사이다. 만주지구의 철도 개발 뿐 아니라 다례항 건설과 경영, 탄광 개발 등 하나의 국가와 맞먹는 규모의 회사로 만주 지역의 철도, 광업, 항만, 전기, 가스, 선박 등 모든 분야의 사업에 관여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사업도 진행하였으며 만주에서 다롄(大蓮)야마토(大和)호텔(1907), 뤼순(旅順)야마토호텔(1908), 장춘(長春)야마토호텔(1908), 펑톈(奉天)야마토호텔(1910) 등의 호텔을 건설, 운영하였다.[31]

호텔은 상업적인 이윤을 낼 수 있는 시설임과 동시에 국가 영빈관 시설로서 정치, 외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배 공간재편의 과정에서 식민통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식민지 정부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만철의 의도가 만나 조선호텔이라는 대규모 건축물을 1914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건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은 오랜 기간의 계획과정과 건설과정 후에 완성된 조선총독부청사와 조선신궁과 같은 식민지 기념비 건축물들과 달리 계획과 시공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1915년 조선물산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

30) 총액 842,879원 88전 9리, 잔 공사 제외.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3
31)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pp.215-217

2.1.2 조선호텔의 건축

조선호텔은 식민지배의 현실을 시각화하여 상징하는 건축물임과 동시에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급스러운 시설과 근대식 설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어떻게 반영되어 건축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호텔의 건축은 서구 양식의 모방과 지역성과의 대조의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모방**의 방식은 서구양식의 건축물을 재현함으로써 선진화된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과시하고 근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건축적 장치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이 개화기 초기 서구 귀빈들의 접대를 위해 서구양식의 영빈관 호텔을 건설한 사실과 유사하다. 건축은 서구화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지표였으며 그 중에서 호텔은 하나의 국가가 투영되는 창으로써, 시각적 지표 이상의 문화, 생활의 행위가 담기는 배경으로써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호텔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국의 식민지 근대화의 표상으로써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호텔의 건축양식은 일본이 자국 내에서 건설하면서 정립한 그들의 호텔 건축양식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호텔의 설계자 게오르그 데 라란데는 독일인으로 일본 내에 호텔을 비롯한 여러 서양식 건축물을 설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고배에 있는 오리엔탈 호텔(1907) 개축에 참여하였으며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토머스 저택 등이 그의 작품이다.[32]

32)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p.235

[그림 2-5] 일본 오리엔탈 호텔(좌), 토마스 저택(우)

조선호텔의 외관은 구미제국의 최신호텔을 참작하여 북유럽의 근대식으로 조성되었다.[33] 당시 조선 기술자들은 서양식 건물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선인들은 주로 잡일을 위해 동원되었다.

33)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2

직명	내지인	조선인	지나인	계
연와공	5,687	6		5,693
석공	7,379		6,235	13,614
대공	16,738	36		16,804
좌관(左官)	4,605	4		4,609
동(銅)공	1,455			2,641
철공	2,600	41		2,641
연(鉛)공	799			799
건구(建具)공	3,046			3,046
아스팔트포장공	79			79
대리석공	509			509
슬레이트공	292			292
페인트공	1,288			1288
전기공	800	1,614		2,414
목만(木挽)공	1,009	41		1,050
연(鳶)	4,513	25		4,538
토방(土方)	1,115	3,705		4,820
중사(仲仕)	245	2,743		2,988
초자공, 기초잡직공급 반인부	976	38,658		39,634

[표 2-1] 조선호텔 건설 인부 내역
(출처: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조선호텔 공사에는 일본인 53,135명, 조선인 46,873명, 중국인 6,235명이 참여 하였는데 조선호텔 건설이 합병 초기인 1912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호텔이라는 조선에 없던 대규모의 고급 서양식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일본 식민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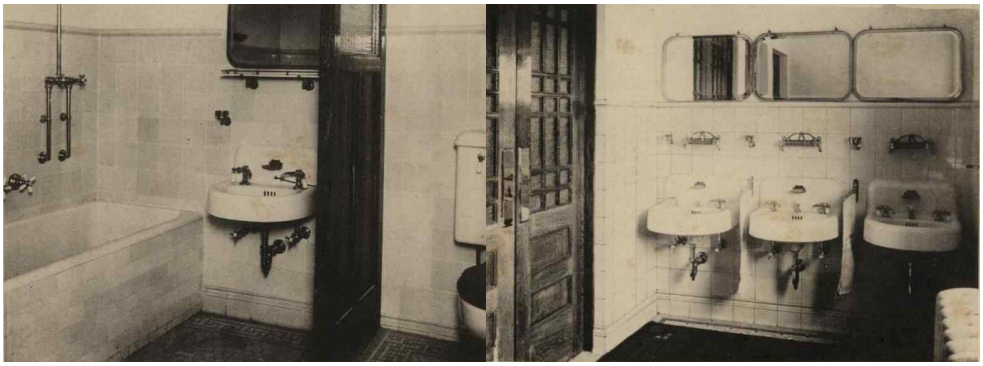
수 있다. 조선호텔의 외관은 주로 벽돌로 구성되었고 지붕은 동판을 사용하였으며 백색 타일, 강철 및 철재 등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료들은 주로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서양식 건축기술이 체득되었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인 석공이 대다수 참여한 것으로 당시 만주의 철도호텔 건설에 참여하였던 석공들이 한일합병 이후 식민지 조선의 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호텔에는 건축형태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설비 구축을 통해 서양식의 생활공간이 구현되었다. 4층 높이의 조선호텔에는 당시 미국에서 수입된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위한 전기 설비가 구비되었다. 승강기는 직원용과 승객용으로 2개가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승강기 뿐 아니라 난방, 세탁, 제빙을 위한 설비들이 독일, 영국 등에서 수입되어 설치되었다.[34] 지하의 세탁실을 통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온돌 난방이 아닌 서양식의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호텔에는 근대식 욕실과 화장실이 구비되었다. 수도 설비를 통해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을 설치하였는데 60개가 넘는 객실 마다 화장실을 구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층에는 욕실 12실, 변소 3실을 3층에는 욕실 10실, 변소 3실을 4층에는 욕실 4실, 변소 4실을 설치하여 공동 화장실, 욕실로 운영되었다. 고급 객실에는 개별 방에도 변소와 욕실이 설치되어 객실 별 차등의 정도가 욕실, 화장실의 유무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화장실은 여성용과 남성용의 차이가 있었는데 1층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여자용은 부인화장실, 남성용은 그냥 변소로 표시하였는데 그 기능은 같았다. 남성용 변소에는 변소 외에 별도로 Cloak room[35]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소변용 변기 또한 구비되어 있었다.

---

34)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7

35) 번역하면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뜻하는데 남성 변소의 경우에는 영어표기로 cloak room과 toilet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loak room은 옷이나 휴대용품을 임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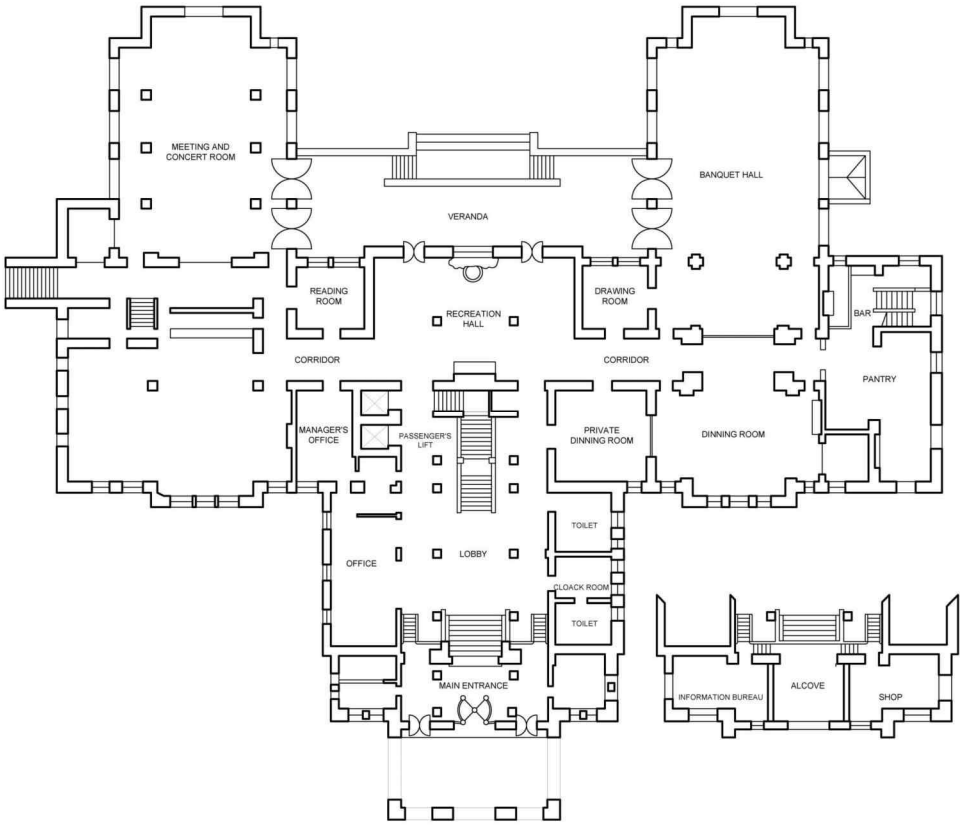
[그림 2-6] 조선호텔 건설 당시 욕실(좌)과 화장실(좌)

호텔의 지상층에는 로비, 라운지, 집회실, 콘서트홀, 다목적홀, 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상층부에는 객실을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여 현대 호텔의 공간 구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고급호텔일수록 객실 대비 부대시설이 가지는 면적이 큰데 이러한 경향은 장기 투숙객이 많을수록 호텔이 숙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호텔은 식민지 조선의 영빈관 호텔로 4층 규모에서 한 개 층 이상을 부대시설용으로 사용하여 숙박공간 대비 부대시설 공간의 면적이 컸다. 대규모 집회실, 콘서트홀, 서양식 식당은 당시 경성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호텔의 시설들로 조선호텔에는 서양의 근대식 문화가 재현될 수 있는 식민지 조선의 몇 안되는 공간이었다.

호텔의 지하층에는 이발실, 동대합실, 부인발세실, 안내인식당, 직원식당, 주고(酒庫), 승강기 동력실, 곳간, 얼음 저장실, 육류 저장소, 직공실, 도기 창고, 면포소실(麵麭燒室), 부속실, 조도사교소(調度事教所), 용인식당, 식료품창고, 석탄고, 기관실, 제빙실, 직공실, 창고, 하물실(荷物室), 세탁실, 제봉실, 사용인 합숙실, 부속 욕실, 변소 등이 있다.[36] 조선호텔의 지하는 상부가 지상에 드러난 반지하로 설비 장치를 위한 공간 외에도 직원을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양식 생활과 요리를 제공하

36)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7

기 위해 얼음 저장실, 육류 저장소, 제빙실 등이 구비되었다. 69개 객실, 총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식당, 대규모 연회공간과 집회실, 콘서트홀을 가진 규모의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비와 부속시설을 위한 거대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조선호텔 건설 당시 1층 평면도(필자작성)

조선호텔의 1층에는 현관, 안내인 숙실, 급사실(給仕室), 현관 광간, 사교실, 전기실, 여행안내소 휴게실, 일용품 소매장, 탈모실(脫帽室), 남자변소, 부인 화장실, 대광간, 응접실, 특별식당, 식당, 식물실, 연회 광간, 배선실, 식당 겸 주장(酒場), 인쇄실, 독서실, 지배인실, 주장, 구희실(球戱室), 집회겸 음악실, 수부실(受付室) 등이 있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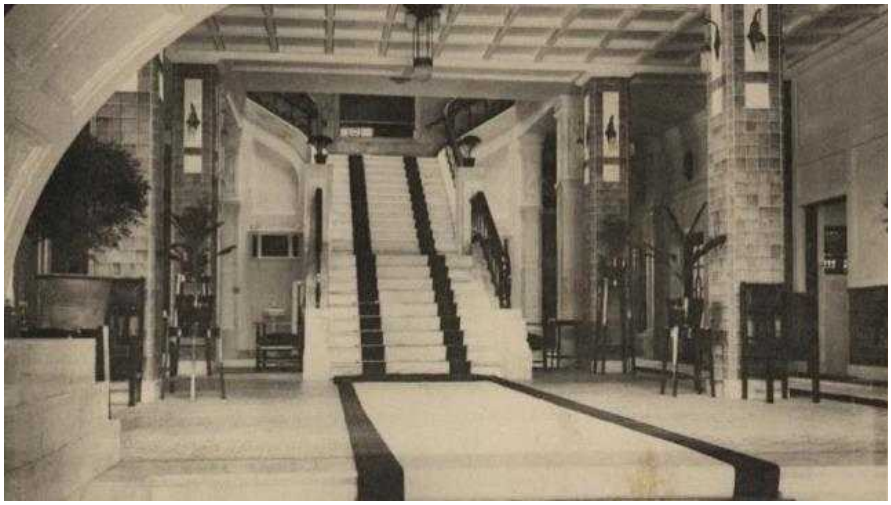
호텔 1층 바닥은 지상보다 높이 있어 현관을 통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람은 상승하는 동선을 경험하게 된다. 현관을 지나면 현관 위의 Alcove가 사리지고 천장이 확 트이게 되며 2층으로 가는 주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어 상승의 동선이 지속된다. 이러한 호텔 동선 흐름은 대칭적 구성을 선택하지 않은 현대 호텔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대칭적인 구성을 통한 상승의 동선 형성은 권위와 권력의 건축적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칭적 구성은 1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 공간 구획에 있어서는 대칭적인 구성보다는 각 실에 맞는 구획을 통해 공간 구성을 하였다. 이러한 대칭적 구성은 내부 공간의 동선과 구획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호텔 건물 자체의 배치가 기존에 존재한 원구단의 잔재 건물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조정됨으로써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1층에는 이외에도 두 개의 식당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연회를 위한 Private Dinning Room이 존재하였다. 베란다와 식당, 연회 광간에서는 후정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후정에는 황궁우가 자리하고 있었다.

2, 3, 4층에는 객실이 위치하였다. 객실은 등급이 있었는데 귀빈침실, 특별침실, 상등침실, 보통침실, 일본식 침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귀빈침실은 귀빈응접실, 귀빈 거간(居間), 귀빈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층별 객실 배치의 특징은 하층부일수록 더 높은 등급의 고급객실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층별로 한 종류의 객실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최고급 객실인 귀빈침실은 2층에만 위치하였다. 이러한 객실배치는 현대의 호텔 객실배치와는 다른 것으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였지만 크기가 작고 이용이 익숙하지 않았으며 더 큰 객실에는 많은 짐을 가진 VIP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저층부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층별 객실 배치는 해방 이후 변화를 겪게 되어 최고층인 4층에 고급객실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37)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7

조선호텔의 실내 장식에서도 서양식 호텔의 재현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 서술된 건설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현관은 남유럽 시세션(secession)식[38]을 주로 벽과 기둥은 청록색 화장 타일로 마무리하고 마루는 백색과 흑색의 체크무늬 모양 타일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회반죽으로 마무리하였고 현관공간에서 계단으로 이르는 부분은 백색 대리석을, 그 위에는 녹부적색(錄付赤色)의 카펫을 깔았다.[39] 현관 광간(廣間) 또한 시세션식을 주로 하여 기둥과 벽의 허리부분에 청록색 화장 타일로 마감하였고 벽의 상부에는 패널에 회반죽칠 마감을 하였다. 마루는 적색모양의 타일을 사용하였고 여행객 안내소, 휴게실, 일용품 소매장에 이르는 계단은 백색대리석을 사용해서 철제로 된 당초무늬 난간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회반죽 마무리를 하고 중앙 계단에는 녹부적색의 카펫을 두었다.[40] 현관 광간은 현대 호텔의 로비와 같은 공간으로 사무실이 바로 인접해 있다.

38) 19세기 말경의 에술혁신 운동으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구조를 연구하고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구조에 의한 구조체의 합리성과 각종 건축기능과 형태 등을 고려한 종합성이 강조된 건축으로 20세기 초 일본이 주로 사용한 건축양식
39)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7
40)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8



[그림 2-8] 조선호텔 건설 당시 현관 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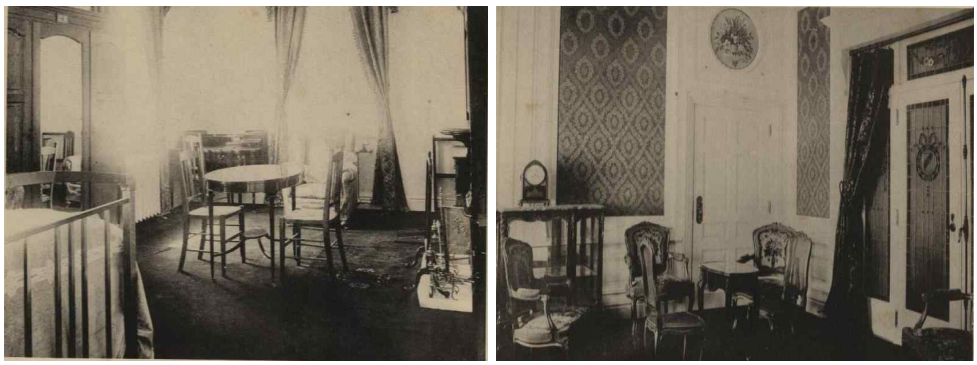
응접실은 프랑스 루이 16세 시대의 장식에 백색 대리석과 석고 장식을 사용한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특별식당은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의 장식을 사용하고 4개의 벽면에는 석고 장식, 입구 상부에는 그림을 걸어 꾸몄다. 식당은 복흥식(復興式, 네오바르크식)의 장식을 사용하여 마루를 미리견송(米利堅松)을 시괄(矢筈)[41]무늬로 깔고 천정은 꽃모양의 석고장식으로 꾸몄다.[42]

[그림 2-9] 특별싱당(좌), 식당(우)

귀빈응접실은 프랑스 루이 15세 미취의 양식을 주로 루이 16세 양식

41) 화살의 오늬 모양의 무늬
42)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9

의 장식을 더하였으며 귀빈공간은 영국 퀸 엔(Anne)양식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귀빈침실은 영국 근세식을 기반으로 적색의 카펫을 깔았다.[43]



[그림 2-10] 귀빈침실(좌), 귀빈응접실(우)

각 실은 서구의 특정 시대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구 호텔의 양식의 모방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호텔은 여행 온 귀족들을 위해 그들의 저택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부 공간을 조성하였다. 조선호텔의 이용은 서양의 방문객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많은 방문객이 일본인이었으므로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침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호텔은 서구의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양식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호텔이라는 서구의 시설을 완전히 모방함으로써 식민지 근대화를 보여주는 통로로 호텔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편적 고급성을 나타내기 위해 서양식 장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제국의 위상과 능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양식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시대의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다.

서양식 장식 외에도 부분적으로 일본양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집회겸 음악실은 등원식(藤原式)을 주로하고 화양석충식(和洋析衷式)[44]을 사용하였으며 벽 일부와 천정에 등원식 보상화(寶相花)[45] 모양을 그린 스

43)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9
44) 서양식과 일식의 절충식
45) 장식용 당초무늬

테인드글라스 정면창을 타원모양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대형 집회실에 화양석충식으로 내부공간을 장식한 것은 집회실이 제국주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친일적 행사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던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정치적 시설로써 그 기능과 형태에 있어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작동하였음을 말해준다.

대조의 방식은 근대화된 일본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대조를 통해서 식민지배의 정당화를 표현함과 동시에 호텔을 이용하는 일본제국과 서구의 귀빈들에게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원구단 시설의 일부를 남겨놓고 서양식 호텔 본관과 같은 장소에 배치한 것은 대한제국이라는 이전 권력주체의 몰락과 식민지배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원구단의 담장을 그대로 남겨놓음으로써 과거 원구단의 존재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서양식 호텔 건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극대화된다. 또한 광화문로에서 보이는 후정의 황궁우와 그것을 규모 면에서 압도하는 호텔 건물의 공존은 과거 대한제국의 상징시설을 후정의 팔각정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점령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표현방식은 규모의 차이나 양식의 차이의 유무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건축적 장치들로 구현된 관계설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병치가 아니라 시각적, 공간적 관계의 형성을 통한 대조적 이미지의 형성이다. 조선호텔의 대칭적 평면구성은 내부 공간의 권위적 동선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구성은 외부의 팔각정과 호텔 건물의 외형적 배치설정을 위해 이루어졌다.[46] 조선호텔은 황궁우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배치를 형성하는데 황궁우 쪽인 후면에 양익을 돌출시켜 두 건물의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

46)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2

다. 이를 통해 황궁우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양익에 존재하는 집회실, 연회실에서 황궁우를 조망하고 상부층의 가능한 많은 객실에서도 황궁우를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외관상의 대칭적 형태와 내부 구획의 차이가 생긴 것은 황궁우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건축적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의 방식은 조선호텔의 대조적 방식의 핵심으로써 식민지배의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과거 상징시설의 점령을 통해 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관 건물과 전통양식의 조화를 위해 본관 건물에 한국산 화강암을 사용하고 1층과 2층 창 중간에 적색 벽돌을 사용함으로써[47] 색체와 재료의 이질감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은 이전 왕조의 상징시설을 미적 피조물로 인식한 오리엔탈리즘의 미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 색체의 표현은 호텔의 내부 장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광간(大廣間)은 현대 호텔의 로비 라운지와 같은 공간이다. 북유럽 근대식 장식을 기본으로 동양의 취미를 가하여 네 개의 벽에 대유재와 벚나무를 사용한 수원, 경천, 전라북도, 금산시, 개성, 경성 창덕궁 비원, 우이동과 금강산의 절경을 기록한 그림으로 꾸몄다. 마루는 인도의 홍색과 백색의 타일로 체크무늬 모양으로 구성하였고 벽에는 독일 최신식의 백색 도기제 난로와 스테인드글래스 중앙창, 농목(農牧)의 신 형상의 조각과 분수를 설치하였다.[48]

식민지 조선의 풍경 그림은 호텔 내부에 들어오면 화려한 서양식 내부 공간으로 인해 방문객이 망각하였던 자신들의 지리적 위치, 식민지 조선의 공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장치들이다.

47)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2
48)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9

[그림 2-11] 대광간(大廣間)

연회공간에는 북유럽 근세식 장식을 사용하였는데 정면에 평양 대동강의 풍경을 담은 대벽화를 설치하였다.[49] 마찬가지로 스태인드글래스로 된 타원창을 설치하였다. 대광간과 마찬가지로 대형 연회공간의 중앙에 대동강 풍경의 그림을 둠으로써 내부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장식물들은 낙후된 식민지 조선에서 화려한 서구문화의 공간인 호텔에 속한 사람들의 지위를 상대적 우위에 서게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서양의 국가에 있었다면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은 공간은 호텔 내부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호텔 이용자가 지배적 계층으로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준다.

49)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1914, p.19

[그림 2-12] 집회겸 음악실

서구 양식과 지역적 요소의 관계설정은 기본적으로 고급호텔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주기 위한 식민지 상황에서의 건축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화, 서구화를 나타내는 서구 양식의 건축물과 장식,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써 원구단의 잔재 건물들과의 관계설정을 통한 대조적 이미지, 그리고 호텔 내부의 장식의 사용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단순한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표현을 통해 하나의 단일체로써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구현되며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닌 여러 요소들의 치밀한 조정을 통해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식민지 자본주의 유입과 조선호텔의 변화, 반도호텔의 건설

2.2.1 조선호텔의 변화

식민지배의 상징시설로 건설된 조선호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크게 식민지배의 안정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적 차원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회현상은 서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긴밀하게 관련하고 있는 것들이다. 무단통치를 통해 물리적 폭력을 수단으로 조선을 지배해왔던 식민지 정부는 이러한 방법에 한계를 느끼고 자본, 문화적 지배를 통해 식민지배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다.[50] 이를 바탕으로 광화문 총독부청사, 경성부청, 경성역, 조선신궁에 이르는 기념비적 국가시설들을 건설하여 식민지 수도로서 경성의 체제를 정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어난 경성의 자본주의화는 근대 소비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초래하였고 이는 일제의 민족분열전략, 민족상층부 회유전략으로서 조선인들 또한 식민지 근대적 도시 소비문화상품의 주요 소비자로서 등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자본 지배의 본격화는 도시 공간 지배세력으로서 총독부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진출한 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제권력으로의 이전을 초래한다.[51] 경성은 상징적 기념비 건축물들이 건설됨에 따라 식민지 수도로서의 공간적 체계가 형성되고 경제권력의 성장에 따라 도시 구조가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호텔은 변화를 겪게 된다.

---

50) 정태헌,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 아시아문화 (15), 2000, pp.8-9

51)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1904-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920년대 중반 총독부청사와 조선신궁이라는 양대 기념비적 상징건축물의 건설과 시구개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행정수도의 건설은 식민지 권력의 상징물로서 조선호텔의 입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었다. 거대한 상징 건축물들은 전통왕조의 흔적을 압도하며 완전히 새로운 식민지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서 광화문 총독부청사, 경성부청, 조선신궁 혹은 경성역으로 이어지는 상징 축이 형성되며 소공로와 조선호텔의 입지는 변방으로 전락하여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서울의 자본주의적 도시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인 '대경성계획'이 제기되면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조선호텔로 대표되던 소공동 일대의 장소적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소공동 일대 장소적 성격의 변화는 이 일대를 대표하는 시설로서 식민지 정부의 상징시설이였던 조선호텔의 국가적 성격의 약화를 의미한다. 조선호텔의 변화를 (1)호텔과 주변 장소의 상업화, (2)호텔 용도, 사용자의 변화, (3)소유, 운영권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호텔과 주변 장소의 상업화

원구단과 대관정 사이로 뚫린 소공로는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르는 중요한 길이었다. 이러한 소공로는 조선호텔이 건설되면서 경성역에서 조선호텔로 이르는 길로 사용되었다. 주차군 사령부 소유로 되어 있던 대관정 건물이 용산 사령관저 신축에 따라 마츠이(三井)합명회사로 이전되었는데 이를 1926년 다시 경성부에서 매입하였다. 이후 대관정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려는 계획과 함께 통행이 거의 없었던 소공로의 번영을 위해 대관정 측 돌담을 허물어 길을 넓히고 소공로의 가로 상점을 개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진다.[52)]

이러한 소공로 개발계획은 소공로가 가졌던 기존 성격의 변화를 유발하는 시대적 상황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원구단으로의 통행을 위해 설치되었던 소공로는 공적인 용도의 수행을 위한 길이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통행이 적어 적막한 길이었다.[53] 이러한 소공동 가로의 성격은 원구단이 파괴되고 조선호텔이 건설된 후에도 유지되었다. 조선호텔은 국가 영빈관으로서 식민지 정부의 상징시설이였기 때문에 소공로는 조선호텔을 방문하는 정부고위관리나 외국의 귀빈들이 탄 차의 통행만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소공로를 포함한 소공동 일대가 원구단 건설을 시작으로 조선호텔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상징적 시설이 자리하면서 공적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공로는 1926년 소공로 개발에 따라 상업가로화 된다. 소공로의 상업가로화는 기존 소공로가 가졌던 공적인 성격의 약화와 자본주의 유입에 의한 도시 상업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의한 결과였다. 특히 소공로 남단에 위치한 조선은행(1909)을 필두로 이 일대에는 조선식산은행, 조선상업은행, 안전은행 등의 주요 은행들이 위치하였고 이와 관련, 상업회의소를 포함하여 여러 기업, 상업 건물들이 건설되어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사용되게 되면서 점차 국가시설을 위한 공간에서 상업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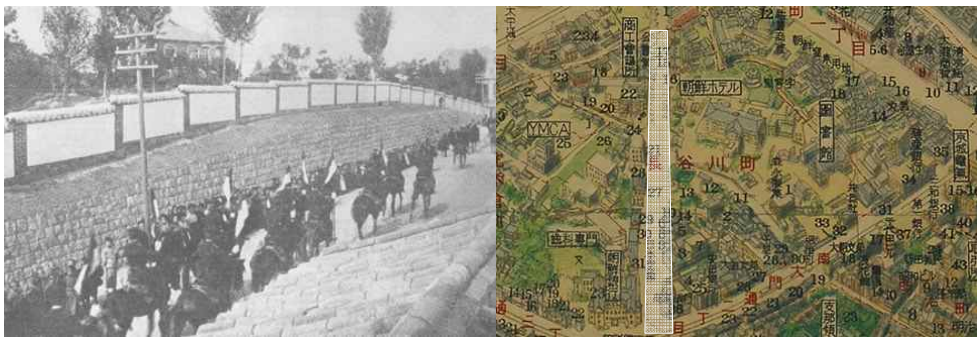
용도	상점	회사	제조업	병원	은행	단체	숙박	기타	합계
개수	14	14	4	7	3	5	1	9	57

[표 2-2] 대경성부대관에 기록된 조선호텔 인근 200m안 건물용도

52) 寂寞을 깨칠 長谷川町街路 서편돌담을깨치고 번창한상점을 버리게된다, 『每日申報』, 1926년 5월 15일

53) 寂寞을 깨칠 長谷川町街路 서편돌담을깨치고 번창한상점을 버리게된다, 『每日申報』, 1926년 5월 15일

소공로 개선사업 이후 소공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1904년 소공로는 한쪽에는 대관정 석벽과 담장이, 다른 한쪽에는 원구단 담장으로 둘러싸인 길이었다. 개선사업 이후 대관정 측 담장은 사라지고 중소 규모의 상점들이 개설되었다. 또한 대관정이 도서관으로 사용되면서 길이 증축되었고 일대에 공원이 형성되었다.



[그림 2-13] 1904년도 소공로의 모습(좌), 1936년 대경성부대관에서 나타난 소공로의 모습(우)

소공로의 상업가로화는 이 일대의 대표 시설이던 조선호텔의 기존 성격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1920년대 이후 식민지적 소비자본주의가 전개되고 일본 정부의 주도로 성장한 기업과 자본가들이 등장함에 따라[54] 조선호텔은 식민지 영빈관 시설의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을 부여받게 된

54) 일본 본국의 경제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 간에 자유로운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던 관세와 회사령이 1920년 동시에 철폐된 것을 간주하여 20년대 이후의 경공업 중심 공업화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식민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의 물질적 장치가 20년대 중반 이후 경성의 도시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고 본다. 행정수도의 정비가 일단락된 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수도 경성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제권력, 특히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상업, 금융자본세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포드주의의 국제적 흐름 속에 다이쇼기 일본사회의 모던 생활의 구성요소로 등장한 대중적 소비자본주의 문화상품들이 일본 국내 경기 불황을 타고 식민지 조선의 도시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 시작했다는 것, 20년대 초 이른바 개조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인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근대 주체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시세가 확장되면서 경성의 문화적 소비시장 규모가 점차 커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 또한 문화 소비 계층으로 포섭되게 된다. 이는 일본 정부의 주도로 성장한 식민지 자본 장악의 필두로서 은행, 회사들의 성장에 따라 정부 세력과는 별도의 권력으로서 등장한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한다고 볼 수 있다.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1904-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다. 그것은 본래 호텔이라는 시설이 가지는 성업시설로서의 성격으로 조선호텔은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점차 고급문화의 소비재로 인식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조선호텔의 용도 및 사용자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조선호텔이 식민지 권력의 상징으로서 건설된 국가시설이었지만 조선호텔이 지닌 고급문화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식민지적 자본지배의 상업시설로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호텔 용도, 사용자의 변화

조설호텔은 개관 후 조선물산공진회의 숙박시설로서 식민지 근대화를 선전하였다. 이후 정무총감, 조선총독 등 식민지 정부의 주요 권력자들이 사용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나 연회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등 국책회사와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반도 내 식민지 정부 관리들 뿐 아니라 일본 본토의 국회의원이나 황태자가 공식적으로 조선을 방문할 때 숙박 및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로 조선호텔을 사용하였다. 1922년 프랑스 원수의 방문은 조선호텔의 이러한 국가적 기능의 정점에 이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15-24년 매일신보[55]의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호텔 건설 초기인 1915-17년 민간주최 행사(민간인 투숙에 관한 기사 포함)가 3건 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에 비해 총 기사

55) 1924년까지의 기사만을 조사한 것은 조선호텔 행사관련 매일신보 기사 수가 1925년 12개, 1926년2개로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938년까지 계속 되서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 수가 5개 이하로 나타난다. 이는 1925년 조선호텔 관할이 남만주철도회사에서 철도국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또한 조선호텔의 행사 자체가 보도될 만큼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수가 7개 밖에 되지 않았던 1919년을 제외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주최 행사 관련 기사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호텔의 민간인 사용이 증가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매일신보	기사 수	정부주최	비율	민간주최	비율
1915	38	17	71%	3	13%
1916	88	47	84%	3	5%
1917	26	19	86%	3	14%
1918	48	32	78%	6	15%
1919	7	2	50%	2	50%
1920	45	17	45%	11	29%
1921	76	47	68%	12	17%
1922	53	35	66%	12	23%
1923	43	22	65%	8	24%
1924	19	13	62%	8	38%

[표 2-3] 1915-24년 매일신보 주최자별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1923-36년 동아일보의 행사관련 기사에서도 민간주최 행사 기사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설철도회사, 조선상업회의소 연합회, 전기회사, 토목건축협회 ,조선광업회, 경성인쇄조합, 자동차회사, 해동은행, 철도협회, 조선의사회 등 기업 및 민간 협회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일반 개인의 조선호텔 사용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개의 객실을 가진 거대한 규모의 조선호텔에서 상업적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민간인 이용의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 민간인 이용의 증가는 상업화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화 소비 계층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서 조선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상류층이 등장하였던 상황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금융, 자본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정치권력으로 대표되었던 식민지배 권력이 경제권력으로 이양된 상황과 관련 있다.[56] 즉 조선호텔이라는 고급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계층의 성장이 조선

56) 김백영,「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1904-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호텔의 용도와 사용자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호텔은 국가적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에 비해 조선호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업호텔화 되었고 이는 기존에 조선호텔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력으로 대표되던 식민지 정부의 상징적시설이라는 성격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공로를 포함하여 조선호텔 일대 장소의 상업화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조선호텔 변화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 수	정부주최	비율	민간주최	비율
1923	43	23	53%	9	21%
1924	28	12	43%	12	43%
1925	22	10	45%	7	32%
1926	25	13	52%	5	20%
1927	27	9	33%	14	52%
1928	26	11	42%	15	58%
1929	28	8	29%	16	57%
1930	17	11	65%	4	24%
1931	33	18	55%	13	39%
1932	36	17	47%	19	53%
1933	45	19	42%	20	44%
1934	50	19	38%	28	56%
1935	36	8	22%	26	72%
1936	15	6	40%	9	60%

[표 2-4] 1923-36년 동아일보 주최자별 조선호텔 행사 관련 기사

(3) 호텔 소유, 운영권의 변화

조선호텔은 남만주철도회사가 운영, 관리를 맡아 하였다. 일제강점 초기 조선의 철도 사업을 위탁 운영해 오던 만철회사는 1925년 4월 총독부가 국유철도경영을 결심함에 따라 철도 사업을 총독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는 한반도의 원활한 통치를 위한 총독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총독부 철도국 산하로 조선의 철도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조선호텔 또한 철도국이 소유,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

다.

철도국에 이관되었던 조선호텔은 1932년 부산, 신의주, 평양, 장안사, 온정리 철도호텔들과 함께 민간경영으로 위임되게 된다. 호텔에 종사한 사무원들에게 20만원 자금의 철도호텔과 식당차 주식회사를 조직하게 하여 호텔을 인수, 경영하게 하였는데 기존 건물과 설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철도국은 이익의 반과 감독권을 가지는 조건이었다.[57] 이에 대해 전기 민영론에 이어 철도호텔 민영화는 민리민복(民利民福)을 존중하는 것으로 돈 있는 백성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58] 이러한 비판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당시의 여론을 볼 수 있다. 조선철도호텔경영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주정순일(酒井順一), 이사로 대고상지개(大高常之介)가 임명되면서 민간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59]

조선호텔의 민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조선호텔이 국가시설이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사라진 것이다. 조선호텔은 국가 영빈관으로서 외국 귀빈들을 접대하거나 외교적 행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경성의 도시화에 따라 호텔만이 가지고 있던 도시적 기능들을 여러 다른 시설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상업호텔로서 국가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적어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이라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이윤 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로 변화하게 된다. 국가 산하의 철도국이 이러한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57) 철도호텔 등 민영키로 결정, 『동아일보』, 1932년 3월 30일
58) 횡설수설, 『동아일보』, 1932년 3월 31일
59) 소식, 『동아일보』, 1932년 4월 2일

따라 조선호텔은 조선호텔의 기존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에 의해 운영되게 된다. 즉 국가적 기능의 수행 목적보다 이윤 추구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호텔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호텔은 1934년 3월 민영화 된지 만2년 만에 다시 철도국 직영으로 환원된다.[60] 이는 아직까지 조선호텔이 국가 호텔로서 그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조선호텔의 건립 당시의 성격과 30년대 이후 조선호텔이 가지는 성격에는 큰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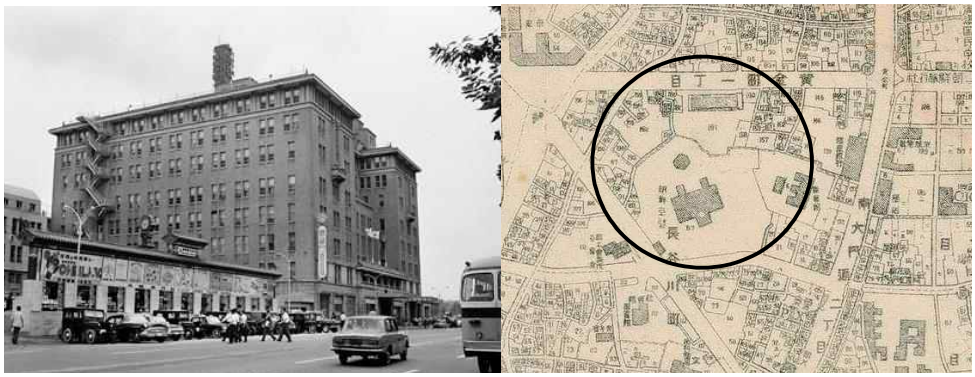
2.2.2 반도호텔의 건설

조선호텔의 상징성은 황궁우와의 배치를 통한 점령의 이미지 형성과 기존 원구단 부지인 높은 대지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가시성을 통해 물리적으로 구현되었다. 실제로 비슷한 높이의 대지에 위치하였던 대관정 건물은 그 높이가 2층 규모로 크게 높지 않음에도 경복궁을 조망한다 하여 국가에 의해 매입되었던 사실이 있다. 현재와 같은 고층 건물이 없던 경성에서는 높은 대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조선호텔 건물은 압도적인 외관으로 식민 도시의 풍경을 형성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38년 반도호텔의 건설은 조선호텔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호텔 건립 전까지 조선호텔은 경성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규모 고급호텔이었다. 조선호텔 건설 이후 여러 상업호텔들이 건설되었지만 조선호텔에 비견될만한 규모나 시설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반도호텔은 8층 111실 규모에 연면적 5,550.58평에 이르는 동양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호텔로 선전되

60) 철도국경영의 삼처호텔 개칭, 『동아일보』, 1934년 3월 24일

었을 만큼 대규모의 호텔이었다. 건설공사비만 180만원이 들었으며 이를 통해 그 규모와 시설의 호화로움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2-14] 반도호텔의 모습(좌), 1946년도 지번구획입경성정도(우)

반도호텔 건설과 관련한 일화를 보면 반도호텔이 조선호텔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건립되었는지 알 수 있다. 반도호텔은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의 사장인 노구치 시다가후(野口遵)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노구치 시다가후가 조선호텔을 방문하였다가 허름한 차림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쫓겨난 것을 계기로 반도호텔을 건설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노구치는 이 일이 있은 후 조선호텔 바로 뒤인 황금정 1정목 18번지의 2천여평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더 큰 규모의 호텔을 건설, 조선호텔과 같은 높이인 5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창 너머로 조선호텔을 내려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61] 이러한 일화를 뒷받침하듯이 반도호텔의 개발단계에서의 명칭은 신조선(新朝鮮)호텔이었고 건물 자체는 조선빌딩으로 명명하였다.[62]

반도호텔은 조선호텔과의 상업적인 경쟁관계 속에서 건설된 호텔이었다. 황금정 1정목 대로변에 바로 위치한 거대한 높이의 건물은 조선호텔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광화문로에서부터 보였던 거대한 조선호텔건물

61)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울, 2003, p.243
62) 제계 뉴-스, 『每日申報』, 1936년 10월 3일

은 반도호텔 뒤로 가려지는 신세가 되었다. 반도호텔이 일본 식민지 정부 관할의 국가 호텔이었던 조선호텔과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조선호텔의 성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호텔과 경쟁시설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경제력과 권력을 가졌던 노구치 시다가후의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는 흥남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회사로 일본 식민지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성장한 일본 기업이었다. 일제강점 초기부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성장한 일본의 재벌들은 각종 제도적 혜택과 인적, 물적 자원의 독점적 이용권을 누리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는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양 제일의 콤비나트를 구성하였다. 광업, 수산업, 임업, 운수업, 유통업, 건축업, 군수업 등 농업과 일반 소비재 생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흥남이라는 공업 도시를 설립할 만큼 성장하게 된다.[63]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의 사장이던 노구치는 흥남읍의 초대 읍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회사의 간부들이 읍의회, 학교조합 의원 등에 배치되기도 하였다.[64] 이는 흥남이라는 도시가 일본질소비료라는 회사로 대표되는 자본과 행정, 경찰, 교육 등 통제 권력이 일체화되어 통치되는 '기업도시'였기 때문이다.[65] 이러한 노구치의 기업은 과거 조선호텔을 건설하였던 남만주철도회사와 비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제안에 따라 호텔을 건설하였던 남만주철도회사의 조선호텔 건설과 달리 반도호텔은 국가호텔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기업 재량으로 건설되었다.

---

63)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 미나마타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 제14호, 2011. pp.418-419

64) 손정목, 「일제하 화학공업도시 흥남에 관한 연구 (하)」, 한국학보16권 3호, 1990, p.167

65)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 미나마타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 제14호, 2011. p.420

반도호텔의 건설은 경성 도시 공간의 지배 권력으로서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권력의 힘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는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조선호텔이라는 국가시설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식민지배 권력 상징의 성격을 상실하고 식민지 자본점령 상징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반도호텔은 일본기업들이 식민지 자본을 장악해가는 상황 속에서 식민지 자본지배의 물리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급호텔이라는 시설의 의미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변화된 조선호텔과 새롭게 건립된 반도호텔은 대규모 고급호텔 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식민지 자본지배의 표상으로서는 그 의미가 강화되었지만 두 호텔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으로 분화되어 있어 상업적으로는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장악을 통해 경제적 착취를 하고자 하는 식민지배의 목적 안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두 주체가 경제권력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의 지배 속에서 그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특정 부분에서 두 주체가 경쟁하게 되는 이중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관계는 반도호텔 건립 후 그 기능과 역할에서 나타난다. 반도호텔에서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조선호텔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던 국가 차원의 기능이 수행되고 조선호텔에서도 열렸던 행사가 개최되기도 한다.[66] 이는 반도호텔이 조선호텔의 부족했던 기능을 보충해주는 시설로서 두 호텔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국가호텔과 민간호텔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라 일본은 '내선일체'라는 기치를 가지고 조선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였고

66) 이는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한해위문사 곡차장일행착경, 『동아일보』, 1939년 12월 23일. 『동아일보』, 금융단대회. 1939년 5월 20일, 경성상공회의소의 이십오주년 기념사업 『동아일보』, 1940년 3월 19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여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여러 단체를 조성하여 내선일체 사상을 주입하고 조선의 전쟁 협력을 주창하는 행사를 주최하였다. 경성위문단 행사[67], 조선춘추회[68], 배영동지회[69],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행사[70], 조선연합청년단 행사, 만주제국협화회[71], 조선방공협회[72], 국민총력조선연맹[73], 동만충성조선연성여행단[74], 위문연맹환영회[75], 내선문화학회[76], 흥아총본부 행사[77] 등 일제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행사들의 배경으로 조선호텔이 사용되었다. 이는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선호텔이 다시금 정치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반도호텔이 아닌 조선호텔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호텔이라는 사실과 조선호텔 초기 가졌던 식민지배적 상황의 상징적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선호텔이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전쟁을 위한 절미운동의 일환으로 조선호텔이 고구마밥을 사용하여 국가적 운동에 참여하는데[78] 이와 대조적으로 반도

67) 경멸못할 적의 전술 감격, 황군의 분전 적장교중동경육사출신 다수 경성위문단 귀임담, 『每日申報』, 1937년 9월 21일
68) 폭영을 응징하자!, 『每日申報』, 1939년 6월 15일
69) 日英東京會談』에앞서排英同志會結成 明日府民館에서擧行, 『每日申報』, 1939년 7월 11일
70) 천도대장추대 총재취임식도, 『每日申報』, 1939년 9월 15일.
71) 有志들은 發奮하라 - 在滿同胞 學校問題로 名士들 懇談, 『每日申報』, 1939년 10월 17일
72) 방공을 간담 작석, 위원환영회성대, 『每日申報』, 1939년 11월 10일
73) 부인들의 익찬의 봉화 - 첫 위원회 열고 생활신체제평정, 『每日申報』, 1941년 2월 7일
74) 동만연성여행단 - 십오일오전입성, 『每日申報』, 1943년 11월 16일
75) 금후도 필요한 위문 연맹환영회석상에서 명사부대들 보고, 『每日申報』, 1944년 7월 4일
76) 알고, 믿는것이 힘 - 내선문화회의 어버이 김택박사담, 『每日申報』, 1944년 10월 14일
77) 습하 제 도 배우자 - 흥아운동 추진에 반도 역할은 중대 - 금자대의사입성담, 『每日申報』, 1944년 12월 18일
78) 조선호텔에 고구마밥 절미운동을 고조, 『동아일보』, 1939년 12월 9일

호텔은 1939년 12월에 쌀을 가장 많이 쓰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79] 이러한 사건은 반도호텔이 국가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상업시설로서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정책과 항상 일치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식민지배의 상징시설이였던 조선호텔은 국가 영빈관 호텔로서 식민지 정부의 고위 관리나 국책회사의 중역과 같이 권력의 핵심 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조선인들은 물론 일반 일본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폐쇄적인 시설이었다. 조선인 입장에서 조선호텔은 피지배계층적인 자신들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일본제국 권력의 상징시설이였다. 하지만 식민지 자본주의 침투에 따른 소비문화의 발달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도 소비계층으로 성장하여 식민제국에 포섭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은 계층적 차이에 따른 폐쇄성이 아닌 자본, 경제력에 따른 폐쇄성을 가진 자본 상징의 시설로 변모하게 된다. 식민지 도시 속에서 정치적 권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제적 권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도시적 변화가 고급호텔이라는 특수한 단일 시설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호텔이 아시아의 서구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적 상징성을 가지게 되어 국가시설로 건설되었으나 호텔이 본래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2.3 반도호텔의 건축

반도호텔이 건설된 1930년대 후반은 건축양식이 모더니즘, 국제주의, 기능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서구의 고전적 양식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조선총독부 청사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건축이 권력과 위광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상품의 견지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 제국의 자본주의화와 맥락을 같이한다.[80] 조선호

79) 쌀만히 먹기는 어데?, 『每日申報』, 1939년 12월 31일
80)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1904-1945」,

텔이 건설되었던 20년 전과는 다른 식민지배의 상황이 반도호텔의 건축 양식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호텔이 식민시기 식민지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의 건축물로써 근대화와 점령의 표상이었다면 반도호텔은 도시화의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식민지 자본과 도시화의 표상이었다.

반도호텔은 동경의 부흥건축조성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 있었던 고교정태랑(高橋貞太郞)에 의해 설계되어 間組에 의해 시공되었다. 반도호텔은 1930년대 일본 내에서 건축된 바 있는 유형으로 서유럽풍의 몸체에 동양적 머리를 올려놓음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을 재창하는 의도를 표현했던 건물이다.[81] 반도호텔은 고전적인 호텔 건축으로 시카고파의 루이스 설리반(Louis Surrivan)의 Grant 빌딩과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고전적인 석축법인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으로 거대한 개구부를 처리하고 상층부에는 규칙적인 창나눔을 통해 호텔 객실부의 창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고전적인 서구양식의 몸체 위에는 전통적 양식의 기와로 덮인 깊은 처마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중국의 형태와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82] 반도호텔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의 지역성을 디자인 요소에 고려한 사례라고 보기는 힘들다.

반도호텔은 중정이 있는 ㄷ자형을 취하고 있는데 1928년 건설된 홍콩의 페닌슐라 호텔과 유사한 외관과 배치를 하고 있다. 당시 아시아 식민지에서 이러한 양식의 건물들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호텔 건축은 100개가 넘는 객실과 여러 부대시설들을 한 건물에 배치해야했기 때문에 실험적인 건축보다는 다른 호텔의 형태를 참조하여 해당 대지에 맞게 고쳐 건설한 경우가 많았다.

반도호텔의 건축은 그 양식에 있어 조선호텔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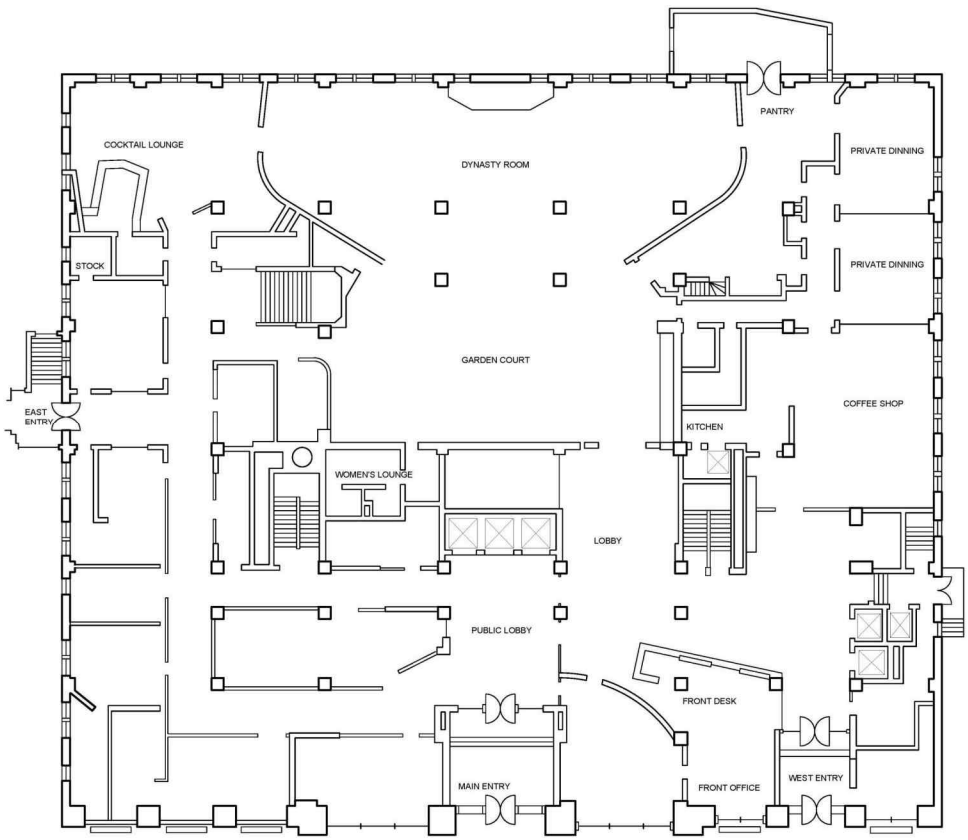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220

81) 현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11월호, 대한건축사협회. p.48

82) 현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11월호, 대한건축사협회. p.48

색체가 반영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이윤추구를 위해 건설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행했던 모더니즘 양식의 기능주의적 건축물을 구성하였다. 기와지붕의 건설과 같이 지역성을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지역성은 조선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아닌 아시아의 보편적 감성의 구현이었다. 조선호텔에서 기존 원구단과의 배치와 관계형성을 통해서 그 지역성과 식민지배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각화 하였다면 반도호텔에서는 보편적인 제국주의적 의도가 담긴 양식의 건축물을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합리성의 제고와 식민지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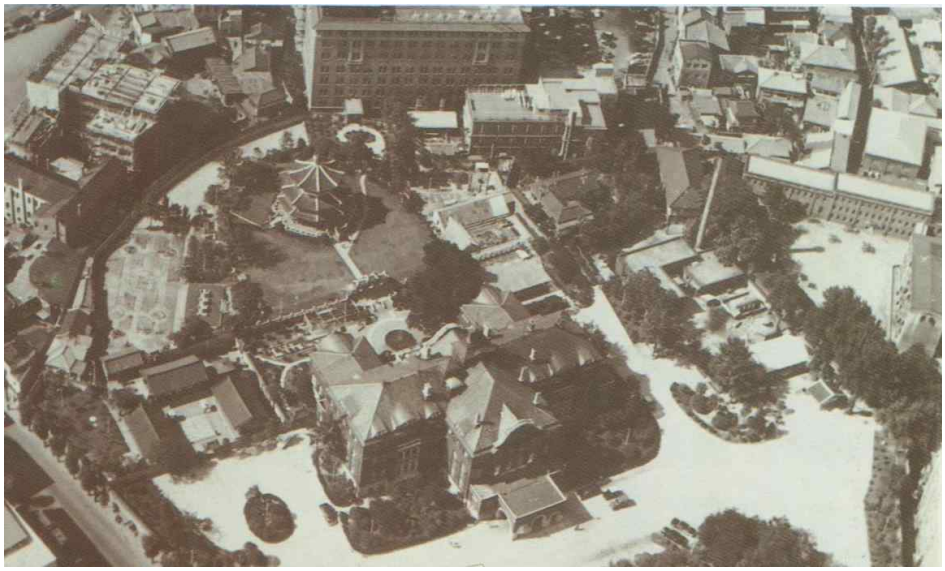
반도호텔은 호텔이라는 기능과 임대용 상가와 사무실을 한 공간에 가진 오피스텔(Officetel)이었다. 따라서 저층부와 고층부의 성격이 상이하였으며 두 가지 다른 시설을 담을 수 있는 보편적인 평면 구성을 위해 정방형의 평면을 구성하였다. 대칭적인 구성을 통해 권위를 표현하였던 조선호텔의 평면구성과 차이를 보이며 정방형의 평면에서 객실부 채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정을 배치했으며 이는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부 호텔에서 사용되는 평면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호텔 건설 당시의 소공동일대 주변 건물의 상황과 반도호텔 건설 당시 소공동일대의 주변 건물 상황은 매우 달랐으며 따라서 반도호텔은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에 건설된 건축물의 평면구성을 보인다.



[그림 2-15] 반도호텔 1층 평면도

반도호텔 1층의 좌측에는 임대용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과 우측부로 호텔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 배치로 인해 정방형의 평면은 대칭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동선도 구분되어 형성되었다. 임대용 공간과 호텔 공간은 주 출입구에 존재하는 Public Lobby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구획되어 있었으나 엘리베이터는 공유되었다. 우측에는 호텔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여 호텔 이용객들 전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의 호텔들은 1층의 식당이나 라운지와 같은 부대시설이 전면부에 위치하여 호텔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반도호텔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후면부에 위치하는데 이는 전면부에 임대용 상가시설을 위치시킴으로써 수익성을 높

이는 동시에 후면부에 존재하는 정원 및 부속건물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반도호텔 후면에는 조선호텔과 황궁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호텔시설들을 후면부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조선호텔의 경관을 공유하여 호텔의 고급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2-16] 반도호텔 후면부와 후면부의 부속건물

2.3 차별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미국의 조선호텔, 반도호텔 운영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가 시작됨에 따라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미군정에 의해 점유되어 사용된다. 이는 두 호텔이 대규모 고급호텔로 최신식의 서양식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호텔 점유와 사용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국-피지배국의 관계가 미군정기 경제원조국-수여국의 관계로 치환되어 도시 공간의 지배라는 방식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두 호텔은 권력을 상징의 성격을 가진 공간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두 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는 정부의 논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 되기 전까지 미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 중장의 지휘 하에 미 육군 24단이 38도 이남지역에 대해 군정을 시행하였고 아놀드 소장이 군정장관에 취임함으로써 군정체제를 갖추고 한반도 이남을 지배하였다. 식민지 정부 소유였던 조선호텔과 민간 기업 소유였던 반도호텔은 모두 미군정 소유가 되어 운영되게 된다. 두 호텔은 미군정 고위 장교들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호텔은 미군정의 정치적 중심지로 변모한다. 미군정과의 정치, 경제적 협상을 위한 정치가, 사업가들의 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군정청으로 쓰인 구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미군의 주요 통치시설로 작동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호텔은 다시 미국 정부에 의해 사용된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미군정이 반도호텔을 주로 사용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조선호텔이 미국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두 호텔이

위치한 소공동, 을지로 일대는 이렇듯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의해 점유되면서 서울 속의 이방지대를 형성하게 되며 서울 속의 미국이라는 우방국가의 권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긴 시간 동안 사용된다.

시기	용도, 소유자	비고
1945년	미군정 숙소(하지 중장, 고위 장교), 사무실	최고급 객실 201호실을 사무실로 사용
1945년	VIP를 위한 숙소 및 휴식처(미군정)	반도호텔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
1949년	호텔로 사용(대한민국정부-교통부)	CHOSEN에서 CHOSUN으로 이름 변경, 개보수 이후 일반인에게 개방
1950년	북한군 점령	
1952년	유엔군, 미군장교 숙소	보수공사, 조선호텔 종업원 존재
1955년	주한 미경제 조정관실(OEC)	우드미션 한미 국제개발처 업무, 아이젠하우워 전 대통령 방한
1958년	미 제팔군 숙소, USOM 사무실	OEC에서 이관
1961년	총리관저 사용 내정	유엔군 사령부에서 정부로 이관
1961년	관광호텔로 사용(교통부)	외국인용 호텔, 귀빈숙소, 2개월간 수리
1962년	관광호텔	외인 뿐 아니라 내지인도 출입

[표 2-5] 해방 이후 조선호텔 사용

조선호텔은 1945년 하지 중장과 고위 장교들의 숙소로 사용되며 조선호텔의 최고급 객실이었던 201호실은 하지 중장의 사무실로 사용된다. 그러나 같은 해 조선호텔을 VIP를 위한 숙소 및 휴식처로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반도호텔로 옮기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인 1949년 조선호텔은 교통부로 이관된다. 개보수 이후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호텔로 개관하였지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호텔 영업은 잠시 중단된다. 조선호텔은 전쟁 중에도 크게 손상되지 않아 보수공사 이후 유엔군과 미군장교의 숙소로 사용된다.

1955년 주한 미 경제 조정관실로 사용되면서 경제원조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다. 조선호텔은 다른 교통부 직영 호텔이 불하되어 민영화 된 1956년까지도 계속 미국 측에 소유되어 사용되었는데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계속해서 명도를 요구하였다. 1961년 명도가 예정된 조선호텔은 총리관저로 내정되었으나 1961년 교통부로 이관되어 수리 후 관광호텔로 사용되었고 1962년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시기	용도, 소유자	비고
1945년	하지 중장(미군 제24군단) 사무실	반도호텔 4층
1945년	하지 중장 사무실, 국연조선위원단 부사무장 사무실	1948년 삼정빌딩으로 이전
1949년	ECA 경제 협력국 사무국	
1949년	미대사관	미국 정부에 증여
1952년	CAC 서울지구 사령부	
1953년	대한민국 정부, 중앙청 사용 논의	매입, 삼정빌딩을 매도
1954년	국제호텔, 사무실	외국인과 특권층
1960년	관광호텔	일반인에게도 개방

[표 2-6] 해방 이후 반도호텔 사용

반도호텔은 조선호텔을 사무실로 쓰던 하지 중장이 반도호텔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미군정의 사무실 건물로 사용된다. 1949년 조선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될 때 반도호텔은 정부 측에서 미국의 원조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이를 증여, 미 대사관으로 사용되게 된다. 한국 전쟁 이후 CAC 서울지구 사령부 사무소등으로 사용되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어 중앙청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관광호텔과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1960년 일반인에게 개방을 허용하였다.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이라는 서울의 대규모 고급호텔을 미군정이 점유

하여 사용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서양식 생활공간의 사용, 두 번째로는 과거 권력의 시설 점유를 통한 권력의 표현, 마지막으로 호텔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서비스 기능의 사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텔은 서양식 주거 공간의 재현으로서 서구 열강들의 귀빈 방문에 대비하여 만든 시설이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정착하게 된 미군들에게 서양식 호텔은 머물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을 것이다. 근대식 설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서양식 요리와 음악, 놀이 문화가 함께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 중에서도 고위 장교를 위한 숙소로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회의실, 집무실 등이 겸비되어 있어 주거와 업무적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호텔의 사용은 그러나 단순한 서양식 주거 공간 점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의 입지는 정동의 외국 공사관들과 인접하고 경성부청, 광화문 총독부청사 등 서울의 정치적 중심지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정치적 공간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였다. 이에 따라 호텔이 서양식 숙소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심지로서 여러 정치, 외교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호텔 사용방식은 조선호텔 건설 초기 일본 식민지 정부의 조선호텔 사용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업시설로서의 호텔이 아닌 식민지배의 통치시설로 사용되었던 호텔의 도시적 맥락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일본 식민지 정부의 권력은 미군정의 권력으로 치환되었고 해방 후 군사통치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후퇴는 다시금 호텔이 국가 정치권력의 상징시설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사용방식은 조선총독부 청사를 군정청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볼 수 있으며 이전 권력의 시설들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임시권력으로서의 입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식민시기 호텔시설은 이용자와 그것

을 관망하는 관찰자의 계층, 인종, 경제적 차이를 실감하게 했던 시설로써 이는 해방이후 미군정과 한국의 관계, 한국 전쟁 이후 경제원조국과 수여국이라는 계층적 관계를 표현하는데 다시 사용되었다.

호텔은 상업시설로 국가 정권의 변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상관없이 그 기능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이다. 행정기관은 정권의 교체[83]에 따른 행정체제의 변화에 의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시 안정화되는 데에 일정시간이 소요된다. 상업시설인 호텔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직원들과 운영체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체계는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정치적 변화에 덜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철도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에는 다수의 일본인 직원들이 존재하였지만 해방이후 당장에 호텔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5년 12월부터 조선호텔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 회의가 열렸으며[84] 이후에도 미소공동위원회 회의[85], AP회장 숙박[86], 미기자단 간담회[87] 등 호텔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새로운 권력주체가 권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호텔의 기능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정으로서 그들을 방문한 귀빈이나 한국의 정치가, 사업가들을 그들의 의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해줄 수 있는 권한을 호텔을 점유함으로써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호텔의 기능은 국가시설임에도 자본주의적 논리 하에서 정권의 교체와는 어느 정도 별개로 작동하여 이에 따라 새로운 권력주체가 초기에 호텔을 점유함으로써 권력 주체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83) 해방에 따른 미군정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같은 변화를 의미한다.
84) 李博士會見談 中間謀利斷乎排擊,『동아일보』, 1945년 12월 11일
85) 蘇聯代表스將軍發表한 타스通信報道內容,『동아일보』, 1946년 1월 29일
86) AP會長一行 昨日空路로 着京,『동아일보』, 1946년 2월 22일
87) 美記者團來朝,『동아일보』, 1947년 2월 13일

1949년 조선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을 때 조선호텔 명칭의 개명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도 이러한 호텔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호텔의 '조선'이라는 명칭은 일본에 의해 부여된 명칭이다. '조선'은 본래부터 존재하였지만 대한제국 시대 '한국' 혹은 '한'이라고 칭하던 일본이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조선'으로 명명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이념을 말살하고자 하였다.[88] 즉 조선호텔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에는 이미 식민통치의 이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명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가를 대표하는 호텔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반일'을 표방하고 식민지 잔재를 지우고자 하였던 이승만 정권에서 용인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당시 조선호텔 총지배인인 정해식에 의해 반대된다. 40년간 사용해온 명칭으로 지금까지 유명세를 쌓아온 조선호텔로서의 자부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명칭을 전면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센(CHOSEN)을 조선(CHOSUN)으로 바꾸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89][90]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국가 소유의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이 국가시설로 작동하지만 그 안에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별도의 기능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식민지 정부가 일제강점 초기 호텔을 건설하여 사용하고 미군정 통치시기에 호텔을 통치시설로서 적극

---

88)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6호, 2012, p.200

89) 「100년의 기억, 100년의 인연」, 조선호텔, 2014, pp.63-65

90) 반도, 조선 명칭의 개칭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 국영기관인 두 일류호텔의 명칭이 반도, 조선이라는 데에 일제 강점기의 일인들이 한국을 칭하는 말로 조선 또는 반도라고 일컬었고 북한 괴뢰들이 그들의 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 강조, 잔재 일소 및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칭해야할 상호 반도 조선 호텔, 『동아일보』, 1955년 11월 12일.) 그러나 조선, 반도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았고 1965년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사이에 건설된 쇼핑시설을 반도조선아케이드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반도, 조선이라는 이름이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가졌던 고급호텔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적으로 사용하였던 이유가 되며 행정적 기능의 완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호텔을 통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초기 만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척하였던 남만주철도회사의 호텔 개발을 통해 일본 식민지 정부가 호텔을 사용하고 일제강점기 운영되었던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을 해방 이후 임시 정권인 미군정이 사용했던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1952년 12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원조를 제안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경제원조가 시작되었고 조선호텔에는 주한 미 경제 조정관실이 설치되어 '우드 미션'으로 불리던 한미 국제개발처의 경제 원조관련 업무가 시작되었다. 6억 2800만 불에 달하는 한국부흥경제계획이 시행되면서 기간산업, 민생문제 해결, 군사비 등 사회전체의 복구를 위한 자금의 사용과 분배 계획이 조선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조선호텔은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사회 형성에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당연히 조선호텔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조선호텔은 경비병들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어 낮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는 한국인 사업가들, 밤에는 신분증이 있는 군인과 출입증이 있는 일부 민간인들만이 출입이 가능하였다.[91]

조선호텔에서는 정치적인 업무만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조선호텔 볼룸에서는 문화 행사와 음악 공연들이 진행되었으며 토요일에는 댄스파티가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호텔 정문에 줄을 서서 파티 참석을 위해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호텔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서울 속에 위치한 미국이라는

91) 「100년의 기억, 100년의 인연」, 조선호텔, 2014, p.89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 조선호텔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국내 정치인들과 경제적 이권을 얻고자 하는 국내 사업가들이 그들의 요구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탁을 하는 곳이었으며 조선인 여성들에게는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호텔 정문 앞에서 미군장교들에게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곳이었다.[92] 조선호텔은 국가 간의 상대적 권력 차이를 보여주는 서울 속 이방지대로 미국이라는 우방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호텔의 기능은 일제강점기 호텔이 도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역할과 의미가 지속된

92) 코리아의 異邦地帶(1),『경향신문』, 1955년 11월 21일. (전략)…이 나라 이 땅위에 어느 이방지대가 생기고야 말았다...(중략)...매주 토요일 밤이 되면 서울의 복판 조선호텔 앞에는 수많은 여성군들이 모여 이방지대를 이루고 있다.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 여성인가? 매주 토요일 저녁 칠시가 다가오면 수십명 때로는 백여명의 한국 여성들이 짙은 화장과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이 앞에 몰려온다. 짚차에 유엔군과 같이 탄 여성들이 교성과 함께 현관에 다 달으면 이방지대 여성들은 몹시나 부러운듯 일제히 시선은 그곳으로 돌아간다. 전선으로부터 몰려온 미군장교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댄스파티가 있는 것이다. 터벅터벅 걸어들어가는 미군장교가 있으면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듯 다가서면 미소를 던진다. 같이 춤을 추어 달라는 것이다. 같이 놀아달라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천하게 되었다고? 그것이야 말로 쎈치라는 것이다.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이 특수지대의 정문을 근엄한 MP의 눈앞을 지나 빙빙 도는 현관문을 거치면서부터 자신조차 국적을 분간할 수 없는 반이방인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뛰어도 까딱 소리 없는 우단이 깔린 복도를 지나려면 흰제복에 검은 퍼타이로 산듯이 차린 한국인 뽀이들이 공손한 인사와 함께 코트를 벳겨주고 남하를 빙돌아 왼편에 다달은 홀 내로 안내한다.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며 자기는 영화의 주인공 같은 감을 갖게된다. 지나가는 키 크고 코큰 신사들이 무심코 던져주는 미소에 대답할 수 있는 가벼운 즐거움과 함께 벌써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뺀드의 음율에 밟는 발거름이 땐스의 스탭으로 변하여지는 것만 같다. 무엇으로 그대에게 봉사해 드릴 수 있을까요?술이라도?춤을 추실까요? 독한 위스키에 얼큰히 취한 캡틴죠의 얼굴이 가까워오자 벌써 몸은 허공에 떠가는 느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하룻밤. 그러기에 조선호텔 앞이 방지대는 MP의 오프리미트(출입금지)의 특수성과 더불어 한국여성 특히 이민족을 애호하는 개화여성들이 하룻저녁을 즐기려고 몸부림 치는 지역이 아니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성벽과 같은 두꺼운 울타리에도 둘러싸여진 고궁과 같은 조선호텔 이속에서 이루어지는 수 시간동안의 파티라고 하는 시간 해면이 물먹는 듯 이 속에 들어간 여성들의 소식은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인가? 몇 시까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불운한 여성들은 울타리에 기대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행운의 시간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도박장과 같은 이방지대. 우리는 오늘 저녁 춤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춤 그것 뿐으로 이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파티가 끝나면 장교들은 그들이 데리고 온 여자들을 바라다 줍니다. 그 밖에 무엇이 있느냐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호텔의 관리를 맡아보고 있는 모 미군장교는 파티의 생애를 이상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지대의 여성들 초겨울 바람은 조국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소리 높이 불러보게 하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것으로 대한민국을 타자로 인식하는 외부 국가의 권력이 호텔을 권력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림 2-17] 경제원조 관련 조선호텔 내부 풍경(좌), 조선호텔 로비(우)

Ⅲ. 제 3공화국 시기 고급호텔의 건설과 성격

3.1 조선호텔, 반도호텔의 대한민국 정부로의 이양과 이후 운영
3.2 미국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의 수단으로써 워커힐 건설
3.3 반공 이념과 근대국가 수립의 상징으로써 타워호텔 건설
3.4 국가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으로써 남산 영빈관 건설

3.1 반도호텔, 조선호텔의 대한민국 정부로의 이양과 이후 운영

3.1.1 반도호텔의 이양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은 각각 1954년, 1961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광호텔로 사용된다. 한국전쟁 전인 1949년 두 호텔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는데 이때 반도호텔은 다시 미국에 증여되어 미대사관으로 사용된다. 조선호텔은 외화획득을 위한 고급호텔로 기대를

받고 개업하는 반면 반도호텔은 왜 다시 미국에게 증여되었을까?

[미합중국에 반도호텔을 증여하는데 대한 동의 요청의 건][93]
(국무총리가 국회 신익회의장에게 회부)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재정과 자산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북미합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와 정의와 존경의 표시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시 중구을지로 1가 18-1일대 236평 3건(별지첨부)을 북미합중국에 증여하는데 대한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귀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요청하나이다.

[증서]

한미양국 간에 체결된 재정과 자산협정의 조항(서기 1948년 9월 18일 대한민국국회에서 비준되었음)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에 대한 대한민국국민의 감사와 정의와 존경의 표시로써 대한민국은 북미합중국에 하기(下記) 부동산을 증여함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80-1 대지 236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80-2 대지 570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80-3 대지 29평 건물 반도호텔(住蹟),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80-25 대지 699평. 자세한 것은 첨부된 등기부 서류에 기록되었음. 차후의 재산은 대한민국에서 이상 관여치 않음. 이것을 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북미합중국에 이 증서를 제공함.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위는 반도호텔을 미국에 증여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청 문서의 일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와 정의와 존경의 표시로써'라는 문구로 반도호텔을 증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호텔의 증여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매각 요구에 따

93) 半島호텔 贈與件, 『경향신문』, 1948년 12월 17일, 구 '반도호텔' 양도절차에 관한 건(제59회), 『국무회의록(제1회-116회)』, 국가기록원 소장(BG0000001)

라 국가 대지를 매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반도호텔과 주변 대지를 증여의 방식으로 미국 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94] 미국 측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요구한 정동, 을지로 일대 재산 목록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한미협정에서 미국이 제일차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선택한 반도호텔, 미국영사관부근일대의 토지 등 재산은 제9조 (가)항 규정에 의하여 2,500만 불 차관중의 초년도 1949년 7월 1일 변제액인 21분의 1인 약 170여만 불 연2리의 이자 가산으로 상쇄하게 되었는데 이를 한국원불을 400원으로 환산으로 환산하면 6억 8000여만 원에 해당한 것이다. 이미 선택 결정한 재산목록은 여좌하다. (가) 미군 가족주택 제20호대지 1,362평 정동 1-39, (나) 러시아인 가옥 제2호 720평 정동1-39, (다) 현재 미국영사관 서편공지 1,414평 정동 1-9, (라) 현재미영사관 남편공지 서울 구락부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53,540평 정동 8-1, 8-3, 8-4, 8-5, 8-6,8-7, 8-8, 8-9, 8-10, 8-17 (마) 미군가족 주택 제10호와 러시아인 가옥 제1호 정동 편에 있는 삼각지형 대지와 그 대지상에 있는 창고 1간 가옥 3간과 기타건물 175평 정동 1-39, (바) 전 군정청 제2지구 회부와 그 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과 기타건물, 이 지역에 있는 식산은행 소유재산전체를 포함함. 송현동 9-1전부, 사간동 96, 97-2, 298, 99, 102, 103-1, 104-1과 104-2와 그 대지 상의 기타 건물 약 9,915평. (사) 반도호텔과 그

94) 半島호텔 賣渡는 尙未定, 『경향신문』, 1949년 9월 24일. 본시 반도호텔에 관하여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사관 설치에 필요하니 이것을 미국에 매도해달라고 하였으나 우리로서는 정부가 정부의 토지나 건물을 판다는 것은 역사상에 남기고 싶지 않아 토의 결과 해방을 위해 미국이 많은 희생을 한 만큼 그냥 미국에 기증하되 미국이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 한국정부에다 시가로 팔 것이라는 조건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기증한 것인데. 미국 측에서 거저 받는 것은 무엇 하니 4백만 불로 사겠다. 그리고 그 대금은 해방직후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 쓴 2500만 불 차관 중에서 제하고 나머지 2100만 불을 가지고 헐부라이트 재단을 구성, 한국 교육을 위해 사용하되 2100만 불 사용에 관하여는 한미양국대표 협의 하에 하자는 것. 반도호텔을 아 사자고하는 제의에 대하여는 미국 측 제의 문서가 문서상 완전치 못하기에 다시 보내달라고 돌려보냈으니 아직 어떻게 될련지 보아야할 것.

동편에 연접한 주차장 1,944평 을지로 18-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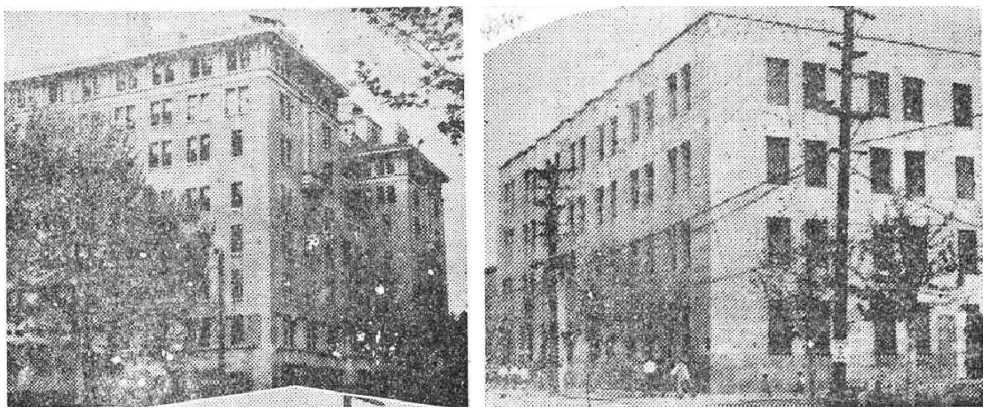
기사를 통해서 미국영사관 일대와 반도호텔 부지가 미국 측에 의해 요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영사관 일대는 과거 조선시대인 1883년에 미국 공사관이 설치되면서부터 미국 측에 의해 사용된 지역이었다. 반면 반도호텔은 1945년부터 미군정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1949년 미군정 철수 이후 ECA 경제협력국 사무국으로 사용되었다. 미군정의 중심시설로 사용되어왔으며 설비나 입지, 규모 면에서도 대사관으로 사용되기에 반도호텔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건물이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 통치시설로서 사용되어 왔기에 대중들에 인식 속에서도 이미 미국의 시설로 인지되어 있었다.

반도호텔은 결국 미국정부에 이양된다. 한국 측에서는 무상 증여의 방식으로 반도호텔이 이양되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별도의 호텔을 건축하는데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3백만 불의 금액을 한국 정부에 증여하였다.[96] 이렇게 반도호텔은 미 대사관으로 사용되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사관 기능은 중단되고 1953년 반도호텔은 건너편의 삼정(三井)빌딩과 교환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이양된다.[97]

반도호텔의 이양 과정을 보면 반도호텔을 미국 측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4년간 사용했음에도 불구 이를 완전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불균형적인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사이의 관계를 암시해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방을 위한 도움과 경제

95) 尨大한 地域 美人要求財産目錄, 『경향신문』, 1948년 9월 19일
96) 感謝와 報答의 結晶, 『경향신문』, 1949년 4월 21일
97) 서울『半島호텔』 다시우리政府서 買入, 『동아일보』, 1953년 5월 8일. 반도호텔 건물은 297만 7206 불, 삼정빌딩은 43만 5286 불로 책정되어 차액인 254만 920불을 한국정부에서 미국 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합의.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의 방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측의 매각 요구에 따라 강제적으로 증여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호텔을 건설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400만 불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2500만 불의 차관 중에서 400만 불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반도호텔을 무상으로 소유하게된 것과 마찬가지였다.[98] 400만 불을 제외한 2100만 불의 차관은 풀브라이트(Fulbright)협정을 통해 이에 대한 이자를 교육교환사업을 촉진하는데 쓰기로 하였다.[99]



[그림 3-1]1950년대 당시 반도호텔(좌), 삼정빌딩(우)

그러나 미국 측에서 대사관으로 사용하고자 강력하게 원하였던 반도호텔 부지는 한국전쟁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대한민국 정부로 매각된다. 반도호텔 건너편 삼정빌딩을 대사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삼정빌딩은 입지적으로는 반도호텔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규모나 설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물이었다. 강력하게 요구되어 소유하게 된 반도호텔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 것은 미국 측에서 한국전쟁 이후 조선호텔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호텔의 이양은 6·25 전쟁에 의해 시내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어 정부 환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루

98) 半島호텔 賣渡는尙未定, 『경향신문』, 1949년 9월 24일
99) 韓美紐帶는 敎育面에도 交換事業促進, 『동아일보』, 1950년 4월 28일

어졌다.[100] 특히 기존 중앙청 건물은 그 파괴정도가 반도호텔보다 심하고 보수가 어려워 청사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101] 이러한 이유로 이양계획이 세워지는 시점에서부터 반도호텔을 중앙청으로 사용고자 하는 계획이 논의된다.[102]

이러한 논의 끝에 1954년 9월 15일 낙성식 거행을 시작으로 반도호텔은 관광호텔로 사용된다. 비록 논의에 그쳤지만 반도호텔의 중앙청 사용 논의는 반도호텔의 국가시설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국정의 통치시설, 미 대사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반도호텔은 행정기관으로 인식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호텔이라는 시설이 국가행사, 국빈대접 등 국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도호텔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기관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반도호텔'이라는 명칭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당시 반도호텔이 가졌던 호텔로서의 의미가 쉽게 사라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호텔이 중앙청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반도호텔이 외화획득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03] 이미 오랜 기간 호텔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청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호텔로 사용되기 위한 보수비용이 더 적게 드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반도호텔이 호텔로 사용된 것은 한국전쟁으로 심각하게 저하된 경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반도호텔은 해방 이후 미군정, 미 대사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관성적으로 국가 정부의 권력기관으로 사용되고자 하였지만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대변되는 고급호텔이 가지는 상업적 상징성은 외화획득이라는 국가 구호 속에서 중앙청이 아닌 호텔로 다시 사용되

100) 半島호텔 明渡 15日後正式移讓, 『경향신문』, 1953년 3월 4일
101) 舊中央廳(구중앙청) 廳舍復舊使用(청사복구사용), 『경향신문』, 1961년 9월 6일. 중앙청사(구 조선총독부청사) 건물은 수리비용의 부담, 신청사 건설계획 등으로 10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된다.
102) 中央廳으로 半島「호텔」使用, 『경향신문』, 1953년 5월 9일
103) 半島호텔 運營權 어디로, 『동아일보』, 1953년 5월 27일

는데 기여하였다.

3.1.2 조선호텔의 이양

조선호텔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호텔로 사용되다 이후에는 다시 미국에 의해 사용된다.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한 쪽이 미국 측에 의해 행정시설로 사용되면 한 쪽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호텔로 사용된다. 한국전쟁 이후 반도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어 호텔로 사용되는 시점에서 조선호텔은 유엔군, 미군 숙소로 사용된다. 반도호텔 대신 조선호텔이 다시 미국 측에 의해 사용되는 이유는 3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반도호텔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8층의 고층건물로 서울의 주요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정부환도에 맞추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현대식 설비의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선호텔의 파괴 정도가 더 작고 규모가 작아 피해 복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호텔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호텔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배인, 직원 등 호텔 체계가 잡혀있어 신속하게 호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호텔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 측에 의해 사용된다. 조선호텔은 정식적으로 미국에 이양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명목상으로 교통부 직원인 양한식이 지배인으로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 의해 운영되었다.[104]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우드 미션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에게 국가적인 접대를 직접 하고자 1954년부터 조선호텔의 징발해제와 대한민국 정부로

104) 朝鮮호텔 明渡說은 浪報, 『경향신문』, 1954년 2월 9일. 조선호텔이 미국 측으로 명도될 예정이거나 명도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교통부 관할로서 국유재산임을 강조한다.

의 이양을 여러 차례 요구한다.[105]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를 거부, 1961년까지 경제원조와 관련한 정치적 중심시설로 조선호텔을 사용하였다. 이는 결국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타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측의 의견대립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조선호텔은 단기간에 권력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조선호텔 관련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60년 4.19혁명에 따라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일명 장면내각이라고 불리는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보다도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된다.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2공화국 출범의 선두에 섰던 장면총리의 총리공관 선정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 예정이던 조선호텔은 총리공관으로 내정된다.[106] 당시 장면총리는 반도호텔에 머물면서 집무를 보았는데 현 연사본부(왜성대)가 총리공관으로 결정되었으나 일본 통감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석조전, 교통부 청사 등이 물망에 오른 바 있다.[107] 최종적으로 6,750평의 충분한 대지를 가진 조선호텔을 총리공관으로 정하여 한 국가의 총리공관으로서의 위엄을 세우고 총리관저, 영빈관, 총리집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동아일보 1961년 1월 15일 기사][108]

---

105) 1954년 조선호텔명도에 관하여서는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국무회의록(제1회-18회)』, 국가기록원 소장(BA0085171), 참조), 조선호텔 귀빈관중 1을 미국기관과 연락하여 조속반환토록 하라는 내용.(『국무회의록(제19회-42회)』, 국가기록원 소장(BA0085172), 참조) 등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한다.

106) 總理公舘內定 朝鮮『호텔』로, 『동아일보』, 1961년 1월 14일

107) 「無」로 돌아간 議事日程, 『경향신문』, 1960년 12월 2일

(전략)… 대다수의 정치가들은 국리민복과는 동떨어진 일당일파의 이익을 위한 정쟁을 계속하여왔고 또 정치인들의 모임장소는 의례히 고급요정이나 호텔이어야 한다는 듯한 악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관의 부패는 의연 근절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이 혹한을 무릎 쓰고 가두에서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 고급요정이나 호텔에서만 회합할 줄 아는 정치가들의 귀에는 그 수많은 실업자와 젊은 학생들의 진정한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셋째로 가난한 나라의 경제 부흥 사업은 생산업체의 건설, 주택건축, 학교건축, 관공서 신축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거의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례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이 생산업체의 건설을 도외시하고 중앙청의 청사건설을 서두른데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난을 가했었다. 헌데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호텔을 국무총리관저로 사용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는 그 관장사무량이 방대할 뿐더러 내외귀빈을 빈번히 접대해야하는 중임을 띠고 있는지라 조선호텔 정도의 넓이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우리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취약한 경제력에 비추어 관광객들에 개방하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호텔 이외에는 수도 서울 장안에 국무총리관저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단 하나도 없는지 우리는 의아시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 1961년을 한국방문의해로 정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좋은 호텔을 국무총리관저로 사용하려 든다는 것은 장정부의 관광사업진흥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총리관저를 조선호텔 아닌 다른 건물로 택하는 것이 현책일 줄로 안다.

조선호텔을 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가들이

108) 바로 잡아야할 政治姿勢, 『경향신문』, 1961년 1월 15일

고급호텔을 공관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었다. 조선호텔은 1914년 이후 약 50년 간 서울 최고의 고급호텔로 사용됨에 따라 사치와 향락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호텔을 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조선호텔의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기능이 총리공관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선호텔을 총리공관으로 사용할 시 수리비만 2억 환이 들고 호텔로 사용되었을 시 연간 40억 환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리공관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욱더 심해지게 된다.[109] 이에 정부와 장면 국무총리는 수리비로 4500만 환이 예상되어 있으며 조선호텔보다 규모가 큰 반도호텔 또한 연간 6억 환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는 바 그 보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화 된 조선호텔에서 40억 환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110] 이렇듯 조선호텔 총리공관 사용 문제는 정쟁(政爭)의 소재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윤보선대통령은 청와대를 총리공관으로 사용하고 자신은 안국동 저택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한다.[111]

최종적으로 1961년 5. 16 군사쿠데타에 따라 제2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조선호텔은 총리공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112] 제2공화국 출범과 함

109) 40億收入을 否認, 『동아일보』, 1961년 3월 31일.

110) 歷史의 契機 아랑곳없이 政爭에 餘念없는 十萬選良들, 『동아일보』, 1961년 4월 13일. 그동안 몇 번 실없는 해명이 오고 가긴 했지만 조선호텔을 총리관저로 쓴다는데 관련한 과장된 시비는 십이일하오의 참이원 본회의에서 장총리가 직접 이교선 의원과 맞섬으로써 압권을 이루었다. 마침 치안문제를 따지던 터라 이의원은 우선 총리는 반도호텔 높은 방에 앉았으니 치안에 이상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소? 하고 서슬을 세운 다음" 그건 그렇고 총리는 왜 호텔에서 호텔로 옮기자는 거요? 조선호텔을 관광용으로 쓰면 연간 45억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쩌자는 거요? 하고 덤볐던 것. 이어 답변대에 선 장총리는 풋감 씹은 표정을 가누지 못하면서 여보시오 이의원의 상식이 의심스럽소. 연 45억이라면 자그마치 하루 수입이 일천삼백만환은 되어야하는데 욕실도 제대로 없는 방 육십개로 어떻게 그런 수입을 거두겠소? 방들이 날마다 꽉 차서 방세를 이십일만 환이나 받아야 그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오… 너무들 하시는 구려 하고 거듭 분해마지 않았다.

111) 總理公舘에 대한 尹大統領提議외 政府가 取할 態度, 『경향신문』, 1961년 3월 30일

께 조선호텔을 총리공관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호텔이 가졌던 국가 권력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새 정권의 출범을 과시하고자 함이었다. 장면 내각은 조선호텔의 국가시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내각 책임제와 의회 양원제를 기본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의 실질적 권력자로서 국무총리 공관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위해 조선호텔을 선택하였던 것은 조선호텔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제2공화국이 무너짐에 따라 조선호텔은 관광호텔로 사용되었다. 1961년, 1962년 조선호텔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총리공관 사용의 반대 이유로 제시되었던 조선호텔의 연간 40억 환 수익 주장이 터무니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비로는 약 3천만 환이 소요되었으며 1961년 당시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1962년에는 보수비가 많이 줄었음에도 적자운영을 기록하였다. 이는 결국 조선호텔의 상업기능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대중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조선호텔 재산반환 및 운영에 관한 보고 (제 16회), 『각의상정안건철』 (제12회-21회), 국가기록원소장(BA0084264). 관광호텔로 사용하고자 결정하였다.

	반도호텔		조선호텔	
	1961년	1962년	1961년	1962년
실료	23,539,129	32,295,580	934,490	12,135,760
식료	12,786,243	18,070,176	1,766,153	15,481,161
음료	1,982,298	12,350,117	893,490	8,026,389
대실료	31,996,223	51,365,262		
잡수입	8,261,256	7,871,308	109,599	3,040,206
계	83,565,149	101,952,743	3,703,712	38,683,516
인건비	15,162,182	14,207,393	1,578,466	7,656,745
재료비	17,142,473	25,080,603	3,247,523	17,273,401
출전비	16,504,667	19,799,683	16,084,343	13,915,460
잡건비	15,653,039	22,011,951	1,081,033	3,954,926
보수비	9,271,356	5,285,294	28,395,446	9,059,337
계	73,733,717	86,464,924	50,376,811	52,659,869
수익	9,831,432	15,487,519	-46,673,099	-13,976,353

[표 3-1] 1961년, 1962년 반도호텔, 조선호텔 수입
(출처: 『국무회의록(제63회-89회)』, 국가기록원 소장(BA0085245)

해방 이후 미군정의 조선호텔, 반도호텔 사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이전에 따른 두 호텔 시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에 따른 경제권력의 성장은 조선호텔이라는 국가호텔의 상징성 변화를 초래하였고 반도호텔의 건설을 유도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 후퇴에 따라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국가 시설로 사용되며 이러한 미국의 두 호텔 사용은 과거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부에 의한 호텔 건설과 사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타자로써 외부 국가의 권력이 집권하게 되면 행정적 기반의 결여를 호텔이라는 상업적 서비스 기능으로 보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두 호텔은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화된 후 정부로 이양된다. 이양되는 시점에서 두 호텔을 정부의 권력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고급호텔의 상징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과거 일본 식민지 정부와 미국

은 고급호텔의 고급성과 폐쇄성을 통해 그들의 타자인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그들의 차별적인 지위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방식으로 호텔을 사용하려 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나 그 권력 속성에 다름에 기인하여 대중들의 많은 비판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두 호텔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계속해서 호텔로 사용되게 되며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 권력기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3.1.3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

경제개발의 일환으로서 외화획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국가호텔들은 여러 기반 산업이 발달하기 전 가장 직접적인 외화수입의 통로로서 수출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1963년 교통부 산하의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여 조선호텔, 반도호텔, 워커힐호텔, 타워호텔, 영빈관 등을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호텔 운영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첫째로 당시 국가 외에는 대규모의 고급호텔을 건설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을 맡은 국가가 자연스럽게 운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당시 고급호텔은 일반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외국의 귀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기능이 호텔의 기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호텔 사업은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과 정책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도	수출수입 (만불)	관광수입 (만불)	관광수입 전년대비(%)	관광수입/ 수출수입 (%)
1956	25,154	59	-	0.2
1957	21,521	153	259.3	0.7
1958	16,780	323	211.1	1.9
1959	20,436	358	110.8	1.8
1960	32,385	436	121.8	1.3
1961	42,901	1,353	310.3	3.1
1962	56,702	4,632	342.3	8.2
1963	84,368	5,212	112.5	6.2
1964	120,851	15,704	301.3	13.0
1965	180,150	20,798	132.4	11.0
1966	255,751	32,494	156.2	12.7
1967	368,772	33,817	104.1	9.2
1968	500,408	35,453	104.8	7.1
1969	702,811	32,807	92.5	4.6
1970	1,003,808	46,772	142.6	4.6
1971	1,352,037	52,383	112.0	3.9

[표 3-2] 수출수입 대 관광수입 비교 (출처: 관광공사 25년사)

관광수입은 195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박정희 정권 집권 이후인 196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와 함께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따라서 호텔건설은 경제개발이라는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수익성 향상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선진화된 경영능력의 부족과 공격적인 마케팅의 부재로 수익성이 점차 하락하게 된다. 또한 민간호텔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호텔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고 국가 관광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관광공사가 민간 호텔과의 경쟁관계에서 국가호텔을 운영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관광수입의 비중이 감소하여 관광산업이 국가 산업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국가호텔의 성격도 변화하게 된다.

1961년 조선호텔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된 이후 조선호텔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의 지출 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에 새롭게 운영을 맞게 된 국제관광공사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을 반도조선호텔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1963년 워커힐이 교외에 더 큰 규모로 건설되었지만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도심의 대규모 호텔로서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67년 영빈관 건설 이전까지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영빈관 시설로 운영되어 여러 국가적 행사를 수행하고 귀빈을 접대하였다.

년도	주요국제회의	주요투숙객
1964		미국 러스크 장관
1965	P.A.T.A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일본 추명 외상 말레이시아 수상 월남 키 수상 서독 엘하르트 수상
1966	국제개발은행 파티 아세아 영화제 기념축제 파티 한미행정 협정 W.C.O.T.P 총회 라이오슨 클럽 대회 존슨 대통령 영접 아파클 대회	미국 우주인 2명 일젠틴 외상 테소트왕국 수상
1967	험프리 미국 부통령 영접	서독 대통령 일행 아세아 의원 연맹 월남경제 사절단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태국 수상 호주 수상 생산성본부 회원일행 미국 험프리 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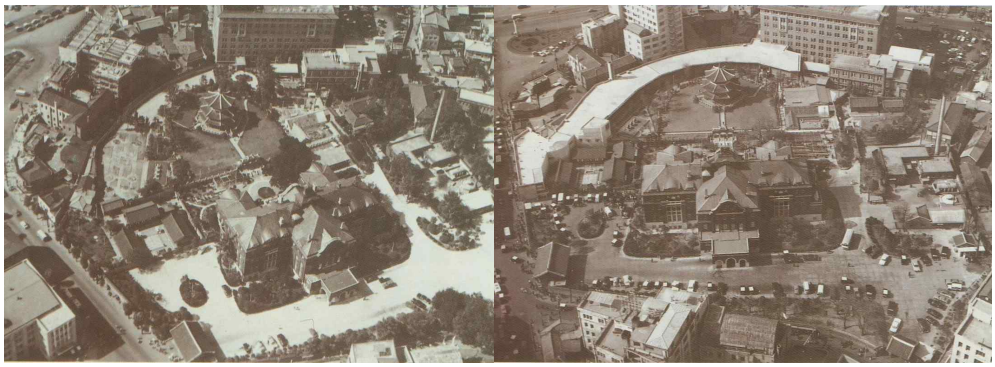
[표 3-3] 조선호텔의 주요국제회의, 주요투숙객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수립과 폭발적인 경제발전은 일반 내국인이 호텔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계층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의 호텔 이용이 증가하였다. 1963년 8월 국제관광공사에 인수된 후 영업실적에서 내국인 이용자가 70%를 기록하여 30%를 기록한 외국인 이용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월평균 114,581명이 이용하였는데 52개의 객실 이용률이 평균 79%를 기록한 것으로 보았을 때[113] 내국인의 부대시설(식당, 카페, 바, 회의실) 이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호텔의 민간부분 이용자가 증가한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내국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조선호텔, 반도호텔이 일반인도 출

113)「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p.95

입을 할 수 있게 개방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호텔의 소비계층으로 일반인 상류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호텔의 의미와 역할 또한 변화한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말 조선호텔 인근의 소공로의 상업가로화가 진행되었듯이 1965년 국제관광공사는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잇는 반도조선아케이드라는 쇼핑시설을 건설하였다. 아케이드라는 가로형태의 현대적인 상업시설을 조선호텔의 후정에 건설하여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은 물리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3-2]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 이전모습(좌), 이후모습(우)

아케이드의 이름으로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의 이름을 합친 '반도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연결하는 상업시설로서 두 고급호텔의 이미지와 장소성을 사용하고자 함이었다. 조선호텔이 1914년 더 먼저 건설되고 두 호텔을 국제관광공사가 운영하여 위계의 차이가 없었음에도 '조선반도'가 아닌 '반도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조선반도'라는 명칭이 가지는 식민지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다.[114]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도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상업시설의 수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였다. 반도조선아케이드의 명칭 사용은 호텔이 상업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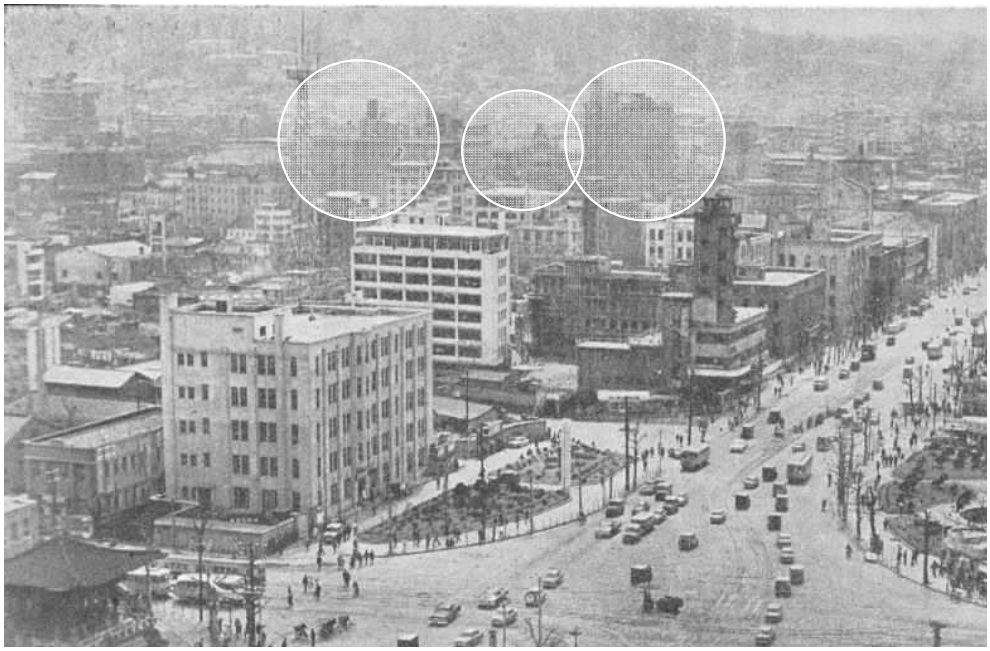
114)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6호, 2012, p.201

다. 과거 이승만 정권기 조선호텔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였을 때 지배인의 반대에 따라 명칭을 바꾸지 못한 것처럼 국가의 공식적 행사를 수행하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을 잇는 상업시설에 '반도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조선반도'라는 직접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재의 잔재 청산을 재창하였던 박정희 정권에서 외국에 가장먼저 보이는 국가호텔의 시설에 '반도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상업적 마케팅이 국가적 정체성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국가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두 호텔이 점차 상업화되어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재편되어 가는 과정이다.

반도조선아케이드 건설은 호텔과 호텔 주변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호텔이 귀빈 방문을 위한 영빈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보다 일반인들의 방문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반도조선아케이드는 외국인을 위한 쇼핑시설로 개관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국인들의 사용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대형 백화점이 건설되기 이전 서울의 제일가는 고급 쇼핑시설이었다.

반도조선아케이드는 조선호텔의 일부 시설들을 파괴하고 건설되었다는 점에서도 조선호텔의 국가적 상징성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호텔은 원구단 시절 건설된 한식 담장으로 둘러싸여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고궁과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115] 반도조선아케이드는 권력을 상징하는 조선호텔의 대표적 모습이었던 담장을 파괴하고 건설된다. 또한 현대식의 콘크리트 아케이드 건물 건설을 통해 조선호텔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관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15) 코리아의 異邦地帶 (1), 『경향신문』, 1955년 11월 21일



[그림 3-3] 좌측부터 반도호텔, 조선호텔, 뉴코리아 호텔의 모습

조선호텔의 이러한 변화는 뉴코리아 호텔 건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뉴코리아 호텔은 조선호텔 맞은 편, 반도호텔 옆에 반도호텔보다도 높은 15층으로 건설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호텔을 가리는 반도호텔 건설과 같이 뉴코리아 호텔 건설로 소공동 지역의 도시경관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조선호텔은 더 이상 높은 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가시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반도호텔과 뉴코리아호텔로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재편은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진행되었다. 조선호텔의 상징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건설된 뉴코리아호텔은 그러나 국가시설과 동일업종의 인근 배치라는 경쟁에 있었음에도 부족한 호텔시설의 건설이라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의도와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1964년 일본회사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건설하고자 하였던 뉴코리아

호텔은 한일협정에 따른 반일감정의 고조로 일본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포기하고 국가지원을 받아 1965년 준공되었다.[116]

반도조선아케이드와 뉴코리아 호텔이 건설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조선호텔은 재개발 계획이 논의된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며 고층 호텔이 건설되는 흐름에 따라가기 위함으로 보이며 당시 서울 시장의 도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재개발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신축 호텔 건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조선호텔 철거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추측해볼 수 있다.

[대규모호텔 건립대지선정에 관한 간담회][117]
1.일시: 1967. 2. 2. 11시~15시
2.장소: 조선호텔 볼륨
3.초청자: 김상기(문화재위원회위원장), 유광렬(언론인), 차일석(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하갑청(문화재관리국장), 김수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나상진(건축가), 정비석(작가), 이창주(대한상의사무총장), 이윤육(관광호텔협회장), 곽복산(중앙대신문학과 교수), 이진섭(작가), 김진섭(언론인), 조경희(여류작가)
4.참석자: 공사전(全)임원, 각 부장 및 사무소장과 직원, 교통부 관광국장, 동 기획과장, 동 업무과장, 동 관광계장, 동 감리계장

[간담회 발언내용 요점]
대규모 최신호텔을 조선호텔 구내에 건립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그 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일반여론을 존중하기 위하여 공사는 전기한 바처럼 각 계 각 층 인사들을 초청, 공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간담회는 서명석이사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참석인사 13명이 만장일치로 A안(현 조선호텔 주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

116) 『뉴·코리아·호텔』建築에 政府弗 23萬弗使用승인, 『동아일보』, 1965년 8월 14일
117) 「조선호텔處理誌」, 國際觀光公社 조선호텔處理委員會, 1967, p.49

리에 대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안)을 찬동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언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A안 채택이 좋겠다.
2. 외화획득을 위해 대규모호텔을 짓는데 소의(小意)를 희생할 수 있지 않은가.
3. A안이든 B안이든 간에 원구단은 보존되어야 한다.
4. 역사, 문화적 유물로서 조선호텔을 보존할 의의는 없다.
5. 한국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호텔건물의 신축을 바란다.
6. 국제적 대회의 수용문제가 절실하니 헐고 이 자리에 대규모 호텔을 건설하라.
7. 도시계획적, 건축적 견지에서 생각하더라도 헐고 새로 건축해야 한다.
8. 53년이면 건축수명이 다 간 것이며 51실의 운영으로 이 이상 흑자가 불가능하니 철거하고 맘모스호텔을 건립해야 한다.
9.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대규모호텔을 건설해야 하며 일본 제국호텔의 신, 구관 운영상 고민을 참고삼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10. 조선호텔은 민족적 수치와 비화가 엉킨 곳이니 헐어버리고 우리 손으로 새로 건립해야한다.

조선호텔 처리에 관한 간담회 내용을 통해 조선호텔 철거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똑같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일본 양식의 건물이었던 반도호텔의 경우에는 아직 철거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조선호텔 시설의 노후화와 작은 규모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118]

118) 반도호텔의 경우에는 1964년부터 순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도	수익	지출	순익
1964	256,024,006	201,154,997	54,869,009
1965	378,426,975	279,316,890	99,110,085
1966	493,740,624	358,695,014	135,045,610
1967	495,005,405	354,225,383	140,780,022
1968	490,088,406	327,007,100	163,081,306
1969	543,987,160	377,912,966	166,074,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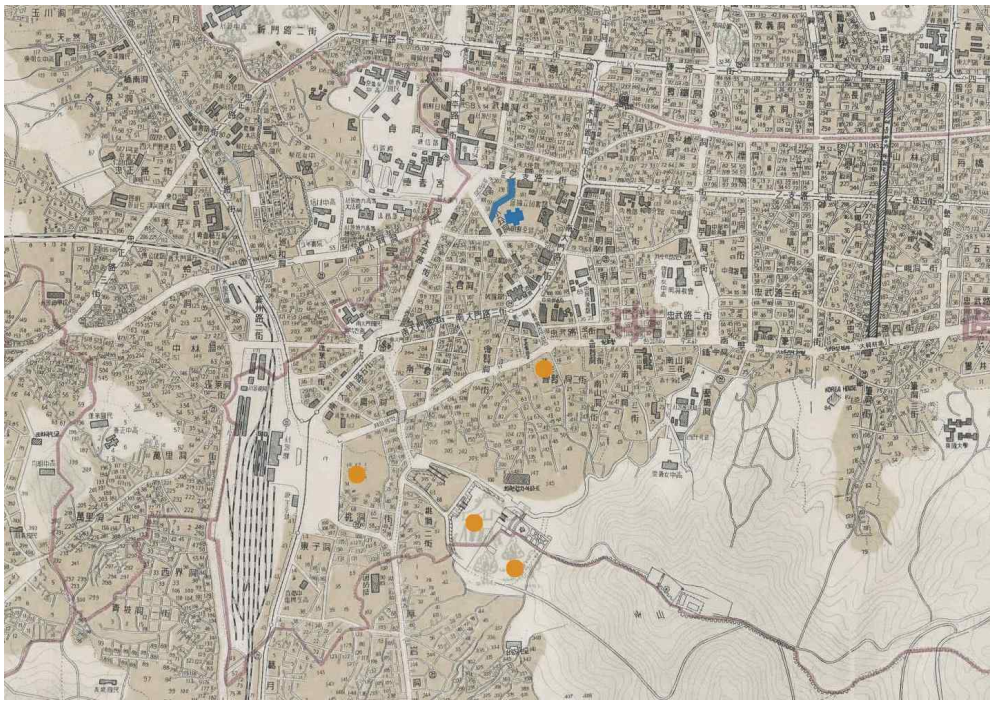
[표 3-4] 연도별 반도호텔 수익 상태

3.1.4 조선호텔 신축

조선호텔 건설계획이 세워지는 60년대 후반에는 고급객실 및 대규모 회의시설을 갖춘 호텔을 건설할만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제관광공사의 주도로 대규모호텔 건설계획이 구상되었다. 미국 레스코사(LESKO Architect Planners Association)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①서울에 현재 400실(호텔 신축비 약1천만달러)이상의 규모 호텔이 필요하고, ②호텔건설 부지로 조선호텔, 서울역 앞 세브란스 병원자리, 해군헌병대자리, 시립도서관자리, 남산야외음악당 자리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자리와 조선호텔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대지구입자금이 조선호텔 부지가 유리하였기 때문에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119] 이후경제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호텔 건설계획이 세워진다. 건설계획은 ①조선호텔 구내에 철근콘크리트 17층 건물을 신축하여 350실을 수용한다. ②총 소요자금 17억 4,300만원 중 11억 3,800만원은 국내자본으로 6억 500만원은 외자로 충당하되 외자는 정부출자로 국내자본 중 5억 6,900만원은 재정융자로 나머지 5억 6,900만원은 공사 자체조달로 한다. ③1967년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

119) 「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p.96

여 6월초에 착공하고 1969년 5월말까지 완공한다.[120] 등이었다. 조선호텔 신축은 대규모 상업호텔의 건설에 목적이 있었으며 기존 조선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식 호텔 건설계획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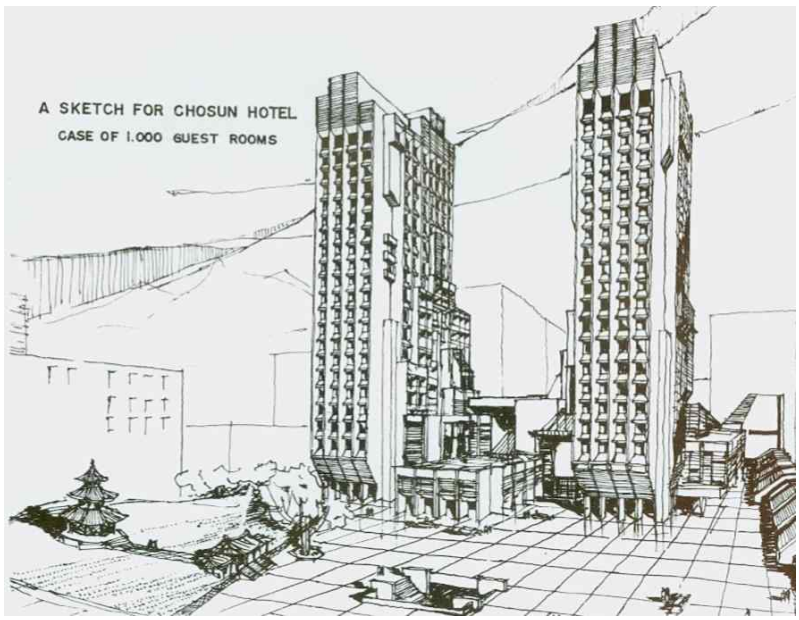
[그림 3-4] 조선호텔 후보지
(출처: 「지번입최신 서울특별시가도 1968」에 표기)

조선호텔 철거가 확정된 후 정부는 1967년 3월 미국의 쉐라톤 회사와 경영계약을 맺으려 하였으나 교섭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의 항공회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와 합작투자 결의를 맺고 500실로 규모를 확장한 호텔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에서 선정한 미국의 벡텔사가 시공에 참여하였고 설계에는 윌리엄 테이블러 회사가 참여하였다. 신축 조선호텔과 같은 규모의 건물에는 일본 규격에 따라 110cm의 한 변 길이를 가진 사각 기둥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진이

120) 「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p.96

많은 일본의 기준이었다. 신축 조선호텔에는 한 변이 45cm인 사각기둥을 사용하여 한국 최초로 45cm 기둥을 가진 건물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호텔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대부분 일본회사의 참여에 의해 건설되었던 건물들과 달리 미국의 설계, 시공회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축조선호텔의 건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호텔 건설에는 건축가 김수근이 다각도로 참여하였는데 조선호텔 처리문제에도 관여하였으며 투자 및 건설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 관리자와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김수근의 신축조선호텔 계획도가 작성된 바 있다. 김수근의 신축조선호텔 계획을 보면 전형적인 호텔 매스의 비례를 가진 판상형의 건물 2개를 배치하였다. 타워호텔과 같이 콘크리트의 물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축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김수근의 신축조선호텔 스케치

실제 건설된 조선호텔이 김수근의 조선호텔 계획과 가장 큰 차이를 보

인 것은 보존하기로 결정된 황궁우와의 배치이다. 실제로 건설된 조선호텔은 기존 조선호텔과 황궁우와의 관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Y자형의 호텔 매스를 구성하여 황궁우와 삼문을 잇는 축에 호텔 매스의 중심을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배치를 하게 되었다. 서양인 건축가가 설계한 기존 조선호텔과 미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신축 조선호텔에서 황궁우와 호텔건물과의 배치가 유사한 반면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계획에서는 그러한 배치가 보이지 않는 점을 주목해볼만 하다. 이는 황궁우라는 한국의 전통 유산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오르그 데라란데가 참여한 조선호텔과 미국의 벡텔사가 참여한 조선호텔에서 황궁우는 호텔시설의 일부로서 호텔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김수근의 계획에서 황궁우는 호텔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서양의 시각에서 황궁우는 호텔의 개성을 살리고 서양인들에게 동양적인 색체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심미적인 오브제인 반면에 60년대 도시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국의 시각에서는 고층건물 건설에 방해가 되지만 보존해야만 하는 유산이었다. 따라서 김수근의 계획에서 황궁우는 호텔 디자인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며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조선호텔 입구에서 보이는 야외수영장의 존재이다. 조선 한양의 모습을 간직하며 서울시청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심 호텔에 야외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조선호텔의 외관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야외수영장의 설치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호텔이 미국회사에 의해 계획, 설계, 시공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호텔 모델을 호텔이 건설되는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축 조선호텔을 통해 서구화 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러한 서구화, 현대화를 외국에게 과시하는 창으로서 호텔이 역할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6] 신축조선호텔의 모습

3.2 미국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 수단으로써 워커힐 건설

3.2.1 워커힐의 건설

해방 이후에도 국가호텔로 운영되었던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은 모두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건설된 호텔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수립 된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국가호텔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시기 이루어진 국가호텔건설은 메이지 시기 일본이 서구 열강들에게 근대화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호텔을 건설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건설된 호텔들은 국가에 의해 운영이 되어오다 민영화되어 민간 기업 호텔 개발의 발판이 된다. 이는 국가적 상징으로서 호텔의 기능이 기업으로 이전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의 결과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장면 내각이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권력을 가지게 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급감함에 따라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장면 정권이 수립하였던 경제개발 계획을 서둘러 시행한다.[121]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은 쿠데타를 통한 군부정권의 수립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이시기 적극적으로 건설된 호텔시설은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발전의 일환임과 동시에 국내외에 경제발전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962년부터 실행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광개발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22] 결국 박정희 정권기의 유래 없는 대규모 고급호텔 건설은

121) 이용주,「박정희 리더십과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2
122)「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 2005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건축적 수단의 하나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건설되지 못했던 현대적인 시설들로 구성된 고급호텔은 경제발전을 통한 선진화된 현대 국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었다.

박정희 정권기 가장 먼저 건설된 국가호텔은 워커힐이었다. 워커힐 건설계획은 1961년 9월 1일 워커힐 건설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된다. 같은 해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워커힐 건설은 관광사업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국가사업이었다. 이 시기 공포된 관광사업진흥법에서 관광호텔업을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관광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을 숙박시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3] 이를 통해 이 시기 호텔은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호텔이 외국의 시설로 인식되어있고 일반에게 개방된 고급호텔이 적어 국내의 소비문화로 아직 완전히 자리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워커힐 또한 국내 고객이 아닌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로 개발되어 초기에는 일반 내국인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워커힐 건설 전 미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엔군은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위로휴가를 가는데 대부분 일본 등지의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미군 입장에서는 비상시에 이들을 즉시 소집할 수 없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위락 시설 개발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계획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멜로이(Guy Melroy)장군과 중앙정보부 정보부장이였던 김종필과의 대담 중에 언급된다.[124]

---

123) 「관광사업진흥법(시행 1961.8.22.)」 제2조 3항 6호. “본법에서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관광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을 숙박시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종필의 주도로 워커힐은 숙박시설을 갖춘 호텔뿐만 아니라 유엔군 휴가 수용시설로서 숙박, 휴양 및 오락 등의 종합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 휴양호텔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미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름은 영어로 정하고자 하였고 6.25 전쟁 당시 초대 주한 미8군 사령관으로 1950년 서울 북방 도봉지역 전선에서 전사한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의 이름을 따 워커의 언덕이라는 뜻의 워커힐(Walker Hill)이라는 이름을 정하였다.

워커힐이라는 이름은 미군이 대다수인 유엔군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그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고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장군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하였다. 식민지시기 건설된 고급호텔들에서 조센(Chosen), 반도(Bando)라는 명칭의 사용이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을 나타내 주었다면 워커힐(Walker Hill)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한국에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던 미국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워커힐은 대규모 위락 시설이 자리하기 위해 충분히 넓고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부지가 요구되었다. 기존에 존재하였던 조선호텔, 반도호텔과 같은 도심의 고급호텔과 달리 워커힐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초대형 위락시설을 가진 호텔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교외의 자연 풍광을 가진 넓은 대지를 물색하였다. 당시 아차산 자락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광나루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던 별장이 위치

124) 손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p.140. “멜로이: 지금 일본에 미군장병이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위로휴가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면 즉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한국 내에 미군을 위한 위락시설이 있다면, 연간 3만 명이 일본에 쏟아 넣고 있는 돈을 여기에 쏟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사시에 비상소집을 하면 즉시 응소해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을 테고 하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종필: 그런 걸 여기다 만들면 당신들이 장병들을 여기 머물게 할 수 있겠소? 멜로이: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있었다. 아차산을 등지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이 일대는 풍광이 좋기로 유명했으며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또한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부지를 중심으로 19만 1,520평의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어 약간의 사유지만을 매각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125]

워커힐은 이전에는 건설된 바 없는 거대한 규모의 시설로 그 규모와 화려함뿐만 아니라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도전적으로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가진 대규모 라스베가스 리조트호텔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되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서 외화획득이라는 목적을 민족주의적 취지에서 내세웠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아닌 국내 업체들로 선정하여 자력으로 이를 건설해내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워커힐의 설계에는 김수근을 중심으로 김희춘, 이희태, 엄덕문, 강명구, 나상진 등이 설비에는 배만실(이화여대 미대 교수), 이세득(미술가), 김정환(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등이 시공에는 삼환, 동아, 대림, 협화, 신흥건설 등이 참여하였으며 호텔 및 관광 관련 권위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워커힐과 같은 유래 없는 대규모 복합시설이 무사히 건설될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와 군의 협조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비대해진 군부는 당시 어떤 사회세력보다도 근대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126] 워커힐 건설에는 각 계에서 성장한 전문가들의 도움과 함께 군의 대규모 지원과 건설 역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회 내무위원회가 밝혀낸 바로 1961년 9월부터 1962년 2월까지 각 군 공병감 휘하의 각종 장비 연 대수 4,158대 연인원 2만 4,078명이 무상노역으로 참여하였는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125)「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93
126)「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새길아카데미, 1992, p.168

공병 및 시설대에서 기능별로 소령 및 위관급 장교가 파견되어 건축공사를 장교가 맡기도 하였다. 또한 교통부, 채신부, 서울시, 한전 등에서도 지원 협조를 하였다.[127] 워커힐 건설을 위해 60억 환을 조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자금은 6억 4천만 원이 소요되었다.[128]

워커힐 건설은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공사였다. 191,520평의 부지에 폭 12m 길이 1,500m의 주도로와 폭 8m 길이 2,580m의 지선도로를 설치하였고 도로를 따라 26동의 건물들을 분산배치 하였다. 이는 교외에 건설된 독립된 소도시 건설과 같은 규모로 당시 워커힐 공사가 가졌던 위상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워커힐 건설에는 당시 최신식의 시공기술과 설비, 장식 등이 사용되었다. 필로티, 노출식 콘크리트 형식의 건물을 위해 이전 대한민국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최신식의 시공기술이 실험 사용되었으며 지형의 모습을 본 딴 S자형 커브 건물 또한 건설되었다. 워커힐의 자재 또한 대부분 수입품으로 목재류, 알루미늄 창틀, 위생도기, 수도꼭지, 도어록, 조명, 냉난방 장치 등의 자재와 합판, 벽돌 등을 제외한 건설자제도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KNOLL, VICO의 가구, 주방기구를 수입하였다. 이외에도 중앙집중식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를 사용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실내수영장 설비 또한 당시로서는 최신식의 기술들을 도입하여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공과 기술들을 외국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내 업체들과 군의 노력을 통해 이룸으로써 당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

127)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p.147
128) 「제6대 국회회의록 내무위원회 제17차」, 국회회의록, 1964년 11월 12일

[그림 3-7] 워커힐 건설 당시 항공사진

시설명	규모	건평(평)	연건평(평)	시설
주건물	4층	827.27	3,689.62	니이트클럽, 그릴 바, 실내수영장, 교환실, 우체국, 음악실, 변전실, 기계실 및 기타 영업시설
한국민속관	1층	259.72	340.97	온돌방(2), 마루, 연못, 지하창고, 사무실, 주방
전망대	2층	75.1	157.53	바
호텔, 더글라스하우스	3층(54실)	435.88	1,115.52	특별객실(6), 대형객실(4), 보통객실(44), 로비, 주방
호텔, 메튜하우스	3층(48실)	197.79	626.6	보통객실(41), 대형객실(6), 주방, 로비
호텔, 맥스웰하우스	3층(48실)	196.63	624.9	보통객실(39), 대형객실(6), 주방, 로비
호텔, 제임스하우스	3층(45실)	192	607	보통객실(39), 대형객실(6), 주방, 로비
호텔, 라이만하우스	3층(45실)	192	607	보통객실(39), 대형객실(6), 주방, 로비
빌라, 에메랄드(영빈관)	2층(1실)	106.8	177.84	침실, 거실, 식당, 주방
빌라, 루비(중국관)	2층(1실)	45.56	86.87	침실, 홀, 주방
빌라, 제이드(호텔)	1층(1실)	66.72	75.88	침실, 거실, 식당, 주방, 홀
빌라, 펄	1층(18실)	314.02	604.08	침실, 홀, 주방, 차고
빌라, 사파이어	1층(4실)	122.19	133.3	침실, 홀, 주방, 차고
종업원 숙소	3층	238.54	654.57	관리사무실, 식당, 이발소, 기계실숙소
영선공장	1층	142.5	142.5	사무실, 목고장장, 창고, 변전실, 발전실
정문안내소	1층	30.88	30.88	정문 및 안내소
차고	1층	174.33	174.33	주차장, 사무실, 숙직실, 창고, 연료탱크
승마구락부	1층	111	143	마사, 병리실, 미용실, 강제실

[표 3-5] 워커힐 준공 당시 시설
(출처: 「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워커힐 건설과정과 배경, 용도와 역할을 통해서 워커힐 건설이 당시 가졌던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다. 워커힐은 전례 없는 대규모 시설로 5.16 이후 최고회의 의장이 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욕적으로 계획한 시설이다. 워커힐 건설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군부정권을 대하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먼저 워커힐 건설은 50년대 말 국가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한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국내외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었다. 단순히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로서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환으로서 워커힐은 기존에 없던 최신 설비와 공법을 통해서 건설된 경제성장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었다. 이는 군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부처가 응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워커힐을 건설한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군대를 장악하였던 박정희는 현대식의 대규모 클러스터 시설 건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개발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워커힐 건설의 의의를 이해해볼 수 있다. 워커힐은 이름부터 6.25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장교의 이름을 따서 건설되었으며 유엔군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건설한 미군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 형식도 기존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그램과 시설로 구성된 도심에서 떨어진 대형 리조트형 호텔로 자국민은 고객층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한 것은 당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정권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을 바라는 미국 측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마샬그린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 윤보선에게 1군을 동원하여 쿠데타 진압을 제안하였는데 내전을 염려한 대통령이 1군 동원을 포기하여 쿠데타는 성공에 이른다.[129] 이러한 쿠데타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길 바라고 있던 미국 측에서는 원치 않은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정권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 공산화 방지와

129) 김용욱,「한국정치론」, 서울: 오름, 2004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정권의 형성,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속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용인과 견제를 반복하였다.[130]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워커힐은 군 동원을 통한 최신식의 대규모 시설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냄으로써 자신들의 근대화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워커힐은 당시 유례없던 형식과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민족중흥의 국가 구호 속에서 당시 낙후된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외국 업체의 도움 없이 국가 스스로의 힘으로 최신식의 고급시설 건설을 이뤄내었다.

워커힐 건설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 정당성과 기반을 결여하고 있던 군부정권이 그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 표현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워커힐은 경제 개발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미국 측에게 우호적인 메시지와 정부의 근대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시설이였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에 따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섭하지 못한 장면 총리와 대조적인 박정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새로운 정권의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서 워커힐이라는 건축물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30)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박태균, 「군사정권 시기 미국의 개입과 정치변동, 1961~1963」, 2002. ; 이완범, 「박정희와 미국: 쿠데타와 민정이양 문제를 중심으로, 1961~1963」, 2002. ; Ma, Sang-Yoon「Dealing With Authoritarianism :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Governments 1960~1968」,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01. ; 홍석률,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한국역사연구회, 2005. 등이 있다.

3.2.2 워커힐의 건축

워커힐의 건축적 표현 방법은 모방과 재현의 방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미국식 리조트라는 근대적인 호텔 양식의 모방을 통해 워커힐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능력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건축적 표상으로써 5.16 정변을 통한 급진 정권이 결핍하고 있었던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사용되었다.

워커힐은 기존에 없던 호텔 양식의 재현을 통해 정권의 근대화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조선호텔, 반도호텔과 같이 도심에 존재하는 유럽식의 팔레스 호텔이 아닌 라스베가스의 호텔을 모델로 삼은 리조트형 호텔은 새로운 서구 프로그램의 최초 도입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조선호텔이 대규모의 고급호텔 양식의 재현, 반도호텔이 모더니즘양식의 상업호텔의 재현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면 워커힐은 미국식의 리즈토형 호텔의 재현으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조트형 호텔의 건축적 구현은 자연환경이 좋은 교외 입지, 넓은 입지에 분산 배치된 시설들, 한강을 조망하는 방향으로 자연 지형을 고려한 건물 배치, 카지노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쇼 공연장 등의 시설들로 이루어진다. 5개동의 호텔과 13동의 빌라, 전망대와 차고 등 26동의 건물은 아차산 자락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되었다.

워커힐은 1914년 조선호텔 건설 때와 같이 새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해 최신식의 건설기술과 설비가 사용되었다. 김희춘과 이희태가 설계한 본관 건물은 워커힐 단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메인 데스크와, 그릴, 볼링장, 실내수영장, 게임시설, 나이트클럽, 교환실, 음악실, 도서실, 이발소, 목욕탕 등이 있었다. 특히 볼링장은 국내 최초의 볼링장이었으며 실내수영장 또한 호텔에 설치된 적이 없는 시설이었다. 특히 워커힐의 주요 시설이었던 대형 공연시설은 승강 회전식 이중무대 슬

라이딩장치, 곤도라, 입체음향시설, 특수 조명장치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신식 설비로 구성된 무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테이지 쇼가 소개되었으며 최초의 전자오르간, 재즈 공연이 이루어졌다.[131] 이러한 설비의 구현은 미국식 쇼, 공연을 수용함으로써 선진적인 미국의 위락 문화를 재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테니스장, 야외 수영장, 카지노 시설, 볼링장, 빌라 등의 시설들로도 구현되었다. 또한 빌라 객실 및 호텔 객실에는 최신식 냉난방 시스템이 사용됨으로써 풀 에어컨이 구비되었다.[132] 조선호텔에서 온돌이 아닌 서양식 난방 설비를 사용한 것처럼 당시 한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은 냉방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냉방 시스템은 주로 더운 지역에 건설되는 리조트형 호텔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워커힐에도 최신식의 근대 건축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었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자연지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 곡선형의 콘크리트 건물을 사용하였는데 발코니만을 곡선으로 하고 판형의 알루미늄 샤시를 사용하여 외관상에서 느껴지는 곡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힐탑바는 상층부의 면적이 하층부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역삼각형식의 형태를 위해 기둥과 보가 기울어져 있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접합부에서 여러 각도의 부재들이 만나 이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과제였다.[133] 기둥들은 45로 휘어져있었고 대각선 방향에서는 35도 정도 휘어져있었는데 받침대를 받친 채로 콘크리트를 굳히고 받침대를 떼어내야 했다. 당시 공사 인부들은 아무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려 해 담당 건축가였던 김수근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밑에 서있으면서 인부들을 안심시켰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실험적인 건축물이었다.[134]

---

131)「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p.107-108
132) 전봉희·우동선·최원준,「윤승중 구술집」, 마티, 2014, pp.158-159
133) 전봉희·우동선·최원준,「윤승중 구술집」, 마티, 2014, p.159
134) 확신이 지은 집,『공간』, 1980년 1월, p.200

힐탑바는 노골적인 시각적 상징물로써 워커힐의 앞글자인 W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이다. W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거대한 구조물에 비해 내부 공간은 협소하여 지붕은 컸지만 1층은 엔트런스 홀로 사용되어 2층 부분만이 실내공간으로 사용가능 하였다.[135] 힐탑바는 워커힐 시설의 중앙의 언덕에 위치하여 전망대로써 기능을 하였는데 분산 배치되어 있는 워커힐 시설에서 힐탑바는 사방의 시각을 고려해야했기 때문에 사면에서 W모양이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입체적인 형태가 구현되었으며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건축물로써 워커힐의 시각적 상징물임과 동시에 기능과 공간을 가진 시설이었다.

[그림 3-8] 워커힐의 힐탑바

워커힐의 상징적 표현으로써 힐탑바는 W라는 미국의 문자의 모방을 통해 워커힐이라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시각화 한 건축물이다. 강한 장식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건축물은 그러나 협소하지만 내부공간을 가지고 기능을 보유함에 따라 하나

135) 전봉희·우동선·최원준, 「윤승중 구술집」, 마티, 2014, p.160

의 시설로써 인지되어 그 형태와 위치상 워커힐의 중심시설로 자리할 수 있었다. 특히 힐탑바는 워커힐 출입 시 그 높은 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축물이었다. WELCOME TO WALKER HILL이라는 워커힐의 정문과 덕 위에 위치한 힐탑바는 한 미국적 향취가 느껴지는 대한민국 속 이질적 공간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힐탑바는 미국에 대한 워커힐 건설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상징의 핵심적 건축물이었다. 6.25 전쟁 중 사망한 워커(Walker) 중령의 이름을 따 워커힐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호텔은 W형상의 힐탑바를 통해서 그 명칭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구현된다.

[그림 3-9] 워커힐의 입구와 힐탑바

워커힐 건축에서 한국민속관의 건설과 아차산이라는 입지선택은 건축적 방법으로써 대조적 표현의 방법으로 이해해볼 수 있따. 한국민속관은 명월관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전용의 워커힐에서 한국의 고전문화와 생활양식 소개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워커힐은 2개의 진입로를 통해 진입 가능한데 힐탑바가 위치한 언덕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한강과 본관 사이로 오는 진입로가 있다. 북측 진입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축물이 힐탑바라면 남측 진입로에서는 명월관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건축물이다. 힐탑바와 명월관은 워커힐 시설을 진입하기 위해 지나쳐야하는

시각적 표상물로써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월관은 전통 목조 건물의 형태를 위해 콘크리트로 구성된 단층 건물인데 내부에는 못을 쓰지 않고 목재로 조립한 대청마루와 온돌방을 설치하였다.[136] 140명 수용 규모로 전면에 정원이 있으며 정원에는 355평의 거대한 인공 연못이 있었다. 명월관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설된 전통건축의 형태를 현대적 건축기술로 재현한 건축물이다. 명월관 건설 이전에 건설된 전통양식 재현의 건축물은 구 정무총감 관저를 개조한 한국의 집과 미완성 상태의 남산 영빈관 건물이 있다. 두 건물 모두 영빈관 기능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었던 건축물로 남산 영빈관의 경우 67년 완성되긴 하지만 5.16 이전인 장면내각 시절 기와설치 공사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명월관보다 이른 시기에 건설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137]

년도	건물명	위치	설계자
1950	블란서 대사관	서울	김중업
1966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강봉진
1967	부여박물관	부여	김수근
1974	용인민속촌	용인	미상
1975	경주박물관	경주	이희태
1975	국립극장	서울	이희태
1975	경주보문지건축물	경주	강병기
1975	국회의사당	서울	김정수 외
1977	주한미대사관저	서울	미상
1978	세종문화회관	서울	엄덕문
1978	정신문화연구원	서울	김희춘 외

[표 3-6] 전통건축을 재현한 건축물
(출처: 김지홍, 1960-19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논문, 2014)

전통건축을 재현한 건축물은 1950년대 김중업의 블란서 대사관이 처

136)「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07
137) 이용선,「[건설반세기] 천호동 청기와로 덮은 영빈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저널, v. 32(2003-12), p.75

음이지만 이는 직접적인 형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집, 남산 영빈관, 워커힐 명월관은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전통건축을 직접적으로 재현한 건축물로 외국인의 사용을 위해 건설된 건축물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외국 귀빈 및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여 국가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영빈관으로써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 형성과 결집을 위해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형태를 모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커힐의 명월관은 두 영빈관 시설과는 기능과 건설의의에서 차이를 보인다. 명월관 건물은 숙박기능이 없었으며 서양식 호텔의 일부로 건설되었다. 명월관 건물은 힐탑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능 보다는 시각적 피조물로써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W를 형상화한 힐탑바를 통해 미군들의 위락시설로써 워커힐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면 명월관은 한국의 전통적 건축물의 형상을 재현함으로써 지리적 공간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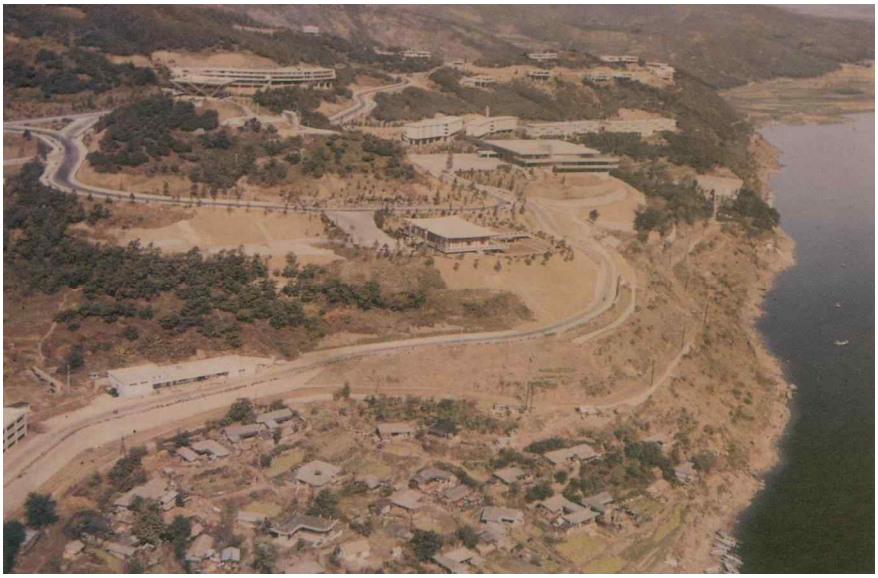
미국식 리조트호텔인 워커힐 속의 명월관 건설은 조선호텔 본관과 기존의 전통적 양식의 건축물인 황궁우가 공존했던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 명월관 건물은 한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을 시각적 피조물로써 워커힐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미학적 관조 대상으로써 건설되었다. 명월관과 함께 조성된 거대한 연못은 궁궐의 정원과 누각을 연상하게 하는데 건축에 담겨있던 문화는 배제되고 미학적 피조물로써 명월관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선호텔 사례와 다르게 명월관과 워커힐호텔에는 건축적 요소들의 조정을 통한 관계설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명월관은 진입로에서 보이는 건축물이지 본관이나 빌라 건물들과 물리적 배치나 시각적 관점에서 의도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식민시기 제국이 그들의 차별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건축적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와 식민지배의 현실을 극적으로 상징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미학

적 장치들은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구호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림 3-10] 워커힐의 명월관

명월관과 힐탑바는 각각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현 방식은 서로 대조적이다. W라는 모양을 형상화함으로써 조각품과 유사한 힐탑바는 그러나 공간과 기능을 내제함으로써 작동하는 건축물로써 한 단계 높은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반대로 명월관은 전통적 건축물의 형태를 가진 장식품으로 관조되고 공간을 내제하지만 그 기능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어 오히려 기능과 공간을 상실한 조각품이 되어버린다.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워커힐이 위치한 아차산 자락은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초가집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였다. 한강변의 초가집들을 지나 좌측으로 보이는 명월관까지 지나치게 되면 테니스장과 야외수영장을 구비한 콘크리트로 건설된 본관 건물의 극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건설주체인 박정희 정권은 그들의 근대화 능력을 극적으로 과시하고 워커힐이 가지는 차별적인 공간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림 3-11] 워커힐과 한강변의 초가집의 대조적인 모습

3.3 반공이념과 근대국가 수립의 상징으로써 타워호텔 건설

반공센터는 1962년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아세아 민족반공대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설치가 논의되어 1966년 제 12회 아주반공연맹(亞洲反共聯盟)대회를 위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반공센터의 숙소로 지어진 고층건물을 국제관광공사가 인수하여 90개 객실 규모의 호텔로 개축하고 타워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아세아 민족방공연맹은 1954년 공산화 확산에 대한 경계의 의지표명과 아시아 반공의 리더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 아래 한국, 자유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홍콩, 마카오, 류구 등 8개

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반공을 위한 강력한 근대화 국가 설립을 목표로 권력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박정희 군부정권은 이러한 반공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8차정기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5.16혁명의 1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아주반공연맹 임시총회의 서울 개최를 추진하였다. 임시총회 참여국과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명단과 행사일정][138]

◇가맹국=호주, 버마, 자유중국, 향항(香港), 이란, 마래(馬來), 일본, 요르단, 마카오, 북부 보르네오,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비율빈(比律賓), 태국, 토이기(터키), 유구(대만), 세일론(스리랑카), 월남, 이락(이라크)

◇옵서버(Observer)국=카메론, 불령(佛領)콩고, 백령(白領)콩고, 불란서(佛蘭西), 인도, 인도네시아, 서독, 라오스,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라카시(Marrakech),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

◇기타단체=ABN, NPS, CPWS, CIAS, ACEN

◇총회일정

5월9일=정부요인예방(政府要人禮訪)

10일=상오(上午)10시 아세아반공연맹임시총회개회식(시민회관) ①개회사-대회임시의장, ②연설-비율빈(필리핀)수석대표, ③환영사-대통령권한대행 최고회의의장, ④연설-중앙정보부장/ 하오(下午)2시반 아세아반공지도자환영 및 반공국민총궐기대회(서울운동장), ①육해공군군악대동원, ②중고교학생의 마스게임, ③각국대표에 대한 꽃다발 증정, ④개회사 재건 국민운동본부장, ⑤중국 측 답사, ⑥축사-주한외교사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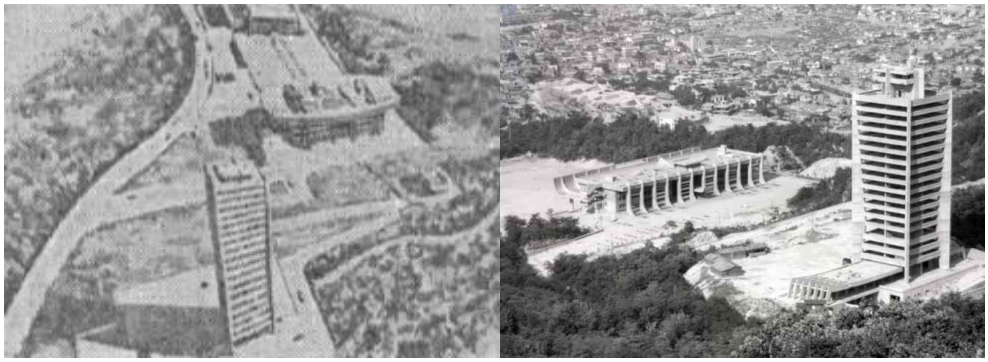
11일~14일=본회의계속(조선호텔), 15일=상오(上午)10시 아세아반공연맹 임시총회 폐회식 ①폐회연설-대회의장, ②연설-내각수반, ③연설 연맹 월남 이사장, 16일=5.16 기념식참석

138) 行動的인 反共戰略討議, 『경향신문』, 1962년 4월 29일

반공연맹 임시총회는 대한민국의 반공의지의 표명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박정희 군부정권의 집권을 알리는 국제행사였다. 국내로는 반공주의를 통한 민족적 통합을 유도하고 해외로는 반공을 위한 강력한 근대 국가 건설 의지표명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반공연맹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닌 주도국의 입장으로 그 설립에부터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위치로 도약하는 기회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반공연맹을 위한 전담시설 건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의욕을 가지고 계획하였으며 워커힐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필두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2년 임시총회에서는 조선호텔이 반공회의 행사의 숙소와 회의장으로 사용되었으며[139] 호텔시설로는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집회공간에는 시민회관, 서울운동장이 사용되었다. 자유센터는 이러한 기능들을 집약하여 본부시설, 숙소시설, 회의시설을 갖춘 3개의 건물과 광장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계획되었다. 1962년 6월 25일 기공하여 1964년 8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하였는데 최초 계획에서의 회의장이 중간에 생략되어 최종적으로 2개의 건물로 구성된 자유센터가 12월 개관하였다. 이중 숙소 건물로 건설된 17층 규모의 고층 건물을 1966년 국제관광공사가 인수 호텔로 개축하여 타워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게 된다.

139) 5月의 素描 (3) 조선호텔, 『동아일보』, 1962년 5월 20일



[그림 3-12] 계획 당시 조감도(좌), 회의장이 생략되어 완공 된 모습(우)

자유센터 건설에는 일반 국민과 여러 단체, 회사의 기부금과 국가자금이 동원되었고 국유지 약 6만평이 무상대여방식으로 확보되었다. 반공이라는 민족적 이념 하에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어 3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공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건설된 자유센터는 반공연맹의 본부와 회의시설, 숙소라는 용도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건설되어 이후 타워호텔이 되는 숙소용 건물은 골조만 완성된 채로 개관하게 된다. 장충단 부지에 건설된 5층 규모의 본관과 6.25동란 때 한국에 파병하였던 16개국에 한국을 포함한 17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140] 17층 규모의 고층빌딩은 남산에 위치함으로써 서울에서 가장 높이 솟아올라있는 건물이 되었다. 그 규모와 높이뿐만 아니라 거대한 노출콘크리트 외벽과 차양으로 이루어진 두 건물은 반공이라는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시설로서 강력한 건축적 힘을 내제하고 있는 시설이었다.

140) 서울에 새로 가장 높은 집, 『동아일보』, 1964년 12월 5일

[그림 3-13] 타워호텔, 자유센터 본관

워커힐 호텔이라는 건축물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도는 주로 미국을 대표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특히 워커힐 호텔이 교외에 자리한 입지적인 특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타워호텔은 그러나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산 정상부에 위치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도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강하게 시각화될 수 있었다. 워커힐과 타워호텔은 모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정당성 확립의 과정 속에서 건설된 건축물로 워커힐 건설의 배경에 경제개발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있었다면 타워호텔에서는 반공과 근대화라는 정치적 요소가 그 배경이 되었다.[141]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특히 박정희 정권기에 건축으로써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정권으로서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례가 없던 대규모의 현대시설은 국제적인 행사에 맞추어 계획과 건설의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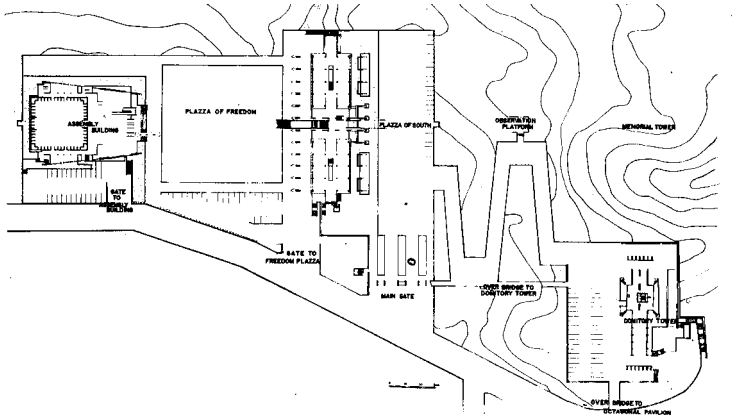
141) 반공센터 건설에 있어서도 반공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박정희 의장의 과거 전력으로 인한 미국의 불신을 일소하고 미국의 마샬 플랜의 충실한 실천자이자 전위부태임을 관시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안창모,「1960년대 한국건축의 반공·전통이데올로기와 모더니티」, 건축역사연구 Vol12 No.4, 2003, p.141

호텔이라는 시설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때 대한민국을 인식하는 창과 같은 공간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타자의 입장에서 숙박공간인 호텔은 공간적 기준이자 중심이 되며 한 국가를 인지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을 건설하는 국가는 호텔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호텔이 유입된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권기인 1960년대 까지 그것은 서구화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 시기 호텔은 근대화 이미지의 표상이상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타워호텔에서는 반공, 워커힐에서는 경제개발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라는 정치적 요소들이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호텔 건설은 군부정권의 안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건축적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

자유센터는 1966년 아주반공연맹 12차 총회에서 아주반공연맹이 세계반공연맹 발족을 계기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되어 그 산하 지역 연맹으로 격하 된 후 건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센터의 숙소로 건설된 고층 건물은 국제관광공사가 인수하여 호텔로 개축, 개관하였다.

타워호텔이라는 시설 자체가 시대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타워호텔이 자유센터의 일부로서 자유센터가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대안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워호텔이 단순히 비어있는 건축물을 차용해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타워호텔이 된 건축물이 이미 반공연맹이라는 국제행사를 위한 숙소 건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반공연맹의 기능이 지속되었다고 하여도 17층의 고층 숙소건물은 국제관광공사에 의해 호텔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워호텔과 자유센터의 사례를 통해서 호텔이 어떠한 의도로 건설되고 이러한 의도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타워호텔의 골조가 완성되

었을 때 붙여진 ‘승공통일’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반공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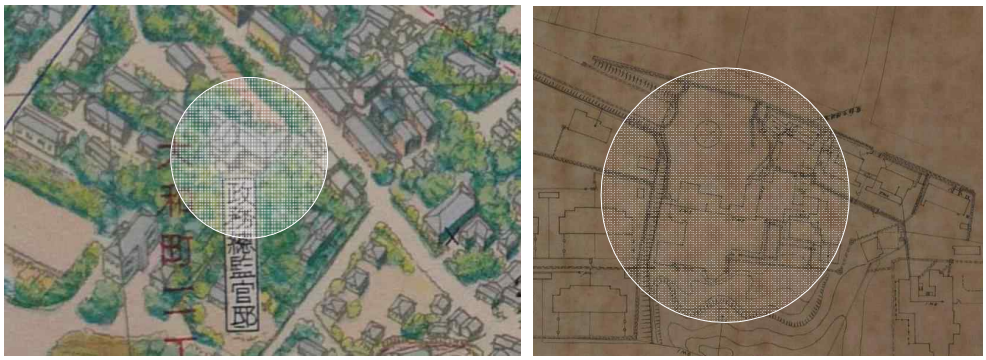
[그림 3-14] 자유센터 배치도

[그림 3-15] 타워호텔의 ‘승공통일’ 문구

3.4 국가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으로써 영빈관 건설

영빈관은 국빈 수행의 목적만을 가진 특수한 숙박시설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국가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로 건설된 호텔과는 차이가 있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남산 영빈관에 경우 호텔을 운영하던 국제관광공사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 후에 민영화 되어 고급호텔 개발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영빈관 기능을 고급호텔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영빈관은 국가마다 국빈 방문에 대비하여 가져야하는 필수적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수립된 이승만 정권에서도 영빈관 시설은 존재하였다. 해방 이후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이 영빈관 기능을 수행 하였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기에는 호텔이라는 명칭에서 가지는 상업시설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 영빈관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였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건설되었던 남산의 구 정무총감 관저가 영빈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3-16] 대경성부대관(1936)의 정무총감관저(좌), 정무총감관저 배치도(우)

그러나 정무총감관저는 일본양식 건물로 건설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영

빈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이에 1957년 1억여 환을 조성하여 새로운 영빈관 건설을 주도하였고 정무총감관저는 한국의 집으로 개수하여 임시 영빈관 및 미군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였다.

영빈관 건설 후보지로 후암동 등이 물망에 오르다 1958년 장충단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4.19혁명이 발생, 건설이 중단되었다. 1964년 박정희 정권에 와서 공사가 재계되어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8개년만인 1967년 2월 개관하였다. 공사가 재계된 1964년에서 1967년까지 3년이나 건설기간이 소요된 것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5동의 건물과 73점의 구축물로 구성된 건평 913평 규모의 영빈관은 창덕궁의 희정당을 본떠 외관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 구성되었으나 내부는 전통적 양식이 가미된 서구적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15개의 샹들리에가 설치되었고 대리석과 실크커튼, 핑크색 양단 등으로 서구 국가의 궁궐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하였다. 거실에서 보이는 정원에는 2개의 팔각정과 인공폭포를 설치하였다. 영빈관은 전체적인 배치와 외관에서는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띄었고 내부에서는 현대설비와 더불어 화려한 서구의 고전적 장식의 사용을 통해 세계보편적인 영빈관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이는 영빈관 시설을 통해 근대화된 선진국가의 모습과 국가의 문화적 전통성을 동시에 드러내려했기 때문이다.

영빈관은 1966년 총무처에서 국제관광공사에 운영권이 이전되어 운영되었다. 영빈관은 수상급 이상의 외국귀빈을 대상으로 하여 국빈만을 손님으로 맞이하였으며 국빈방한과 관련한 연회,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주관 공식연회, 외무장관주관 공식연회 용도로만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 국가시설로 전혀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 공과금 비용 등은 공사가 부담하였고 결손 발생 시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였다. 1967 3월 1일 서독 대통령의 방문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3-17] 영빈관 준공당시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영빈관은 타워호텔, 워커힐호텔, 조선호텔, 반도호텔이 나타내지 못한 국가의 전통적 이미지와 문화를 표현하는 건축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인 영빈관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서구적 장식과 현대식 설비를 통해 발전된 국가로서의 모습 또한 보여주려 하였다. 이러한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의 영빈관 건설은 기존에 영빈관적 기능을 수행하던 호텔들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존속되어 국가 시설로서 사용되던 호텔들이 양식의 문제와 식민지성의 존속이라는 미명 아래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로서의 사용이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Ⅳ. 재벌대기업의 고급호텔 건설과 운영

4.1 워커힐, 영빈관, 반도호텔, 타워호텔 불하
4.2 국가호텔 매입과 고급호텔 건설
4.3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고급호텔 건설

4.1 워커힐, 영빈관, 반도호텔, 타워호텔 불하

4.1.1 워커힐 매각

국가호텔의 민영화는 국가주도의 관광사업이 민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1965년 대구, 불국사, 해운대, 온양, 울산호텔의 5개 지방호텔과 타워호텔을 민영화하였고 민간 호텔과 여행업체가 증가하여 국가기관인 관광공사가 관광사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국가의 관광사업 부흥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국가호텔들이 민간호텔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조선호텔의 수익 향상을 위해 외국호텔 업체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게 되는 상황은 국가호텔 운영의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워커힐의 민영화는 국제관광공사의 운영으로 적자 발생이 지속되고 1967년 영빈관 건설, 1970년 조선호텔 신축에 따라 국제회의 및 국가 행사 유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워커힐은 다른 대규모 도심호텔과 비교해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적자의 규모가 더 컸다.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60년대에 워커힐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개선되기 쉽지 않았다. 더욱이 도심에 새로운 민간 대규모 호텔들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워커힐 호텔의 연평균 객실 이용률은 해마다 감소하여 1970년에는 전년도 보다 11.8% 떨어진 44.4%를 기록하였다.[142] 워커힐 운영이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유엔군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믿고 건설하였기 때문이었다. 워커힐의 이러한 적자운영은 경제개발의 일환으로써 외화획득의 목적보다 건립을 통한 정치적인 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분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호텔의 운영에서 내국인 수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워커힐은 개관 당시 외국인만을 위한 시설을 표방하여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식 리조트형 호텔은 대규모 호텔이 유입된 식민시기를 비롯해 국내에는 건설된 적이 없어 내국인 정서에는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주 고객층으로 삼았던 미군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 또한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었다.[143] 수익 개선의 방법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적자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

워커힐의 적자운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1970년에는 7,172만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한국 관광에 대한 보고서인 카우프만 보고서에서 적자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 시장의 개척이다.[144] 워커힐의 일본시장 개척은

142)「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27
143) 손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p.158

당초 예상했던 미군들의 사용이 저조함에 따른 수익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호텔 운영의 변화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호텔이 건설되었을 때 가졌던 정치적의도의 상징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들을 위한 시설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출하였던 워커힐은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일본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워커힐 건립의 의의가 약화된 것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워커힐을 운영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심의 국가호텔인 조선호텔이 신축됨에 따라 그 유인은 더욱더 사라지게 되었다.

1973년 워커힐은 결국 선경에 민영화된다. 국가는 워커힐 건설을 통해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 워커힐이라는 호텔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국가에 의해 건설된 고급호텔들은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된다.

워커힐 매각 및 개발을 위해 워커힐 인수 2개월 전 선경개발이 설립되었다. 자본 총액 10억 원에 최종건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선경개발은 워커힐의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인 27억 4,200만원에 워커힐을 인수하였고 10억 원은 계약금으로 9억 8,000만원은 은행차입금 승계방식으로 나머지 7억 6,200만원은 한 달 안으로 완납 하였다.[145] 워커힐 매각에는 선경개발 외에도 극동건설이 참여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선경개발로의 매각이 내정되어있다.[146] 공개입찰 전 정부와 기업 간에는 이미

144) 카우프만 모톤 D,「韓國 觀光事業 調査報告書」, 한국 교통부 관광국, 1967
145) 워커힐拂下 27억4천2백만원 鮮京開發,『매일경제』, 1973년 3월 7일
146) 손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p.165

매각 관련 의견들이 결정되었고 이러한 사전모의는 타워호텔, 영빈관, 반도호텔과 같은 다른 국가호텔 매각과정에도 발견된다. 워커힐 매각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보면 정부의 워커힐 매각 의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관광공사, 선경개발 간 매매계약][147]

① 선경개발은 정부의 관광진흥시책에 호응하고, 워커힐 시설을 국내 국제 고위 수준의 관광시설로서 계속 유치 발전시키기 위한 「워커힐 확장 계획서」를 관광공사에 제출한다.

② 워커힐 개발계획을 계약 체결 년에 착공치 않을 때는 계약을 해약한다.

③ 관광공사가 고용한 워커힐 소속 전원을 선경개발이 인수한다.

워커힐 매매계약을 통해서 국가는 워커힐이라는 시설을 단순히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고급호텔로서 그것의 발전과 운영으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워커힐 매각은 호텔이라는 시설의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국가가 고급호텔을 통해 수행했던 기능들을 기업에게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고급호텔로써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재력과 경영능력을 활용하였다. 기업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급호텔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문화적 창으로써 작동하게 되고 이는 60, 70년대 정부의 지원 하에서 급격히 성장한 재벌 대기업이 국가를 인식하는 통로로써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47) 「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46

4.1.2 영빈관 매각

국제관광공사의 적자는 영리 목적의 호텔 수익 악화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영빈관과 같은 수익구조가 없는 국가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더 확대되었다. 총무처 주도로 건설된 영빈관은 완공 이후 총무처가 국제관광공사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사전에 약속된 국가 보조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국제관광공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영빈관은 그 규모가 크고 관리하기 힘든 전통 기와양식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운영, 관리비가 많이 지출되었다. 특히 정기적이지 않은 외국 귀빈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선비 또한 지출되었는데 위탁운영이 시작된 67년 2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약 천여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148] 영빈관은 게다가 점차 사용빈도가 감소하였는데 박정희 정권 초기에 비해 외국 귀빈 방문 이 줄었고 청와대와 중앙청이 위치한 서울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정부의 사용도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영빈관은 총무처에서 결손액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위탁운영이 계속 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여 국제관광공사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끼쳤다. 외국 귀빈 접대와 관련해서 외무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관리하기 어려운 영빈관을 어느 부서에서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관광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영빈관은 25개의 대소거실, 500여 점의 가구 1,000여 그루의 고급 정원수 등이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결국 영빈관은 72년 총무처로 다시 반환되었고 이듬해인 73년에는 영빈관 불하가 결정되었다. 영빈관과 인근 국유림을 포함한 약 2만 7천여 평을 국세청이 공매를 냈고 예상가격은 28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공매대상은 모두 국유재산으로 연건평 1,097평의 영빈관 건물과 중구 장충동

148) 政府補助키로 迎賓館缺損 천만원, 『매일경제』, 1967년 12월 5일

2가 임야 27,600평, 집기와 비품류 2,046점, 관상수 43,215 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49]

영빈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삼성그룹의 주식회사 임페리얼에 28억 4,42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 입찰에는 정우개발과 삼성그룹 2개의 업체만이 참여하였으며 정우개발은 25억 원을 써냈다. 워커힐 매각과 마찬가지로 입찰 전 이미 삼성그룹과 정부 간의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다.[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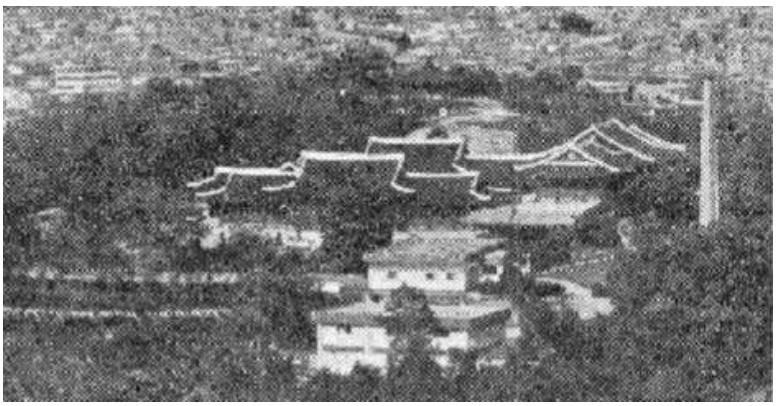
영빈관 매각은 워커힐, 타워호텔, 반도호텔과 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던 국가호텔 매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빈관은 수익성이 없었으며 그 용도가 국가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완전한 국가시설이었기 때문이다. 70년대 국가호텔 민영화 추세에 맞추어 영빈관 또한 민영화된 것은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영빈관이 국제관광공사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총무처 소유로 건설되었지만 다년간의 호텔 운영 경험을 가진 국가 산하 기관에 운영이 넘겨진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비록 영리목적은 아니었으나 고급호텔의 기능과 영빈관의 기능은 유사하였으며 외관은 비록 전통양식이었으나 내관은 고급호텔의 서구적 고전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빈관 시설은 그 건립목적에서 보면 국제관광공사에 의해 운영될 시설은 아니었으나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총무처 소유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지만 영빈관의 위치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66년 타워호텔을 국제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영빈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고 이에 따라 타워호텔 운영부서에서 영빈관을 관리하였다.[151] 영

149) 영빈館 拂下 公賣公告, 『동아일보』, 1973년 6월 26일
150) 「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128

빈관이 불하된 지 5년 후인 1978년 청와대 부지에 청와대 영빈관이 건설되어 외국 귀빈의 공식적 방문의 연회와 숙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4-1] 청와대, 청와대 영빈관(좌측 회색 건물) 전경



[그림 4-2] 남산 영빈관 전경

국가시설로써 영빈관의 기능이 축소된 것도 영빈관 불하의 원인이 되었다. 1970년 조선호텔이 도심에 신축되어 최신식 호텔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가 귀빈을 접대하는데 자주 사용될 수 있었다. 영빈관은 도심에서 멀어져있었기 때문에 국가 귀빈 접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힘들었으며 이는 남산 영빈관이 기능에 대한 엄밀한 고려보다는 건축적 상징물로써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51)「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영빈관은 삼성그룹에 매각되어 73년 8월 3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그릴, 칵테일 라운지,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152] 이는 호텔 건설 전에 대중들에게 영빈관이 민영화되어 영빈관의 품위를 잇는 고급호텔의 건설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 워커힐의 사례와 같이 정부와 기업 간에 신규 호텔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영빈관 불하가 이루어졌다.

남산 영빈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호텔에서 원수를 머물게 하는 것은 국가 위신이 서지 않으며 호텔은 너무 서구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국 양식의 집으로 된 공식적인 국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주장 하에 건설되었다.[153] 그런데 이러한 영빈관이 용도 폐지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고층 호텔이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의 전통적 문화를 나타내는 영빈관의 기능 또한 기업의 호텔로 이전된 것임을 의미한다. 영빈관 불하를 바탕으로 건설된 신라호텔에 전통적 양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과거 장충단, 박문사가 있던 남산 부지에 국가 영빈관과 반공센터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공간화로 이해해볼 수 있다. 남대문 안쪽 회현동 일대의 남산서측은 이승만 정권기의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이승만 동상, 국회의사당 계획이 세워졌다. 이후 이 일대는 박정희 정권기에 와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 형성으로 탈바꿈한다. 청와대와 중앙청으로 대표되던 북한산에서 광화문으로 내려오는 정치적 공간은 시각적으로 폐쇄되어있는 청와대 특성상 시각적 상징으로서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었다. 남산 영빈관과 반공센터 건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공간으로써 남산이라는 시각적 가시성이 뛰어나며 이

152) 迎賓館일반 公開 호텔건설에앞서, 『경향신문』, 1973년 8월 3일
153) 이용선, [건설반세기] 천호동 청기와로 덮은 영빈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저널, v. 32(2003-12), p.75

전 정권의 상징적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빈관과 반공센터 건설은 국가정권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의 형성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빈관 민영화와 타워호텔 민영화는 단순히 호텔이라는 시설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의 공간을 기업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권력이 시장 권력으로 이전되고 근대화와 국가발전의 과제가 국가에서 기업의 것으로 이전되어가는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

4.1.3 반도호텔 매각

69년 국제관광공사의 미수금은 6,182만원 외상매출금은 1억 1,800만원으로 총 1억 7,986만원에 달하는 외상채권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반도호텔은 도심호텔로 정부 기관의 잦은 사용에 따라 3,688만원의 순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다. 반도호텔은 교통부 운영에서 국제관광공사로 이전되었을 때에도 중앙행정기관들의 사용이 빈번함에 따라 각 기관의 미납 외상금이 많이 쌓여있었다. 이는 국가가 호텔을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을 한 결과 입지적으로 유리하고 다수의 현대식 객실을 가진 반도호텔도 적자 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조선호텔 신축에 따라 반도호텔은 최신식 설비를 가진 고층 호텔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조선호텔 신축은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반도호텔의 입지는 을지로 대로변에 면하여 현대적 도시풍경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되어야하는 자리였다. 반도호텔 매각은 도심 호텔의 매각과 신규개발을 통한 현대도시 모습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측면

에서 워커힐, 영빈관 매각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시의 신도시계획법 상 재개발사업은 층수가 낮고 건물이 낡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물이 붙어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는 지역,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해질 염려가 있는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도호텔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될 수 없었으나 고층 호텔 건물 건설을 위해 특정정비가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154]

반도호텔이 매각되기 1년 전인 1973년 롯데그룹이 호텔 사업을 위해 신청한 외국인 투자 및 차관 인가신청서가 경제기획원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의결로 통과되었다. 롯데호텔은 일본롯데로부터 3,000만 달러의 투자 및 1,800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일대 호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155] 그 해 5월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설립되었고 8월에 반도호텔 부지가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이 확정된 이후 반도조선아케이드 입주민들과 반도호텔 직원들의 반발이 일어난다. 반도조선아케이드는 1965년 건설된 이후 1970년 1월 화재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5층으로 증축되어 반도아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재개장 하였다. 새롭게 건설된 반도아케이드는 3년이 채 되지 않아 롯데호텔 건설로 철거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롯데호텔 건설은 반도아케이드 상인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워커힐의 경우와 다르게 반도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하기 때문에 기존 반도호텔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했다. 워커힐의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을 모두 수용하였고 조선호텔의 경우에는 신축이후에도 국가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도호텔은 1974년 6월 공개경쟁입찰에 단독응찰 한 호텔롯데가 41

154)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 2003, pp.256-258
155) 外資導入 심의委 롯데,36層 호텔 건립 借款·外人投資 6,400만불,『경향신문』, 1973년 4월 25일

억 9,800만 원에 낙찰되었다.[156] 반도호텔 부지는 대지 1,836평에 건평 6,161평이었으며 반도호텔 건물은 8층에 111개의 객실을 보유하였고 283명의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롯데는 낙찰금에 추가적으로 종업원들의 퇴직금과 반도조선아케이드 상인들의 상권 보장을 약속한 후에야 롯데호텔 개발을 시행할 수 있었다.[157]

반도호텔 매각을 시작으로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 부지 또한 롯데 측에 매각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일반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롯데가 8억 3,600만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도서관은 정부가 남산 어린이회관을 8억 4,600만원에 인수한 후 이 건물에 도서관을 이전 개관하였다. 또한 서울은행 소유지 310평과 그 곳에 위치한 동국제강(주) 5층 건물, 신격호의 둘째동생인 신춘호 롯데공업(주) 사장이 소유하였던 반도호텔 서편의 424평 대지와 그 곳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 아케이드 부지 중 반도호텔 후면의 145평, 반도호텔과 산업은행 사이의 일반 민간소유지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매입하여 서울 도심에서 확보하기 힘든 거대한 단일 필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158]

반도호텔 민영화는 근대국가 형성의 주체로서 기업의 등장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국가 주도하의 재개발 사업에는 점차 민간 자본의 투입이 이루어졌고 정부는 도시개발의 완성도와 지속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과 결부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고급호텔은 근대국가로써의 모습이 보여 지는 창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근대국가의 도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시설이었다.

156)「半島」롯데에 팔려,『매일경제,』1974년 6월 5일
157)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 2003, p.247
158)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 2003, pp.251-254

4.1.4 타워호텔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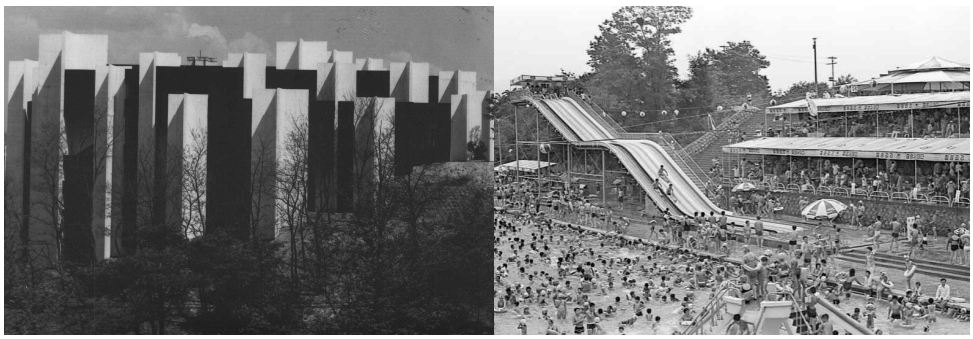
타워호텔은 자유센터의 숙소로 건설된 건물을 국제관광공사가 인수하여 호텔로 개조한 후 개관하면서부터 호텔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관하자마자 타워호텔은 적자운영을 기록하게 되어 국가에 의해 여러 특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계속되었다. 이는 남산 정상부라는 호텔의 입지가 불리하여 도심의 민간호텔과의 경쟁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다. 타워호텔은 호텔건물로 구조가 부적당했고 은행융자의 금리가 연간 6,848만원에 이르렀으며 연회장, 집회장, 오락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68년 한해 적자만 1,2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타워호텔은 남상옥이라는 중구 남창동에 거주하는 무역업자에게 7억 3,700만원에 낙찰되었다. 남상옥이라는 인물은 널리 알려진 재벌은 아니었으나 5.16혁명의 민간주체로 단 2명만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승리하여 타워호텔을 매입할 수 있었다. 타워호텔의 불하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로 불하가격이 헐값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2만 9,540 평의 대지와 17층 건물이 적어도 10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7억 원 대에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7월 1일 개관 후 몇 개월간은 흑자를 올렸음에도 불과 2개월만인 동년 9월 4일 제4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호텔이 공매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남상옥과 함께 응찰했던 김구현씨도 남상옥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59]

타워호텔은 민영화된 이후 기존에 부족했던 위락, 오락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1969년에는 타워호텔과 자유센터를 설계하였던 건축가 김수근이 해피 홀이라는 이름의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회의시설, 예식장 등을 운영하였고 야외수영장을 건설하여 많은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159) 개운찮은 타워호텔 拂下, 『동아일보』 1968년 11월 16일

하였다.



[그림 4-3] 타워호텔 해피홀(좌), 타워호텔 야외수영장(우)

4.2 국가역할의 이전으로써 재벌대기업의 고급호텔 건설

국가에 의해 건설, 운영되던 호텔이 민간으로 불하된 것은 더 이상 국가행사 수행과 외국의 귀빈 접대와 같은 국가적 기능이 국가에 의해 직접 관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워커힐, 반도호텔, 타워호텔, 영빈관의 불하는 국가의 외교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고급 숙박시설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기능을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였던 기업은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국가호텔들의 불하로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텔은 조선호텔이 유일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마저도 웨스턴 호텔체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995년 신세계에 매각됨으로써 국가의 호텔 운영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국가호텔의 민간 불하는 60년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 국가가 관리하던 지방의 소규모 호텔들은 그 이전에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서울의 고급호텔들은 여전히 국가의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긴 시간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다. 특히 73년에는 영빈관, 워커힐, 반도호텔의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불하할 기업이 정해졌다. 이렇게 한 시점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호텔을 일괄적으로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호텔의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공개 입찰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사전 논의를 통해 입찰자가 결정되었다는 점[160], 또한 같은 시기 매각임에도 영빈관, 워커힐, 반도호텔 매입에 참여한 삼성, 선경, 롯데 그룹이 서로 충돌하지 않은 점, 비슷한 시기 프라자 호텔을 건설한 한화,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건설한 이상순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국가호텔은 민영화와 함께 국가호텔을 바탕으로 한 신규호텔 개발계획까지 국가에 의해 조율된 후 불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호텔의 민영화는 기업을 통해 국가가 필요한 호텔 시설들을 확충하고 그를 통해 국가의 외교적 기능을 더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정부가 호텔을 민영화한 이유는 고급호텔의 2가지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산업, 상업적 측면에서의 고급호텔, 다른 하나는 국가적 기능, 상징적 기능의 수행으로써 고급호텔이다. 박정희 정권기 호텔의 건설과 운영은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획득이라는 대의적 명분아래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써 건설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관광산업이 점차 민간부분으로 넘어가고 국가에 의한 호텔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 산업, 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게 운영과 개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호텔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근대국가형성, 정권의 정당성 획득, 민족적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160) 이는 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 한울, 2003.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입찰가가 매각 예상 금액과 거의 비슷한 점, 신규 건설 약속을 전제로 매각된 점 등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적 상징물로써 건설되었다. 또한 고급호텔은 국가의 모습이 투영되는 창으로써 근대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통로였다. 정치적 의도 하에 건설된 호텔들의 상징적 기능은 그것이 건설된 직후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후 운영은 자본주의적 논리 하에서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 정권이 안정화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호텔이 변화되면서 호텔은 국가적 상징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 변모하였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과거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교적 역할로써 국가의 기능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의 신용도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당시의 경제적 구조와 연관이 있다.

국가호텔들은 국가의 경영능력의 부족과 관광사업 진흥과 수익확대를 위한 민간호텔과의 경쟁이라는 이중적인 위치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영빈관, 워커힐, 타워호텔은 정확한 시장분석의 결과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목표로 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호텔의 매각은 박정희 정권 초기 호텔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 획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추구의 목적이 우선시되고 고급호텔을 통한 외교적 기능 또한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호텔	매각금액	평수	매입주체
타워호텔	7억 3,700만원	2만 9,540평	남상옥
워커힐	28억 4,420만원	15만 9,000평	선경
영빈관	27억 4,200만원	2만 7,000평	삼성
반도호텔	41억 9,800만원	1,836평	롯데

[표 4-1] 국가소유 호텔 매각 금액, 규모, 주체

매각된 국가호텔 중에서 반도호텔이 41억 9,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에 매각되었다. 롯데호텔 건설은 반도호텔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과 인근 사유지, 이후 산업은행 부지까지 매입하여 진행되었는데 당시 이정도 규모의 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일본기업인 롯데가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반도호텔 부지는 대지의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도심부 입지 덕분에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워커힐의 경우 면적 대비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이는 반도호텔의 경우 오랜 기간 고급호텔의 입지로써 증명이 된 반면 워커힐, 타워호텔, 영빈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국가호텔, 영빈관이 기업에 매입된 후 어떠한 호텔로 변형되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이전 국가호텔의 입지, 기능, 건축적 특성 그리고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특성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4.2.1 선경그룹의 워커힐 매입과 운영

선경의 워커힐 매입은 호텔의 수익성 향상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호텔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수익상승을 위해 워커힐에 대규모 고층 건물을 건설하여 규모를 확장하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심이 아닌 교외에 위치하고 시설과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의 일환으로 호텔 프렌차이즈 업체인 쉐라톤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위탁 운영 체제는 신규 호텔 건축에 있어서도 호텔 프렌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세계 보편적인 디자인의 적용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워커힐이라는 외국인 전용의 교외 호텔로서의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고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하여 내국인을 위한 시설을 확

충하고 전통민속행사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써 호텔운영의 수익 증대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고급호텔은 수익창출 외에도 기업에게 있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었다. 먼저 고급호텔은 건축물의 형태와 내부 장식이 호화스러운 고급시설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상의 가치로 인지되었다. 워커힐 인수는 워커힐 매매가격의 수치 이상의 의미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이는 호텔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워커힐 매각당시 선경그룹의 선경직물이 2,900만 달러 선경합섬이 1,400만 달러의 수출 성적을 올리는 그룹이었으나 국내의 인지도는 그에 비해 낮았다. 이는 선경의 산업이 섬유, 화학에 치중되어 있었고 다른 대기업에 비해 기업 PR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161] 이 때문에 선경이 워커힐을 인수하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대중들이 선경 기업의 재력과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62]

워커힐 불하는 선경의 재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워커힐 인수는 당시 한진그룹으로 잠정 결정이 나있었지만 선경과의 밀월관계에 있던 군부 최고 실세 이후락의 영향으로 선경으로의 매각이 결정된다.[163] 선경은 워커힐 인수를 시작으로 1980년에는 공기업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여 5대 재벌그룹으로 도약하는데[164] 선경의 호텔 사업 시작은 국가의 역할을 기업이 인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의 당시 경제구조를 보여준다. 기업의 고급호텔 인수와 건설은 국가의 역할을 기업이 수행하면서 기업이 단순히 소비재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

161)「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46
162)「변화와 혁신으로 성장한 60년의 비상 : SK 60년사 : 1953-2013」㈜사사연, 2013
163)「변화와 혁신으로 성장한 60년의 비상 : SK 60년사 : 1953-2013」㈜사사연, 2013
164) [한국 재벌의 탄생과 세습 ④] 이후락과 노태우가 아꼈던 SK, 특혜와 횡재로 성장… 10배 넘는 유공 인수 여전히 미스터리,『미디어오늘』, 2015년 9월 12일

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조직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호텔건설은 단순히 수익성 향상의 차원에서만 살펴볼 수 없으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물리적, 시각적으로 건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규호텔 건립

워커힐 매매계약 체결당시 신규호텔 건설은 정부의 워커힐 불하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500객실 이상의 신규호텔을 매매 당해 연도에 착공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선경개발은 1,000실 이상의 객실과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컨벤션 센터, 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을 세우고 부대시설로 종합오락센터를 건설하려는 거대계획을 세웠다. 신규호텔은 기존 테니스장의 2,000여 평 대지에 지상 25층 연건평 3만평의 초현대식 객실 1천실 규모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규개발사업은 선경합섬의 합작회사인 일본의 데이진(帝人), 이도쭈(伊藤忠)사와의 합작추진과 함께 진행되었다. 객실을 포함한 호텔 건물 외에도 50만평의 골프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등이 계획되었다. 신규호텔의 설계는 데이진의 의견에 따라 일본의 이시모도 겐모찌(石本 檢持) 건축이 선정되었다.[165]

당시의 계획도를 보면 초대형 호텔 건물이 한강을 향해 곡선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자연 지형을 반영한 곡선 형태로 건물을 구성하여 리조트형 호텔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강으로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본관 건물과의 조화보다는 더글라스 하우스와 같은 빌라형 건물들과의 관계를 더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165)「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p.183-184

본관 건물과 중정을 두고 떨어져있었으며 1,000개의 객실을 수용하기 위해 초고층이 아닌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림 4-4] 워커힐 신규호텔 개발계획

그러나 건설계획은 제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고 선경그룹의 창업자 최종건 회장이 그 해 11월 작고함에 따라 전면 수정되었는데 특히 일본 정부가 석유 파동 이후 민간자본의 해외투자와 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작투자가 무산되어 계획은 장기 지연되었다.

76년 계획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합작투자의 무산으로 건설규모가 줄어 22층의 526객실의 호텔건물과 극장식당, 종합식당가, 쇼핑센터, 카지노 등의 부대시설이 계획되었다. 이시모도 겐모찌사의 73년 계획을 기본구조로 서울건축기술연구소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계획하였다. 총 건설투자액 124억 원은 내국인 투자 분 30억 원, 외국인 투자 분 24억 원, 은행융자 70억 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외국인 투자분은 홍콩의 International Trading Company에서 조달하였다.[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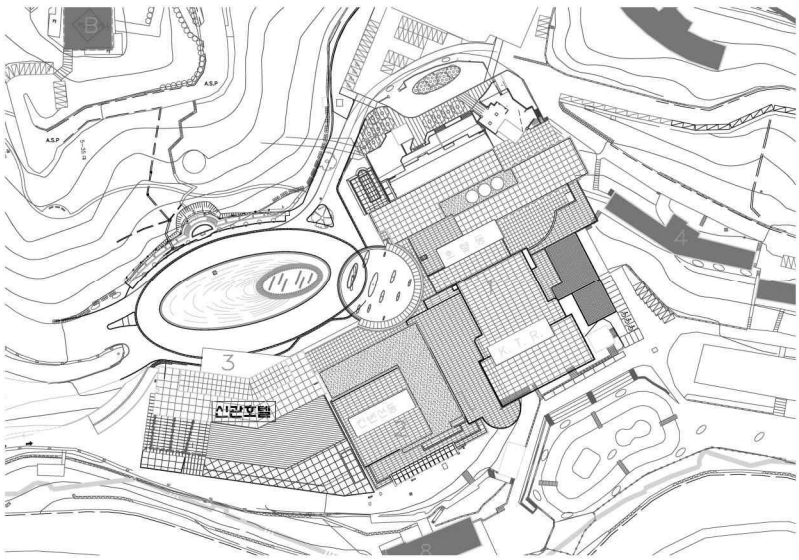
166) 「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88

[그림 4-5] 실행된 워커힐 개발계획

기존 개발계획과 같이 신축건물은 본관 뒤에 위치한 테니스장과 야외 수영장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본관과의 연결을 위해 저층부에 부대시설이 위치한 건물을 건설하였다. 객실 수가 줄어 건물 규모가 축소되어 판상형의 긴 건물이 아닌 일반적인 고층 건물의 비례를 가진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외관에는 적색타일이 사용되었으며 창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무겁고 폐쇄적인 느낌을 형성하였다. 외벽에 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 설계, 시공회사 및 호텔 회사가 호텔건설에 참여하였을 때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비슷한 시기 건설된 신라호텔, 프라자호텔에도 외벽에 타일이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 일본의 고층 호텔에는 다양한 종류의 타일이 사용되었다. 일본업체와의 협력은 일본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1971년에는 일본시장이 미주시장을 앞지르게 되어 일본 시장 의존도는 42%, 미주시장 의존도는 25%를 기록하였다.[167] 이러한 추세는 미국식 리조트형 호텔로 건설된 워커힐의 본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67) 「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pp.6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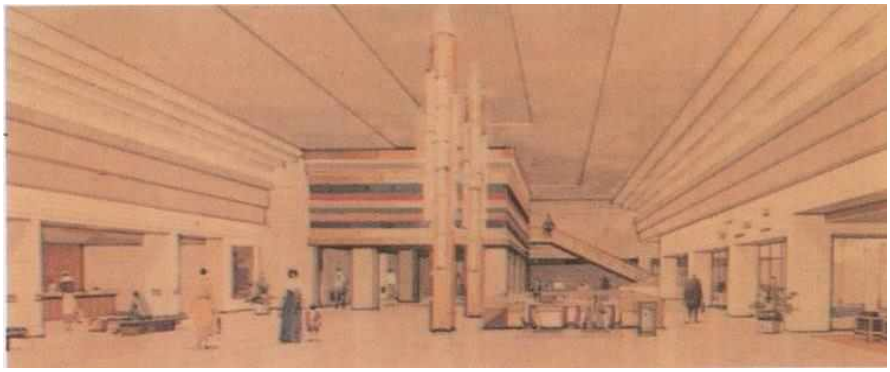
워커힐의 신축 건물은 기존 본관 건물 바로 뒤가 아닌 옆에 위치하였고 저층부에 부대시설이 포함된 공간이 형성되어 이곳에 기존 구관과 연결되었다. 1층에는 로비가 배치되었고 구관건물과는 지하층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졌는데 지하층에는 카지노, 나이트클럽, 쇼핑상가, 가야금극장 식당이 배치되었다. 구관건물의 바로 뒤나 바로 옆이 아닌 현재 위치에 신축건물을 건설한 것은 분산 배치된 워커힐 시설의 구심점이 되기 위함이었다. 2004년 워커힐 호텔 부지에는 W호텔이 신축되었는데 가장 좌측의 건물이 W호텔이며 가운데가 1963년 건설된 본관 건물, 그 우측에 있는 건물이 쉐라톤 워커힐 신축 건물이다. 기존 본관건물 주변과 달리 명월관, 빌라건물, 더글라스 하우스, 힐탑바 등 부속건물 주위에는 새로운 시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는 부속건물을 유지함으로써 워커힐이 가졌던 국가호텔로써의 권위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본관건물과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호텔을 건설하려는 2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림 4-6] 워커힐 배치도

건설공사 중이던 1977년 11월 워커힐은 쉐라톤인터네셔널과 프랜차

이즈 계약을 맺게 된다. 외관 공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없었으나 실내구조 및 장식을 쉐라톤식의 의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쉐라톤의 디자인을 도맡아 진행하던 하워드 허시 앤드 어소시에츠(Howard Hirch and Associates)사가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층 로비 디자인과 스카이라운지의 디자인을 전면 개조하였다.[168]



[그림 4-7] 워커힐 로비 계획 투시도

쉐라톤의 호텔 디자인을 담당하던 디자이너의 참여는 조선호텔에서 서양의 호텔 장식들을 재현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볼 수 있다. 쉐라톤 체인이 가지고 있던 호텔의 세계 보편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기존의 로비 디자인은 동양적 색체의 사용과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단조로운 형태의 벽면과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변경된 로비 디자인은 자연의 생명체를 모티브로 한 장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거대한 기둥은 나무줄기와 해바라기를 연상시키는 목재 장식이 덮여 그 웅장함이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장식 외에도 인공 폭포를 벽면에 설치하고 여러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숲속을 연상시키는 로비공간을 구성하였다.

168) 「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p.190

4.2.2 삼성그룹의 영빈관 매입과 호텔신라 건설

삼성그룹의 영빈관 매입은 워커힐의 경우와 같은 기존 호텔 운영 개선의 측면보다 신규호텔을 개발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차원의 사건으로 보인다. 영빈관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국가시설이었기 때문에 고급호텔이 오랫동안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장소적 성격이 없었다. 이는 워커힐, 반도호텔, 조선호텔 부지에 신규호텔 건설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그룹이 영빈관 매입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1973년 영빈관을 정비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66평의 칵테일라운지와 그릴, 100명 수용이 가능한 대연회장, 20명 수용이 가능한 중, 소연회장 5개를 개관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라운지에 결혼식장을 개장하였고 61.7평, 183개의 좌석을 갖춘 예식장을 구성하여 당시 최고급 예식장으로 사용되었다. 영빈관 영업은 개관한 당해 연도 4개월 실적이 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였는데[169] 이는 영빈관 시설이 국가적인 고급시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규호텔 건립

호텔신라의 호텔 건설은 워커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최신식의 현대적 설비를 가진 대규모 호텔 건설을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상의 목적은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워커힐과 호텔신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수한 시설의 성격 차이이다. 워커힐 개발이 기존 워커힐 시설을 바탕으로 이를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호텔신라에서도 영빈관 시설과 녹지공간들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형태로 호텔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69)「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131

워커힐에서 쉐라톤 호텔 체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세계 보편적인 디자인의 호텔을 건설하고자 하였다면 호텔신라에서는 일본의 호텔 체인인 호텔오꾸라와의 제휴를 통해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호텔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호텔오꾸라는 일본에서 일본의 전통적 양식의 이미지와 서구적인 현대적 감각을 조화하여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였다. 호텔신라는 처음부터 '한국적인 건축미와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성의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텔 개발계획을 실행하였다. 호텔신라의 개발과정에 대한 기록에서는 당시 삼성그룹의 회장이던 이병철 회장의 개인적인 선호와 한국을 대표하는 애국기업의 호텔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 한국적인 색체를 가진 호텔을 건설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70] 이러한 기록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국가시설을 인수한 호텔개발의 경우 국가와 기업의 매입계약은 신규호텔 개발약속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가정부가 그리는 신규호텔 개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워커힐 인수를 통해 건설한 쉐라톤 워커힐, 반도호텔 인수를 통해 건설한 호텔롯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영빈관을 불하하여 삼성그룹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였던 호텔은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서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호텔이었다. 이러한 국가정부의 의도와 기업 총수의 의도가 만나 신라호텔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호텔로 건설되게 된다.

170)「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그림 4-8] 도쿄 호텔오꾸라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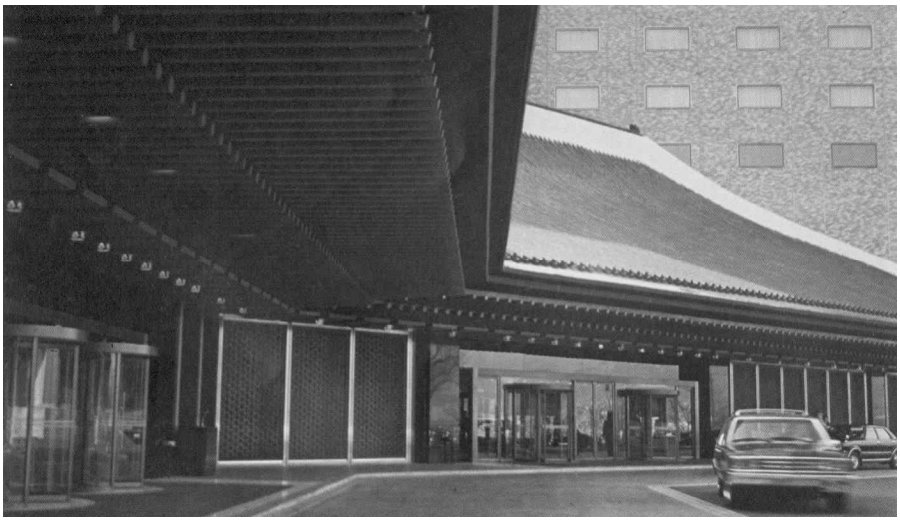
호텔개발을 진행하는 호텔신라 입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 기업 총수의 의견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디자인 양식을 사용하여 현대식 호텔을 건설한 바 있는 일본의 업체인 호텔오꾸라와의 협약을 통해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호텔신라의 명칭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드러난다. 최초 개발 당시 ㈜임페리얼이라는 명칭의 회사를 세운 것은 신규호텔을 제국호텔이라는 뜻의 임페리얼 호텔로 명명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호텔오꾸라 측과 경쟁하는 일본의 제국호텔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선택되지 못하였다. 이후 호텔 리(lee), 가든, 호텔신라의 3개 명칭이 제안되었고 이중에서 호텔신라가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었다.[171]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최초 명칭을 보면 영빈관 매입단계에서 계획한 호텔은 한국적인 건축미를 가진 호텔신라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이후 호텔신라로 호텔 명칭이 바뀌고 호텔오꾸라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지닌 호텔 건설 계획으로 변경된 것은 국가정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은 것

171)「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42

으로 보인다. 특히 영빈관에는 신라 시대 화랑 모습을 본 뜻 동상이 설치되는 등 고대 신라국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활용되었는데 호텔신라는 영빈관이라는 기존 시설 성격의 관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라는 명칭에 대해 「호텔신라 二十年史」에서는 신라가 서울이라는 명칭의 유래이며 문화사업의 하나인 호텔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호텔로 신라라는 명칭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적고 있다.[172] 그러나 이보다는 당시 국가정부의 의견과 영빈관이라는 시설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명칭뿐만 아니라 호텔신라의 건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호텔신라의 건물은 비슷한 시기 건설된 쉐라톤 워커힐, 프라자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호텔롯데 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객실이 수용되어 있는 고층 판상형의 본관 건물은 갈색의 타일로 외벽이 장식된 전형적인 호텔 메스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저층부 로비의 기와지붕과 내부의 한국적 색체의 장식들은 비슷한 시기 건설된 고급호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었다.



[그림 4-9] 호텔신라의 저층부 로비지붕의 모습

172)「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42, p.138

호텔신라의 설계는 일본의 竹中公務店과 대성건설(大成建設) 두 회사가 맡게 되었는데 대성건설은 건축, 설계, 가구, 조명을 맡았고 竹中公務店에서는 구조 및 인테리어를 맡아 대성건설(Taisei), 竹中公務店(Takinaka)의 영문 첫 글자를 딴 T·T 팀이라는 이름의 합동 설계팀이 구성되었다. 한국의 박춘명건축설계사무소가 합동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의 건축 및 미술분야의 권위자 14명이 호텔신라 건설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정인국(계획, 홍익대 교수), 김형걸(구조, 서울대 교수), 홍사천(재로시공, 한양대 강사), 김효경(위생공조, 서울공대 교수), 지철근(전기, 서울공대 교수), 김세중(미술, 서울미대학장), 배만실(실내장식, 이대 교수), 문학진(서양화 화가), 최순우(미술사,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종성(고고학, 중앙일보기자), 김용모(호텔신라 상무)가 참여하였다. 호텔오꾸라, 호텔신라, 합동설계팀과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기본적인 구상을 정하였다.[173]

[호텔신라 인테리어 기본구상][174]

① 인테리어: 기본방향은 신라 풍으로 한다.
② 업장: 중국요리, 일본요리 등의 업장은 각기 그 요리의 본고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구상한다.
③ 객실: 일반객실의 내장은 고전과 현대의 절충식으로 하되 고급객실은 고전식으로 한다.
④ 연회장: 신라의 분위기를 나타내도록 구상한다.
⑤ 로비: 한국적인 정취가 풍기도록 하되 차갑지 않고 따스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호텔신라 설계 기본방침][175]

173)「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142
174)「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156
175)「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p.157

①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의 호텔로서 한국의 전통양식, 특히 신라의 것을 현대의 공간과 조화시켜 국제적인 호텔로 기획한다.
② 영빈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현관부분에는 한국의 고전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전체 건물형태는 3개의 판상형으로 한다.
③ 로비는 웅장하고 넓은 공간으로 강한 인상을 주도록 한다.
④ 부지의 특질을 살려서 수려한 정원, 숲속으로 통하는 산책로 등의 자연적인 경관을 최대한 조성한다.
⑤ 규모는 우선 738유닛에 672실로 하고 장래 다시 객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 유의한다.
⑥ 지하 3층, 지상22층으로 하되 전내부를 카펫, 대리석의 조화로 장식하고 외벽은 고급타일로 마감한다.

호텔신라에서는 영빈관과의 관계가 많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영빈관과 신규호텔 건물 사이를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로비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비 현관의 지붕은 거대한 청기와로 제작되어 영빈관 건물의 기와지붕과 시각적, 공간적 통일감을 형성한다. 일본 측 설계자들로 구성된 호텔신라 설계, 시공 팀에서는 한식의 기와지붕 설계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한양대 장기인 교수가 기와지붕 작업에 참여하였다. 울산제와에서 제작과 시공을 맡아 콘크리트 지붕 위 388평의 경사면에 청기와가 설치되었다. 또한 현관로비의 천정은 참죽나무를 사용하여 공포모양으로 꾸밈으로써 전통 목조 건물의 처마 느낌이 나도록 구성하였다.

호텔신라라는 명칭에 맞게 호텔 안에도 신라 혹은 한국의 전통적인 색체를 가진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3층 높이의 로비 내부에는 국산 화강석으로 벽이 장식되었고 8각의 석재기둥을 설치하여 웅장함과 동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신라시대의 보상화(寶相華)가 수놓아진 카펫이 설치되었고 메인로비의 샹들리에는 전통 요대를 모델로 하여 제

작되었고 신라시대의 당초문양을 본뜬 금속 장식으로 꾸며졌다. 이외에도 임금이 쓰던 면류관과 무궁화의 모양을 차용한 라운지 샹들리에, 로비벽면의 와당무늬 조각, 현관입구의 창호문살, 2층 로비 천정의 우물천정, 라운지의 무궁화 자수 등은 한국적인 색체를 내기 위한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4-10] 8각 석주, 샹들리에가 있는 호텔신라 로비

호텔신라의 한국적 장식과 전통적 건축형태 사용의 의미는 호텔이 담고 있는 기능과 그 기능에 따른 문화와 연관시켜서 살펴보아야 한다. 호텔신라를 소개하고 있는 문구 등에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 신라시대의 전통적 가치의 계승과 같은 미사여구 등은 호텔신라를 구성하는 일부의 시각적 디자인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적 호텔을 표방하는 호텔신라에서도 그 시설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구의 현대적 호텔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호텔에 존재하는 중식당, 일식당, 양식당, 카페, 라운지, 바들은 모두 서구의 고전적 장식이나 현대적 감성의 장식들이 사용되어 꾸며져 있다. 또한 호텔을 대표하는

여러 고급객실은 유럽풍의 화려한 고전적 장식들로 꾸며져 호텔신라라는 명칭과 한국적 장식들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호텔신라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한 호텔로 그 정체성이 형성됨으로써 호텔신라만의 개성과 대중들의 호의적 시선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호텔이 한국적인 감성과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전통 목조건물의 외관을 한 영빈관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양식의 결혼식을 위해 공간적으로 재편되어 서양식 정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서양식 웨딩, 칵테일 파티와 같은 서양문화가 재현된다. 기와지붕을 가진 로비에서는 유럽식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들을 맞이하며 한복을 입은 손님의 출입은 암묵적인 룰 안에서 금지되고 있다. 내부의 한국적 장식들은 호텔의 내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며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식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용이 지양되어 현재의 호텔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후 건설된 호텔 시설에서는 완전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진다.

[그림 4-11] 현재 호텔신라의 로비 모습(좌), 새롭게 건설된 야외수영장(우)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호텔신라의 기존호텔과는 다른 건축적 형태와 장식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추측해볼 수 있다. 언급한바 있듯이 호텔신라는 국가정부에 의해 영빈관과 같은 기능의 한국적 호텔 건설이 유도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색체를 가진 형태와 장식은 국가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존 호텔이 가지는 서구적, 현대적 감성의 고급성을 해치지 않는 방

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국가정부에 의한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그 내심에는 현대식의 최고급호텔을 지양하였기 때문에 이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국적 색체는 더욱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빈관과의 조화는 영빈관을 인수하여 영빈관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고급시설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의 한국적 호텔 건설이라는 개발방향은 상업적 측면도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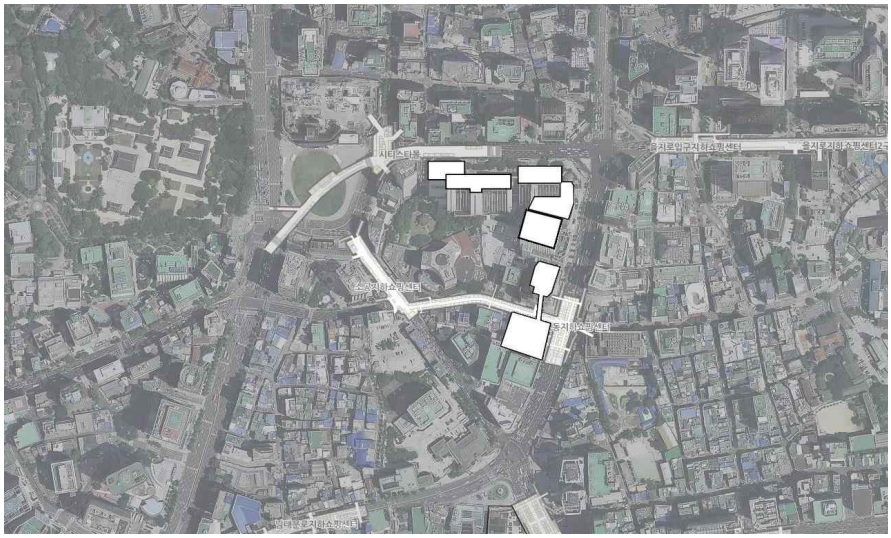
이러한 고급호텔 구성방식은 조선호텔에서 황궁우와의 관계 고려를 통해 전통적 문화유산을 시각적 피조물로 봄으로써 디자인의 한 요소로써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한국적 문화를 호텔에 적용한 것이기 보다는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의 미적대상으로써 전통적 디자인을 차용한 것으로써 호텔신라의 건축과 실내디자인을 이해해볼 수 있다.

4.2.3 롯데그룹의 반도호텔 매입과 호텔롯데 건설

호텔롯데의 개발은 도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워커힐, 호텔신라의 개발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워커힐과 호텔신라에서 국가의 의도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규모 고급호텔을 건설함으로써 선진화된 국가의 모습을 과시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이었다. 반도호텔 불하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만 이러한 의도보다도 호텔이라는 시설이 선진화된 도시 모습 형성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도호텔의 매각은 따라서 새로운 호텔이라는 시설 건설자체 보다 도시개발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따라서 호텔만이 아닌 쇼핑시설 또한 함께 건설되어 다른 호텔 개발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 워커힐, 호텔신라에서 과거의 워커힐, 영빈관 시설의 특성이 강하게 투영되었다면 호텔롯데의 경우에는 반도호텔 시설의 특성보다도 그 입지적 특성이 더 강하게 투영되었

다. 반도호텔도 그 입지적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바 있는데 반도호텔은 당시 최대의 금융, 상업지역이였던 장소적 성격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이라는 호텔과 상업, 임대용 사무공간이 결합된 시설로 구성된 바 있다. 호텔롯데 개발의 경우에도 호텔과 백화점이 결합되어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반도호텔의 프로그램을 계승하는 것이며 그 근원적 원인에는 입지라는 요소가 있었다.

다른 호텔개발과 호텔롯데 개발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호텔 부지만이 아닌 인근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국유지, 사유지의 매입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다. 반도호텔 부지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부지, 서울은행부지, 동국제강(주) 건물, 그 외 반도호텔 서편, 후면, 산업은행 사이의 작은 필지로 구성된 사유지들을 매입하여 구도심에서 보기 힘든 규모의 단일 필지를 확보하였다. 이는 도시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79년 호텔롯데 완공 이후 호텔 신관 건축을 위해 바로 인접한 2,417평의 산업은행 본점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롯데 쇼핑센터에 인접한 한일은행, 삼화빌딩 부지 모두 매입하여 호텔과 백화점으로 구성된 거대한 롯데타운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4-12] 호텔롯데 개발을 기점으로 조성된 롯데타운

호텔롯데의 개발이 도시화의 과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규모에서 드러난다. 먼저 호텔롯데 개발을 위한 필지는 구도심에서 국가정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로 확보되기 힘든 것이었다. 당시 중구 소공동일대에는 현대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 하에 소규모 필지의 낙후된 건물들이 철거되고 대규모 고층 건물 건설이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시청 앞의 프라자호텔은 낙후된 소공동 뒷골목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형태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하에서 건설된 바 있다. 당시 이 부근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선진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도호텔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국유지와 인근의 소규모 사유지로 구성된 호텔롯데 부지의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당시 일본기업이었던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었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신라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규모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다.

롯데그룹의 입장에서는 일본그룹으로써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도심의 대규모 시설건설을 통해 그 존재를 극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었다. 당시 선경의 워커힐과 삼성의 호텔신라와 같이 그룹 소유의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과 대규모 부동산의 존재는 기업들의 국내 입지뿐만 아니라 차관거래를 통한 국제계약이 이루어지던 시기에서 세계적인 신용도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호텔과 쇼핑센터로 이루어진 복합 상업시설 건설을 통한 이윤추구의 목적은 기본적인 전제였다.

이러한 측면은 호텔 건물의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당시로서는 초고층인 지상 37층의 높이로 건설되어 비슷한 시기 건설된 고급호텔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높이로 건설되었다. 최초 계획당시에는 45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청와대가 조망되고 청와대를 도청할 수 있는 높이라 하여 당시 건축법규 상으로 최고 높이인 150m, 37층의 높이로 건설되었다. 이 또한 정부의 법,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호텔롯데는 도다건설(戶田建設)과 엄덕문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맡았고 도다건설에서 시공하였다. 일본설계, 시공회사에 의해 설계된 프라자호텔, 신라호텔과 같이 타일이 외장재로 사용되었다. 호텔 건물은 흰색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외형상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건물 외형에서는 호텔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으며 백화점 건물로 구성된 롯데타운에서는 백색의 건물에 빨간 Lotte라는 글씨만이 강조되어 있다.

[그림 4-13] 우측부터 호텔롯데 구관, 호텔롯데 신관, 롯데백화점

평범하고 개성이 없는 호텔롯데의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누구나 이 공간이 고급호텔 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부는 유럽식의 고전양식 중에서도 바로크 양식이 사용되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외부에서 느껴질 수 없는 고급호텔의 분위기는 내부에서는 더 극적으로 느껴지게 되며 장식의 통일성과 고급자재를 사용한 덕분에 자칫 키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화려한 장식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장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데 외부에서 느껴지는 호텔롯데만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원래부터 가졌던 특징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모던하고 현대적인 장식들이 호텔 내부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장식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롯데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상통하고 외부에서 느껴지는 평범한 인상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호텔에 서구의 특정시대 양식의 고전적 장식으로 꾸며진

내부를 연상시킬 만큼 장식의 사용이 노골적이다.

[그림 4-14] 호텔롯데 건설당시 라운지 내부(좌), 현재 내부(우)

쉐라톤 워커힐에서 국가정부는 기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을 가진 세계 보편적 호텔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워커힐 개발을 통해서 미국식 리조트형 호텔 모델을 도입한 것과 같은 의미의 차원에서 이해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워커힐 개발의 의의가 민영화 된 이후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워커힐의 분산 배치된 시설들이 유지 되었으며 선경그룹은 쉐라톤이라는 세계적 호텔 체인과 계약하여 리조트형 호텔에 어울리는 휴양지 자연 경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부 디자인을 가진 호텔을 건설하였다.

호텔신라에서 국가정부는 기업을 통해 영빈관을 잇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호텔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삼성그룹은 영빈관 시설과의 시각적 통일감을 위해 거대한 한식 기와지붕을 설치하는 건축적 실험을 일본기업인 호텔오꾸라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었으며 내부에서도 전통적 무늬를 장식에 직접적으로 차용하였다.

호텔롯데에서 국가정부는 호텔건설을 통해 근대화된 현대도시의 풍경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텔은 대규모의 고층건물로 형태적 개성보다는 그 규모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건설되었으며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이 설치되어 거대한 롯데타운이 형성되었다.

국가호텔 인수를 통해 건설된 기업의 호텔들은 국가호텔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투영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정부가 기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호텔의 모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Ⅴ. 결론

이 논문은 근, 현대시기 국가주도로 건설된 국가호텔들의 건설과정과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호텔이라는 하나의 시설에 대한 통사적 연구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호텔 중에서 국가주도로 건설되었거나 국가에 의해 운영된 적이 있는 서울의 대규모 고급호텔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 속에서 단순한 숙박시설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가진 고급호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각 시기 국가호텔들의 건설목적, 역할과 기능 등을 알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당시기 신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시기의 신문자료를 통해 고급호텔이 국가시설로써 정치,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문자료를 비롯하여 당시 호텔에 대한 기록과 호텔의 역할과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시기 고급호텔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는 호텔에서 구현된 건축적 형태와 호텔의 역할과 의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호텔의 건축적 형태에 대해서는 호텔 건설당시 기록된 건설지나 건축잡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남아있는 호텔의 경우에는 년사(年史) 책을 활용하여 변형되기 전 해당 시기의 건축물과 내부공간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호텔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역할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호텔이 상업시설로 자본주의 유입이라는 사회체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텔의 변화는 호텔운영 방식의 변화, 호텔 소유주체의 변화, 호텔이 점유한 공간의 변화, 호텔 시설의 변화, 인근 경쟁 호텔의 건설과 같은 징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변화의 방향은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친 시대변화의 규명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었는데, 호텔은 상업성이라는 기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도시구조가 변화해 가는 시대 흐름 하에서 진행되며 호텔이라는 시설을 통해 행해졌던 국가적기능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사회적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호텔의 변화는 호텔로 대표되던 장소의 도시구조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며 국가호텔이 기업에 이전되어 새롭게 개발됨으로써 건축적으로도 구현된다. 국가호텔을 인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건설한 호텔들은 국가역할의 기업으로의 이전이라는 대의적 명분하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호텔의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각 장은 시기별로 구별되어 서술되어 있다.

2장에서는 고급호텔이라는 시설의 유입을 살펴보았다. 첫째, 1914년 건설된 조선호텔은 대규모 고급호텔의 시초로써 식민지 공간 재편의 과정으로 건설되었다. 조선호텔은 식민시기초기 식민지배의 현실을 시각화하였으며 낙후된 식민도시의 모습과 대조된 고급호텔의 모습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둘째, 조선호텔은 식민 자본주의 유입에 따라 상업화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호텔은 건설초기부터 상업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었는데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일반소비계층의 증가는 호텔을 고급문화의 소비재로 변모시킨다. 조선호텔과 경쟁적으로 건설된 민간호텔인 반도호텔 건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셋째, 차별적 지위의 표현이라는 목적을 가진 타자 정권의 호텔사용은 해방 이후까지 미국에 의해 존속된다. 미국의 조선호텔, 반도호텔 사용은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지정부에 의한 호텔사용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

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건설된 국가호텔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지난 호텔은 권력의 표상으로써 작동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을 국가상징의 권력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둘째, 박정희 정권기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한 고급호텔이 등장하였다. 박정희 정권기 고급호텔의 건설은 일본의 메이지 시기 활발하게 일어났던 국가호텔 건설과 유사한 차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능력을 국,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현대적 설비와 고급스러운 시설을 가진 호텔들을 건설하였다. 셋째, 국가에 의해 건설된 호텔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건설되었다. 워커힐은 미군과의 외교적 관계 계선의 의지 표명으로써 건설되었다. 영빈관은 민족적 통합과 국가의 문화적 전통성 표현을 위해 건설되었다. 타워호텔은 반공주의를 통한 민족적 통합과 반공정권으로써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러한 호텔들은 군부정권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 과정의 수단으로써 건설되었으며 각기 다른 건축적 형태를 보인다.

4장에서는 국가에 의해 건설된 호텔들이 민영화 되어 재벌대기업 호텔 개발의 바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에 의해 건설된 호텔들은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국가호텔들은 초기 건설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에게 이전된다. 둘째, 기업의 호텔 건설은 단순한 호텔의 민영화가 아닌 국가역할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국가는 호텔 매입 후 신규호텔 개발계획에도 참여하며 고급호텔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협력관계에 있던 재벌 대기업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의해 개발된 호텔들에는 개발의 바탕이 된 국가호텔의 특성이 강하게 투영되어 건축적, 장식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적 기념비로 건설된 상징시설이 국가권력이 안정화되고 국가정부의 역할이 감소하는 자본주의 사회형성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호텔이라는 시설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국가기념비적 상징 건축물들은 국가의 권력이 등장하거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건설되고, 건설된 직후 그 상징성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축물의 형태로써 시각화되는 상징적 의미가 건설되어 등장한 시점에서 극대화되는 반면, 도시 풍경의 하나로 인식된 후에는 그 의미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징 건축물들은 사용되면서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의 힘이 감소되고, 권력의 주체가 교체되면 그 용도가 변화하거나 철거되어 사라진다.

국가의 기념비적 상징 건축물로 건설된 고급호텔은 그 건설 직후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윤추구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호텔 건설당시의 목적이었던 상징적 기능 혹은 정치적,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윤추구의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 이에 따라 국가호텔은 민영화되고 더 큰 규모로 기업에 의해 재개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쉐라톤 워커힐, 호텔신라, 호텔롯데에는 국가 기념비적 상징 건축물의 잔상이 남게 되어 다른 호텔시설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건축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국가호텔을 인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대의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전달과정이 건축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까지를 시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처음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서울의 모든 대규모 고급호텔, 즉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 1등급의 최상위 고급호텔 전부를 다루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고안, 호텔이라는 시설에 관련된 현상들을 해석하

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호텔시설들을 일제강점기 유입된 고급호텔과 이후의 국가호텔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는 현대에 들어 개발되는 호텔들은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현재 건설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대규모 고급호텔이 가지는 건축적, 도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급호텔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따른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문화, 소비적 공간이다. 이러한 고급호텔의 기능은 해당 장소의 성격, 호텔 체인 브랜드와도 밀접하게 연관한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개발에서 고급호텔은 그 개발의 신용도와 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작용하기도 하며 호텔 개발은 서울의 도시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호텔은 문화적, 건축적, 도시적으로 분석될만한 여지가 많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여지가 많이 있다.

해당연구는 근, 현대시기 국가 기념비적 건축물의 자본주의 유입과 같은 사회체제 전환에 따른 변화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분석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호텔이라는 하나의 시설을 통해 근대화시기의 건축이 자본주의라는 현대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은 다른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하나의 시설이 아닌 특정한 건축 양식이나 도시 구조, 형태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식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호텔이라는 시설에서는 내포되어 있던 호텔의 상업적 성격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에 따라 반응하여 호텔시설의 건축적, 도시적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추가연구를 통해서 호텔이라는 시설이 가지는 문화적, 건축적, 도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한 연구와 함께 연구의 범위를 시기적으로 확장하고 식민시기를 겪은 아시아의 국가들로 지리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 유재연 역 : 도미타 쇼지, 「호텔 근대 문명의 상징」, 2008
- 양지윤 역 : 발레리 줄레조, 도시의 창 고급호텔, 후마니타스, 2007
- W. F. 샌즈, 「조선비망록」,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채, 2010
- 「朝鮮ホテル新築工事概要」, 朝鮮總督府鐵道局, 1914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한울, 2003
- 「100년의 기억, 100년의 인연」, 조선호텔, 2014
- 「관광공사 25년사」, 한국관광공사, 1987
- 「조선호텔處理誌」, 國際觀光公社 조선호텔處理委員會, 1967
-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 2005
- 「워커힐 三十年史」, 주식회사 워커힐, 1993
-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새길아카데미, 1992
- 김용욱, 「한국정치론」, 서울: 오름, 2004
- 전봉희·우동선·최원준, 「윤승중 구술집」, 마티, 2014
- 카우프만 모톤 D, 「韓國 觀光事業 調査報告書」, 한국 교통부 관광국, 1967
- 「호텔신라 二十年史」, 주식회사 호텔신라, 1994
-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 2003
-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한 60년의 비상 : SK 60년사 : 1953-2013」 ㈜사사연, 2013
- 강철규·최정표·장지상,「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比峰出版社, 1991

【학위 논문】

-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1904-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Ma, Sang-Yoon 「Dealing With Authoritarianism :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Governments 1960~1968」,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01
- 김동민,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 형성에 관한 연구 -해방후~5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지홍, 1960-19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학술지 논문】

- 김경한, 「한국 개화기의 호텔사: 대불호텔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7호, 2013.
- 이정학, 「개화기 호텔발전사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5호, 2013
- 김천성, 「정동, 근대식 서양 숙박시설과 사교클럽의 근원지의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6호, 2009.
- 김경한, 「일제강점기의 철도호텔에 관한 연구」, 컨벤션연구 제14권, 2014.
- 박희용,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표상, 원구단」, 서울학연구 XI, 2010.
- 박희용, 「권력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정동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제6권 2호, 2014.
- 정영호,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상」,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2010.
- 심승구, 「제1차 세계대전과 식민공간의 재편 -원구단과 조선철도호텔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2), 2014.
- 한규무, 「1900~1920년대 미국인 한국관광단 연구」, 서강인문논총 36집, 2013
- 윤상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일본비평 6호, 2012
- 정태헌,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 아시아문화 (15), 2000
-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 미나마타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 제14호, 2011

- 손정목, 「일제하 화학공업도시 흥남에 관한 연구 (하)」, 한국학보16권 3호, 1990
- 이용주, 「박정희 리더십과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2
- 박태균, 「군사정권 시기 미국의 개입과 정치변동, 1961~1963」, 2002
- 홍석률,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한국역사연구회, 2005
- 안창모, 「1960년대 한국건축의 반공·전통이데올로기와 모더니티」, 건축역사연구 Vol12 No.4, 2003
- 이완범, 「박정희와 미국: 쿠데타와 민정이양 문제를 중심으로, 1961~1963」, 2002

【신문, 잡지 및 회의록】

- 『독립신문』
- 『每日申報』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朝鮮と建築』
- 『건축사』
- 『국무회의록』
- 『공간』
- 『매일경제』
- 『꾸밈』

ABSTRACT

The State-Led Construction and th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Influx of Capitalism of the Hotel in Modern Times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Choi, Minhyun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the once state-operated hotels under a series of social changes like the influx of capitalism. The state-operated high-class hotels are hybrid facilities that possessed both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acilities and private facilities. However most of the hotel research only focus on analyzing hotels' operation and construction by regarding those analyzed hotels as

either national facilities or private accommodations.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privatization of state-operated hotels more comprehensively by analyzing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these facilities. Moreover, by observing the physical changes of the hotels under a continuous flow of privatization, we may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 between privatization and the change of age.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state-operated hotels only exis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beginning of Pak's regime. This can be an important clue of understanding the role and the meaning of state-operated hotels in those periods. As a facility that represents western style and culture spatially and architecturally, hotel is one of the ideal facilities for a regime to show its modernity and level of westernization. Therefore, analyzing the political background may be a way of understanding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hotel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ak's regime.

As the huge development cost can always be covered by the operation income afterwards, hotels were actively developed at the beginning of the regime. This implies that the private business characteristics has already existed even in those state-operated hotels. After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m, those private business characteristics were strengthened and a series of spatial changes appeared. As the result, those state-operated hotels became the fundamental of the newly built hotels, especially when the pro-government 'chaebols' were the main developers. There were

plot between the government and chaebol before the disposal of hotel development and hotels still carry certain state responsibilities after the privatization. Therefore, knowing that the state-owned facility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those new hotels, a multilateral interpretations upon the properties of the investor, the relation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otel are necessary on understanding how those state-owned properties were shown.

Keyword : Hotel, Luxury Hotel, Capitalism, Chaebol, Japanese Colonial Era, the Park Junghee Regime, Chosun Hotel
Student number : 2014-20502